

“이 논문은 1983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效率的인 學生指導를 爲한 問題性向 分析研究

姜昌赫* · 康順善** · 姜志勇***

〈 目 次 〉

I. 序 論	(一) 對 象
(一)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二) 道 具
(二) 研究의 內容	(三) 節 次
II. 理論의 背景	IV. 結果分析
(一) 靑少年의 本質과 特性	V. 要約 및 結論
(二) 韓國 靑少年의 意識構造	(一) 要 約
(三) 靑少年의 問題性, 原因, 對策	(二) 結論 및 提言
III. 研究方法	

I. 序 論

(一)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靑少年 指導의 問題는 어느 時代, 어느 社會를 막론하고 重要視되어 왔다.

1980年代의 教育의 問題를 教育計劃이라는 立場에서 淸급한 韓國教育開發院의 「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에는 經濟社會發展의 展望과 教育을 ①高度産業社會의 到來, ②高級人力 需要의 激增, ③經濟社會의 國際化 및 開放化, ④民間部分의 成長과 自律化, ⑤人口構造의 變化와 地域間의 移動, ⑥人間教育의 強化 및 民族文化의 育成 發展등을 들고 있다.¹⁾

특히 人間教育에 關해서는 “經濟의 持續的인 高度成長에 따른 高度産業化의 到來는 必然的으로 淸요한 社會가 갖는 特徵的인 社會問題들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物質萬能의 風潮, 人間疏外, 靑少年問題등의 社會病理 現象이 社會의 關心을 끌게될 것이다. 이러한 問題에 對處하기 爲하여, 教育은 知識과 技術을 獲得하기 爲한 手段으로서만 利用될 것이 아니라, 人間形成

* 本 研究所 相談指導部長(助敎授)

** 本 研究所長(工學博士·副敎授)

*** 本 研究所 調查研究部長(專任講師)

1) 韓國教育開發院, 「教育發展 展望과 課題」(1978~1991), 答申報告書, 1978, pp.18~23.

그 自體와 人類의 價値實現이라는 點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며, 人間教育의 強化는 産業社會의 重要한 課題가 될 것이다.”²⁾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社會現象은 그 어느 때 보다도 急變하고 있으며, 科學技術의 發展, 知識의 激增, 産業化에 따른 工業化 및 都市化, 經濟成長에 따른 職業觀의 變化등, 靑少年 特히 大學生들에게 많은 問題에 봉착하게 되었다. 大學生들의 問題는 점점 擴大되고 또한 그 樣相도 달라지고 있다. 더우기 最近에 있어서 一連의 教育改革에 따른 入試制度의 變化, 再修生 問題, 海外留學의 擴大와 大學院 進學의 增加추세 등, 學校教育에 많은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같은 大學生問題의 効率的인 指導方案을 모색하기 爲해서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問題와 苦悶을 科學的인 方法에 依하여 分析한 基礎資料 없이는 所期의 成果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研究는 特殊하게 地域과 環境을 달리하는 濟州大學生들의 當面하는 諸般問題가 무엇인가를 보다 科學的으로 分析 究明하여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教育 및 効率的인 學生生活指導 計劃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效果的인 生活指導의 資料를 提供하므로써 學生 個人을 理解하고 校內外의 生活上의 諸般問題를 學生 스스로 賢明하게 選擇, 解決해서 잘 適應할 수 있도록 助力하는 데에 그 目的과 意義가 있다.

(二) 研究의 內容

本 研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學生 個人的 側面에서의 問題로 縮小해서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局限시켰다.

- ① 個人的 適應問題
- ② 身體的인 問題
- ③ 餘暇善用 問題
- ④ 交友問題
- ⑤ 經濟問題
- ⑥ 學生－教授의 人間關係
- ⑦ 性格問題
- ⑧ 異性 및 性問題
- ⑨ 家庭問題
- ⑩ 價値觀의 問題
- ⑪ 將來問題

2) 上揭書, p.23.

- ⑫ 專攻科에 對한 適應
- ⑬ 씨클活動問題
- ⑭ 學內生活의 適應問題
- ⑮ 心理的인 不適應問題

II. 理論的 背景

(一) 靑少年의 本質과 特性

우리는 靑少年(adolescents)을 어떤 存在로 보고, 어떻게 理解해야 하느냐의 問題는 靑少年 問題의 原因을 究明해서 事前에 豫防하고, 指導하는 것이 必須的인 것이라 하겠다.

이에 關해서 成人들이 靑少年들을 보는 見解가 先進-開放國과 後進-閉鎖國間에 심한 差를 보여주고 있다.

卽, 先進-開放國의 成人들은 靑少年問題를 그들의 成長過程上의 問題로 보아, 많은 척든 간에 모든 靑少年들이 必然的으로 體驗해야 하는 課題로 본다. 그리고 非行이나 問題行動이라고 일컫는 허다한 行爲들도 그들의 問題解決過程의 여러 種類中의 하나에 不過한 것으로 보아, 比較的 樂觀的이고 肯定的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에 反하여 後進-閉鎖國의 成人들은 이와 같은 靑少年問題를 惡性 疾病과 같은 癩疾的인 병폐로 보고, 罪惡視하고 自眼視하는 非觀的이고 否定的인 態度를 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對한 指導策이나 方法도, 前者는 事前에 豫防的인 行動에 重點을 두고, 既成世代的 見解 變化와 社會改革을 통한 環境變化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反하여, 後者는 道德的 教育的 次元에서 禁止的이고, 強壓的 方法으로 非實踐的 理論이나 討論만을 일삼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Wolf & Gedo, 1980)³⁾

하나의 靑少年問題를 두고, 先進-開放國의 成人과 後進-閉鎖國의 成人들 間에는 왜? 이와 같은 見解差가 發生하는가? 그것은 비록 先進國과 後進國間에 만이 아니라 同一社會內의 人事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見解差는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勿論 그것은 人間에 對한 보다 專門的인 知識을 가지고 있느냐의 與否에 關한 問題와도 關聯된다. 한편으로는 靑少年들의 行動을 巨視的으로 보고 因果的으로 推論하며, 發達心理學的 見地에서 究明해 가느냐? 아니면 微視的으로 보고, 結果에만 집착해서 道德이나 犯罪學的 根據에서 現在의 狀態를 評價하는 데만 汲汲하느냐?의 觀察者의 態度나 觀察目的과도 關係가 깊다고 하겠다.

3) 文光錫, 靑少年問題와 將來, 大韓出版公社, 1963, pp.22~23.

오늘날 美國의 靑少年들에 對해서 Hurlock는 「새로운 種」(a new species)⁴⁾이라는 問題를 붙이고 있다. 그가 靑少年들을 「새로운 種」이라고 부르는 理由는 오늘날의 靑少年들은 우리 既成人들이 자란 環境과는 全然 다른 環境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性質도 전혀 다르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既成人들은 오늘날의 靑少年들을 自身들의 靑少年時代와 같은 性質의 것으로 보는 과오를 犯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成人들은 自身의 過去를 솔직하게 想起하여 別로 論하지 않거나, 아니면 自身의 靑少年時節의 行動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늘날의 靑少年들을 道德이나 秩序 또는 法律的인 根據에서 評價하려고 한다.

그러면 靑少年들을 어떤 存在로 理解해야 할 것인가?

靑少年에 對한 理解는 發達過程上的 問題로 理解되어야 하며, 또한 어떤 事態(situation)에서 어떻게 反應하고, 어떻게 順應, 適應하고 있느냐?의 環境과의 力動的 關係에서 糾明하여 理解해야 한다.

靑少年이란 兒童에서 成人으로 發達하여가는 過程中的 한 時期로서, 發達過程上的 過渡期(transition age)이다. 文化的 過渡期나 經濟的, 政治的 過渡期가 모두 그러하듯이, 過渡期란 반드시 混亂과 陳痛 그리고 不安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靑少年期는 發達過程上으로 그들의 內的 世界나 그것이 外顯되는 反應場面에서의 行動徵候上으로도 混亂과 不安이 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混亂이나 不安을 肯定的으로 受容한다면 그것은 確實히 發達과 發展을 위한 陳痛이고 不安이다. 勿論 發達과 發展을 爲한 陳痛과 不安의 狀態도 모두가 肯定的인 行動만이 아니고, 그 過程에는 否定的인 것도 생기게 마련이어서, 美風이나 秩序를 해치고, 非行이나 犯罪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否定的인 面을 事前에 豫防하고 發達過程上的 過渡期에서 發生하는 混亂을 最小限으로 줄이도록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⁵⁾

一般的으로 靑年期를 가르켜서

Lewin(1939)은 「周邊期」(Marginal man age)⁶⁾라고 부르고 있다. 그가 周邊期라고 부르는 理由는, 靑年들은 어린 쪽에도, 어른 쪽에도 아무 쪽에도 끼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卽 兒童들처럼 完全히 成人에게 기댈 수도 없고, 成人들처럼 社會舞臺와 中心에서 獨立된 責任者로 행세할 수도 없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이지 못하고 周邊에서만 빙빙 돌아다니며 求景만 해야 하는 이른바 周邊人이다. 옛날 같으면 當當히 成人행세를 할 수 있는 年齡인데도 社會에서는 그것을 認定치 않는다. 兒童편에 들자니 幼稚스럽고, 成人들의 行爲를 보면 부럽기만 하다. 그래서 靑年期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參與치 못해서, 周邊性에 隨伴되는 挫折과 不滿이 潛在하며, 그

4) 上掲書, p.24.

5) 李相魯, 靑年期의 特性과 學生指導의 問題, 慶北大學校 補職教授 세미나資料, 1981.

6) Lewin, K., Field Theory and Experiment in Soci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39, 44, pp.868~897. 金鳳韶, “大學生의 心理社會學的 態度에 關한 研究,” 경북대학교 학생 지도연구소 「학생지도 연구」, 제 6권, 1호, 1973, p.34.

로 인한 諸般問題를 지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特性때문에 青年期를 「疾風怒濤의 時期」(Hall, 1916)⁷⁾라고 부른다.

Hall 은 青年의 感情生活을 相互 矛盾되는 心的 傾向性間의 動搖다. 精力消耗나 異常行動 뒤에는 無關心, 無氣力, 嫌惡등이 뒤따른다. 充溢된 陽氣, 大笑, 陶醉에 빠지다가도 어느새 不安 陰氣, 鬱的 狀態로 變해 버린다. 自己本位, 自負心, 優勢등도 이 時期에 온다. 同時에 自己卑下 屈從, 羞恥心도 이 時期의 特徵이다. 青年은 孤獨과 한가함을 願하지만, 한편으로는 親舊와 友情으로 감싸여지기를 바라는 自身에게로 關心이 쏠리기도 한다. 實際로 交友集團이 強하게 영향을 주는 時期는 바로 이 時期밖에 없다. 때로는 銳敏한 感受性과 纖細性을 發揮하다가도 때로는 無感動과 冷酷性을 나타내기도 한다.

Hall 은 青年期의 特徵이라고 하는 疾風怒濤의 概念을 이같이 說明하면서, 創造的인 激한 熱狂과 깊은 感想的인 厭世感情과의 對照的인 相反된 行動이 복합된 것이다. 이런 뜻에서 「暴風雨의 時期」(鄭範謨, 1971)⁸⁾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Rousseau 는 「人生의 第二誕生期」(New birth)라 命名하고 그의 大著 Emile 가운데서 “우리는 말하자면 두번 태어나게 된다. 한번은 存在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한번은 生活하기 爲해서 태어난다. 한번은 種族(人間)으로 태어나고, 또한번은 男性 또는 女性으로 태어난다.”⁹⁾라고 하였거니와 이 時期에 새로운 自我가 形成 發顯되고 현저하게 發達하여 自己 나름대로의 自我意識을 지니게 된다.

青年期에 自我를 發見한다는 것은 自己의 內面으로 視線을 돌리는 일이며, 自己의 主觀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獨立시켜서 보는 理想世界의 發見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獨立의 體驗이 있게 되고, 內面的인 動搖가 있고, 自尊自負와 自卑自嘲의 交錯心理(自我와 環境과의 抗爭)가 따른다.¹⁰⁾ 이토록 青年期는 人生의 再出發이 始作되는 時期요, 精神과 生活樣式의 再體制化(Re-organization)가 이루어지는 時期인 것이다.

青年을 理解해야할 또하나의 側面은 「感情의 兩向性」(鄭範謨, 1979)¹¹⁾이다.

兩向感情이란 相友되는 두가지 感情, 欲求, 執着사이를 往來하는 언듯 보기에 矛盾되는 感情이다.

그들의 感情은 父母에의 依存과 獨立, 順從과 反抗, 安逸과 開拓, 個人과 集團, 落心과 希望 現實妥協과 現想固守...등의 사이를 同時에 往來한다.

7) Hall, G.S. Adolescence, 2 vols, Appletton, 1916. 中西信男, 青年の心理と指導, 福村出版社, 1982, pp.35 ~ 36.

8) 李星珍外, 國家發展과 青少年, 培英社, 1978, p.10.

9) 平林初之補譯, Emile (世界大思想全集), 春秋社, 1928, p.274.

10) 桂 廣介, 青年心理學, 金子書房, 1964, pp.283 ~ 288.

11) 李星珍外, 前掲書, p.18.

이와 같은 兩向感情은 一步 進展하여 兩向行動으로 나타난다. 卽 感情이 愉快(Mania)한 狀態에서는 自信感에 넘쳐서 活動的이고, 利他的, 社交的, 求知心的 活動을 할 뿐만 아니라 慈悲心에 넘쳐 親切하고 同情心이 強하여 善行을 하다가 어느 사이에 鬱的狀況(Melancholia)에 빠져서 上記와 같은 行動은 깜짝같이 사라지고 만다.

靑年期에 잠시 生理的으로 不安定, 不均衡이 생기는 것과 같이 心理的으로도 一時的으로 不安定이 생기는 셈이다.

周圍의 父母나 教師들은 흔히 이 兩向感情의 一面만 보고서, 또는 一面만 強調하여 靑年들을 誤解하고 잘못 指導하는 경우가 많다. 獨立과 反抗을 일삼는 靑年이, 保護와 順從을 願치않는 靑年이 아니라 도리어 한쪽이 클 수록 다른 쪽의 渴求는 實로 더 큰 것이 普通이다. 反對로 언젠가 고분 고분하다가도 그에게 獨立과 自己主張의 感情이 없는 것도 아니다. 獨立이라고 내버려 두면 혼자 지쳐서 쓰러지고, 順從이라고 安心하고 있으면 울화를 터뜨리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다른 兩向感情의 事態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그들 自身도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느끼거나 父母와 教師도 指導上的 갈피를 잡기 어려운 때가 많다. 그래서 이 時期를 흔히 「不可解의 時代」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靑年期를 「自己誇示時期」라고 부른다. 有名한 사람이나, 人氣人의 言辭나 態度등을 模倣해서 自身을 나타내어 滿足해 한다. 流行에 상당히 敏感하며 「氣分」과 「멋」을 찾는 時期이다. 말하자면 流行을 따라, 그 곳에서 自己를 나타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時期를 「멋내는 時代」(smart age) 또는 「돋보이려는 時代」라고 부르기도 한다.

끝으로 靑少年을 理解해야 할 側面은 「冒險의 時代」¹²⁾이다.

理想이 벽에 부딪쳐서 不可能하게 되면 道德的 퇴폐에 빠져버리는 行動으로 變한다. 卽 I·F·O (Ideal → Frustration → Demoralization)의 公式에 依하여 行動이 展開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未知의 世界에 對한 旺盛한 好奇心이 있다. 冷待를 받거나 劣等感에 사로잡히게 되면 家出, 盜癖, 自殺 등의 冒險을 하기도 한다. 要컨데 靑少年期는 初老期와 함께 人生의 二大危機라고 일컫는다. 思索의 눈을 뜨고 무엇이가를 懷疑하며 既存에 挑戰을 하는 그들의 자세가 感傷만은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體驗하는 精神의 遍歷이며, 自己成長의 過程이다. 그들의 行動은 理由 없는 反抗이라고 看過하려는 지나친 安逸과 無知 偏見은 一掃해야 할 것으로 본다. 靑少年期에 있어서의 親子間의 葛藤의 形態는 一般的으로 쿠중에 對한 말대꾸, 意見對立, 不腹從, 無言의 巨否의 態度, 處罰에 對한 反抗, 家出, 自殺 등의 形態로 나타나지만, 父母의 性格, 教養程度, 社會階層, 年齡등과 子女의 性格, 知能, 葛藤의 程度, 父母와의 親愛感등에 따라 그 形態는 多樣하게 나타난다.

12) 鄭寅錫外, 生活指導, 載東文化社, 1972, p.244.

그러면 靑少年期の 發達段階에서 볼 수 있는 特性들을 좀 더 具體的으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自我正體感(Ego - identity)의 危機

Erikson(1959)은 自我正體感이란 自己同質性を 維持해 나아가는 自身の 能力에 對한 個人的 自信感이라 했다. 이러한 自我正體感を 主觀的 側面과 客觀的인 側面으로 나누어서, 主觀的인 側面은 個人的 側面을 말하며, 客觀的 側面은 心理, 社會的 正體感を 뜻하는 것으로써 이들의 再統合化와 構造化가 要求되는 時期가 靑年期로서 이들은 大部分 正體感의 危機를 體驗하게 된다. 個人的 正體感이란 時間의 經過속에서 維持되는 諸般 自我의 同質性和 連續性에 基礎를 두고 있다. 그에 依하면 自我正體感의 主觀的 側面은 自我의 統合에 있어서 同質性和 連續性이 있다는 事實을 自覺하는 것과 이런 方法들이 他人에 對해서 自身の 同質性和 連續性を 保存하는데 有効하다는 事實을 아는 自信感이라는 것이다.

靑年期에는 이러한 自我正體感이 形成되고 確立되어야 하는 時期이다. Erikson에 依하면 人間은 8段階를 거쳐 發達해 가게 되는데 各段階는 그의 獨特한 身體的, 心理的, 社會的인 여러 特性들의 復合作用으로 發生하는 心理的, 社會的 危機를 體驗하게 되는데 이러한 危機의 克服이 곧 그 段階에 있어 發達の 基本目標로서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各 發達段階의 이런 危機를 克服하지 못할 때에는 그에 相應하는 否定的인 發達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에 依하면 靑年期는 發達の 다섯 번째 段階로서 그 以前의 幼兒期, 兒童期, 學齡期の 心理 및 社會的 危機의 克服與否로 인한 發達の 樣相들을 이어받아 自我의 正體感對 昏迷의 發達目標를 達成하려고 하며 이것은 다음의 成人初期, 成人期, 成熟期の 發達目標에 영향을 주어가며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한다.

靑年期에는 自身の 變化에 對하여 敏感하게 되는 時期이다. 그래서 過去의 自己와 現在의 自己를 比較해 보게 되며, 또한 他人과 自己를 比較해서 自己가 他人과 여러 가지 點에서 다른 特有的 存在라는 것을 認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自身の 變化를 銳敏하게 認識하고 또한 自己가 본 自身과, 他人이 본 自己, 現在의 自己와 未來의 自己等, 諸般 自己 모습에 對한 比較와 檢討를 하게되는 時期이다. 이것이 바로 靑年期에 있어 特有的 心理 및 社會的 危機를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靑年期의 危機는 諸般 自我像의 比較를 통해 自己의 本質, 位置, 能力, 人生의 意味를 認識하므로써 克服되어 結果的으로 自我正體感이 確立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靑年期는 職業選擇이 否定的이고 兒童과 成人間의 過渡期로서 社會的 役割이 曖昧한 時期이기도 하다. 따라서 不安해지게 되고, 諸般 自我像의 比較에 一貫性和 統一性이 缺如될 수도 있다. 이러한 內面의 危機를 克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正體感의 昏迷나 否定的인 自我正體感에 빠져 들게 된다. 이러한 境遇, 個人은 있는 그대로의 自己를 受容하지 못하며 未來의 展

望에 대하여 不安해 하고 이에 對處할 自身の 潛在能力에 自信을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自身에 부과되는 役割로부터 도피하거나 때로는 反撥하므로써 自身の 葛藤을 解決하려고 試圖하게 된다. 青年期の 많은 問題行動들은 이와 같은 否定的인 自我正體感의 發露라 할 수 있다. 徐鳳延(1975)¹³⁾은 自我正體感의 形成에 關한 研究 結果에서 우리 나라 학생들은 大學生 時節에 가장 큰 自我正體感의 變化를 體驗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大學生들이 卒業後, 成人期에 부과될 諸般 社會的 役割에 直面할 能力을 培養할 수 있도록 여러 種類의 役割實驗을 試圖하게 되며, 이러한 役割實驗 過程中的 肯定的 또는 否定的인 經驗들이 自我正體感의 形成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大學生生活은 自我正體感과 正體感昏迷의 兩極사이에서 葛藤을 느끼면서 自我 構造의 再結合을 試圖하는 時期라고 했다. 따라서 大學生들의 諸般 行動特性은 自我正體感 確立過程의 葛藤이나, 그 結果的인 肯定的 또는 否定的 自我正體感이 行動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自我正體感은 適應行動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이러한 根據는 여러 研究結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McCarthy & Rofferty(1971)는 自我概念과 適應水準間에 높은 正的 相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Body & Siney(1967)도 適合치 못한 自我概念이 不適應行動과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立證한 바 있다. Schuldt & Truax(1968) 등은 適合한 自我概念이 適應의 重要한 要因임을 밝히고 建設的인 自我指導에 依한 相談活動의 重要性을 強調했다¹⁴⁾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研究結果와 같이 自我正體感은 곧 適應 또는 不適應行動으로 表出하게 된다. 特히 否定的인 自我正體感은 自身の 能力과 役割에 對한 심한 不安을 야기하므로 攻擊, 否定, 投射, 反動形成, 退行, 極端的인 本能的 行動 또는 極端的인 知的 行動등이 나타난다.

2) 反 抗 性

사람은 一平生の 發達過程中的의 몇 번의 反抗期를 體驗한다고 한다.

Busemann(1928)¹⁵⁾은 反抗期의 存在를 生物學的 事實로 보아서 兒童期로부터 青年期까지의 反抗期를 5期로 分析하고 있으며, 이에 對하여 一般的으로 通用하고 있는 第一反抗期, 第二反抗期의 現象은 Haeberlin이 最初로 發見했으며 Bühler(1928)¹⁶⁾도 같은 樣相을 觀察했다. 이 중 第二反抗期를 青年期の 反抗性으로 보고 있으며 이 時期에 나타나는 反抗性은 社會的 視野와 精神의 世界의 擴大 深化에 따르는 精神的, 人格的, 社會的 欲求가 主軸을 이루고 있다. 青年期에 이르면 父母로 부터 心理的 依存關係를 벗어나서 自立的으로 行動하고 判斷하려는 傾向

13) 徐鳳延, 自我正體感 形成에 關한 心理學的 研究, 博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1975.1, pp. 1 ~ 134.

14) 慶北大學校學生生活指導研究所, 大學生 問題의 背景, 學生指導研究, 1982, 제 15 권, 제 1 호 p. 6.

15) 依田新, 新教育心理學事典, 金子書房, 1980, p. 657.

16) 上揭書, p. 657.

이 생긴다. 그렇게 하여 父母에 對한 要求內容도 달라지게 된다. 그 중 重要的 要求 內容을 본다면¹⁷⁾

- ① 人格的, 自立的 要求
- ② 보다 큰 自由에의 要求
- ③ 人格的 平等에 對한 要求
- ④ 公平에 對한 要求
- ⑤ 人間理解에 對한 要求

이와 같은 要因은 青年期에 있어서 父母와 子女사이의 葛藤造成的 原因이 되며, 또한 青年 特有的 抵抗意識의 基本條件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青年期의 反抗性을 造成해 주는 心理的 主要 條件에 關하여 桂廣介(1964)¹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青少年은 어린이보다는 社會化되어 있지만 아직도 한 사람 나름으로서의 經驗이 부족하고, 思慮도 깊지 못하여 複雜한 社會的 力動에 對한 充分한 理解가 不足하다. 이로 因하여 그들은 環境事態의 要求에 원만한 順應과 適應을 못한다.

② 青少年과 父母, 그리고 周圍의 年長者와의 關係는 어렸을 때의 關係 그대로 繼續되어 父母들은 習慣的으로 그들을 幼少年時代에 同一視해서 他律的으로 支配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青少年의 自立的 欲求와 對立되기 때문이다.

③ 青少年의 社會的 意識은 父母들에 比해서 未熟하기 때문에 아직도 일정한 限界의 指導가 必要하다. 그러나 적절한 限界를 찾기가 어렵다.

④ 身體的, 心理的, 社會的으로 成長하고 있는 青少年의 欲求是 現存한 社會的 機構와 傳統下에서는 그대로 實現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社會를 自身에 對한 壓迫者로서 받아들이기 쉽다.

青年期에서 볼 수 있는 第二反抗期(反抗性)는 第一反抗期가 身體的 活動의 自立에 따라서 생기는 身體的 衝動인 要求에 起因한 것인데 比해서 이는 身體的 心理的 發達의 不均衡에서 오는 不快 不安과 社會的 環境과의 不適應에 起因하는 混亂과 心的葛藤問題에 關係되고 있는 것이다.

3) 所屬에서의 離脫

心理的 離乳期는 兒童期부터 始作된다. 이리하여 成長되어가는 獨立性은 青年期에 이르러 成人들과 다른 獨特한 自己의 世界를 그리게 된다. 이와 같은 時期에는 自己 價値와 맞지 않는 既成價値와 制度 그리고 慣習들을 強要할 때, 그들은 스스로가 그리고 있는 自己의 世界로 離

17) 桂廣介, 青年心理學, 金子書房, 1964, pp.75 ~ 78.

18) 上揭書, p.74.

脫해 간다. 이와 같이 離脫의 過程은 먼저 心理的 離脫이고 다음으로 地理的, 社會的 離脫이라는 所屬에의 離脫現象으로 나타난다. 家出現象이나 放浪癖도 여기에서 出發된다.

問題는 이와 같은 靑少年의 所屬에의 離脫症候보다 어디로 離脫하여 어떤 惡에 汚染되느냐에 있다. 그들이 構想하는 世界는 觀念外의 現實에는 存在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地理的 社會的 離脫은 放浪이나 間隙地帶를 찾게 되고 따라서 惡에 汚染되기 쉽다는 事實이다. (李相魯, 1981)¹⁹⁾

4) 情緒의 可變性

靑年은 兒童과 成人의 中間 世界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內的 動搖가 심하다. 이 때문에 一般的으로 情緒의 緊張度가 높고 사소한 刺戟에 對해서 過激한 情緒的 反應을 나타내기 쉽다. 많은 調查研究 結果, 靑年期는 情緒적으로 過激한 時期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그 같은 過激한 靑年의 情緒를 우리는 周圍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例컨데 競技場에서 靑年들의 行動을 보면 勝者側에서는 넓은 運動場이 좁다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며 야단치는가 하면 敗者側에서는 부끄러움도 모르는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치며 통곡한다. 이 처럼 靑年들의 忿怒는 怒濤와 같이 무섭고 기쁨은 限量없이 크며 悲哀는 비길데 없이 깊은 것이다. 또한 하루에도 몇번씩 操의 狀態(Mania)와 鬱의 狀態(Melancholia)等 氣分變動이 甚하다. Mania 狀態에서는 氣分이 들떠서 거의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뿐더러 누구하고도 웃게 되며 樂觀에 사로 잡히는가 하면, 어느새 Melancholia에 빠져서 심각한 思索에 잠긴다든가, 입이 무거워진다든가, 때로는 自殺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 잠기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靑年들의 情緒가 極端의이며 過激하게 되는 까닭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異見들이 있다. 그러나 初期의 學者들이 생각한 것 처럼 內分泌線의 變化 特히 性線의 變化와 身體의 變化도 原因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보다는 靑年期에 들어가면, 異性問題, 職業問題, 넓어져가는 交友 關係 같은 지금까지 없었던 여러가지 새로운 適應問題에 當面하게 되는 데에서의 社會的인 要因이 크게 作用되어 靑年들의 情緒가 過激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適應에는 반드시 情緒의 緊張이 따르는 것인데 갑자기 많은 適應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情緒가 어느 時期보다 過激한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Malm과 Jamison은 靑年期의 情緒의 特徵을 10가지 들었는데, 그 中 代表的인 것 몇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① 靑年들은 不安定하다.

靑年期는 身體的인 面만 아니라, 心理的인 面에서도 크게 變化하고 發達하는 時期이다. 그러므로, 內部的으로 여러가지 欲求가 생기며, 또한 環境도 그에 따라 넓어져 가기 때문에, 自我와

19) 慶北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前揭書, p.7.

20) Malm, M., Jamison, O. G. Adolescence, New York, McCraw-Hill Book Co. Inc, 1952. pp. 250~310.

姜周泰外, 靑年心理學, 螢雪出版社, 1972, pp.76~78.

環境과의 對立, 또는 慾求間에서 發生하는 葛藤은 青年들을 不安한 存在로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不安定性은 多様하게 나타나 그들을 當황케 만든다.

② 青年들은 氣分的 (Moody)이다.

여기서 말하는 氣分이란 失望과 落膽을 잘하고 또, 氣分이 잘 變한다는 뜻이다. 그 原因의 하나는 青年들은 實現性 없는 空想을 하거나, 지나치게 큰 것을 期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兒童이나 成人들 보다 失望을 하기 쉽고 氣分이 나쁘기 쉽다. 또, 다른 原因은 그들이 이 世上에서 얼마나 無能하다는 것을 깨닫기 始作할 뿐만 아니라, 이 世上이 그들의 困難과 慾求에 얼마나 無心한가를 알게 되기 始作하기 때문이다.

③ 青年들은 수줍다.

青年들은 언제나 自身이 他人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몸과 行動이 自由롭지 못하며, 그로 因하여 부끄러워한다. Hurlock는 青年들의 부끄러움은 身體의 不技巧性 (Awkwardness)과 지나치게 發達된 自我意識 때문이라 하였다.

青年들의 수줍음은 그들의 注意 對象이 될때 發生하는 것이다. 卽, 사람들이 모여 있는 集團에서나 集團 속의 어떤 사람이 自己를 부르거나 또는 大衆 앞에서 이야기 할 때는 수줍어서 어쩔 줄 몰라한다. 特히 그들은 異性 앞에서 泰然한 척 또는, 無關心한 척 애를 쓰지만 實은 異性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

④ 青年들은 敏感 (Tochy)하다.

成人들의 눈으로 보면, 青年들은 批判 또는 訓戒에 對해서 지나치게 敏感하다. 사소한 일에 對해서도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내는 것이 이들의 時期이다.

⑤ 青年들은 잘 웃는다.

또한 그들은 사소한 일에 對해서도 마구 웃어댄다. 가끔 이와같은 웃음이 他人에게 害를 끼친다는 것을 理解해서 참으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事態는 惡化되어 간다. 青年들이 잘 웃는 것은 어린 때의 習慣과 身體的 變化에 起因한 것이라 보고 있다.

⑥ 青年들은 잘 熱中한다.

青年들은 冒險과 運動 같은 것에 興奮하고 熱中한다. 卽, 氣分이 Mania 狀態에 놓이게 되면 學校 課業에 熱中할 뿐만 아니라 즐겨 課外 讀書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機械를 組立하기도 하며 動植物을 채집하기도 하며 혹은 哲學書籍을 읽는데 몰두하기도 한다.

5) 社會的 未成熟性

家庭, 學校 및 交友가 그 主要한 生活 環境이 되고 있는 青年들은 經驗이 적을 뿐만 아니라, 行動의 半經도 極히 制限된 範圍內에 머물고 있다. 生産 活動이나 收入 活動 같은 職業生活이나 社交活動의 經驗이 不足하므로 그들의 生活場面에는 競爭의 폭이 좁아서 現實感覺이 회박하고

社會的 成熟度가 낮다.

또한 自己 中心的인 利己性이 强하여 既成 社會制度나 慣習에의 同化性이 弱하다. (李相魯, 1981)²¹⁾

이와같은 社會의 未成熟性은 自然히 現實 生活에서 많은 不適應 現象을 經驗하게 되고, 欲求 不滿의 程度가 높게 마련이다.

以上과 같은 青年期의 特徵들은 모두가 非社會的, 非妥當性이나 反社會的 行動을 낳게 되는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기에 靑少年 指導의 對策은 마땅히 이와같은 特性에 根據한 專門的이며, 巨視的 對策을 수립하고 實質에 ち중하는 指導라야 할 것이다.

6) 知的 確信

靑少年들은 生理的으로 成人에 가깝지만 思考에 있어서는 成人에 比하여 具體的으로 思考를 하지 못하고 大體的으로 抽象的 思考를 한다. 그래서 現實의 世界를 넘어서 理念의 世界를 形成 한다. 또한 批判的이고 懷疑的이다. 現實社會의 制度에 對하여 疑訝心을 품기 쉽고, 失望하거나 頹廢에 빠지기도 한다. 急進的이며 革新的의어서 때로는 先輩들의 業績에 對해서 否定的이며 自己 立場을 全面的으로 肯定하는 등 自己 나름대로 自己 생각에 確信을 갖는다.

靑年들의 思考가 批判的이고 理想志向的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思索에 煩悶하기도 하지만 知的인 確信을 가지고 있어 一部 靑年들은 現實參與를 通하여 社會改善을 하려고 努力한다. 그들은 知的인 面的 優秀성과 具體的인 理論을 提示하면서 自己理論의 呼應을 얻기 위하여 열띤 呼訴를 하기도 한다. 특히 大學生集團은 知識人集團에 屬하는 것으로 既成集團보다도 훨씬 自由로운 集團行動을 通하여 社會的, 政治的 爭點에 關與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社會正義實現을 爲한 鬪爭에 積極性을 보이기도 한다. (성균관대학교, 1971)²²⁾

7) 行動 意欲

靑年期에 있어서, 行動特徵의 하나는 自我意識의 發達이다. 이 時期의 特徵은 社會的 關心이 發達하기 始作하여 社會意識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제까지의 象牙塔의인 人生觀과 態度는 그 것으로 그칠 수가 없음을 알게 된다.

個人的 行動이 個人的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個人은 社會속의 한 人間으로 行動하는 것이므로 自己의 行動이 他人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느끼게 된다. 그리 하여 이와 같은 態도와 行動은 마침내 理想主義的 思考와 現實的 環境이 서로 結付해서 소위 社會正義感이 强하게 作用하여 現實을 認定치 않고 어떤 理想을 實現해 보고자 하는 意慾을 表出 하기도 한다. 이러한 反抗, 權威否定的 論理가 社會正義感和 結付되어 理智的 行動보다는 感情

21) 慶北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前掲書, p.8.

22) 上掲書, p.9.

的 行動意欲이 앞서게 된다.²³⁾

(二) 韓國靑少年의 意識構造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社會는 急激한 社會變動과 同時에 複雜多端한 社會問題가 새로운 問題點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經濟發展에 따른 享樂主義와 消費性向이 높아져서 物質萬能主義의 思考가 만연되어, 靑少年들은 價値觀의 混亂과 情緒的인 不安속에서 自信心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社會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 靑少年들의 意識構造를 알아보기 爲하여 1979年 靑少年月對策委員會*에서 實施한 調查研究 結果를 토대로 大體的인 傾向을 考察해보면 다음과 같다.²⁴⁾

1) 人 生 觀

(1) 人生의 目標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目標가 있지만 당신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라는 設問에서, 「人生을 즐겁게 산다」가 全體의 40.2% (54.2%), 「國家 社會를 爲해서 봉사한다」가 32.7% (24.8%),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가 15.4% (3.6%), 「그날 그날을 그럭저럭 지낸다」가 2.5% (1.9%)로 나타났다.

(2) 生活의 滿足度

現在의 生活에 「滿足하다」가 17.7% (19.4%), 「滿足한 편이다」가 38.5% (44.0%)로 나타나고 있어서 滿足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全體의 56.2% (63.4%)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4 차례에 걸친 經濟開發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하겠다.

(3) 삶의 보람

어느 때 사는 보람을 느끼느냐?의 設問에 對해서, 「自己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중했을 때」가 42.7% (66%), 「他人과 즐거운 時間을 보낼 때」가 15.7% (12.6%); 「他人을 도와줄 때」가 14.2% (7.9%)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上揭書, p.9.

* 1979년 2월 1일부터 석달 동안 학생 5,000명(남: 2,500명, 여: 2,500명-대학생 1,000명, 고교생 2,000명, 중학생 2,000명), 근로 청소년 3,000명(남: 1,500명, 여: 1,500명), 농촌 청소년 2,000명(남: 1,000명, 여: 1,000명) 등 10,000명을 無作爲抽出法으로 抽出,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음. 그리고 본문에 기재된 ()속의 숫자는 大學生의 반응임.

24) 文光錫, 靑少年問題와 將來, 大韓出版社, 1983, pp.36 ~ 65.

(4) 苦悶

“요즘 苦悶이나 걱정거리가 있느냐?”의 設問에 對해서 全體의 90.6% (92.2%)의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서, 大部分의 靑少年들이 苦悶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倫理意識

靑少年들의 意識中, 倫理意識의 側面은 그들이 가지는 行動規範, 社會規範의 테두리를 決定하는 指標로서 重要한 意義가 있다.

靑少年들의 行動規範은 그 文化社會에 흐르고 있는 既存 價値觀의 影響을 받고 있으며, 또한 既存 價値觀은 社會體制의 變動, 文化樣式의 變化에 따라 文化的 층들의 狀況下에서 發展·變化되는 것이다.

(1) 孝道觀

“父母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자세로 여기느냐?”의 設問에 對해서 「우선 복종하고 나중에 말씀드린다」가 62.8% (62.1%)로 가장 많고, 「옳지 않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가 28.5% (30.8%), 「無條件 服從한다」가 7.0% (5.8%)의 順으로 나타났다.

(2) 扶養觀

父母 扶養意識에 對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 모셔야 한다」가 54.8% (50.8%)의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倫理意識보다 傳統性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한편 「生活形便에 따라 모셔야 한다」가 38.1% (43.6%), 「父母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가 3.2% (2.5%)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3) 祖上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느냐?”의 設問에 對해서,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가 54.9% (58.4%), 「이름정도 알고 있다」가 32.5% (30.8%), 「子細히 알고 있다」가 10.3% (9.4%) 「알 必要가 없다」가 1.5% (1.1%)로 나타나고 있어, 傳統性에서 大部分의 靑少年들이 탈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4) 配偶者 選擇觀

“配偶者를 누가 選擇해야 하느냐?”의 設問에 對해서, 「부모와 당사자」가 64.6% (66.7%), 「당사자」가 30% (31.3%), 「부모」는 2.7% (0.3%)로 나타나고 있어, 結婚問題에 關한 急激한 變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既存 道德意識에서 脫피하려는 傾向임을 엿볼 수 있다.

(5) 家門觀

“結婚할 때 相對方의 家門에 對하여 「꼭 보아야 한다」가 13.6% (14.1%), 「家門도 보아야 한다」가 55.3% (66.2%), 「볼 必要가 없다」가 25.8% (16.4%)로 나타나고 있어 大部

分の 靑少年들이 讀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長幼有序觀

複雜한 車內에서 연세 많은 분에 對한 양보의 態度로 長幼有序意識을 알아 본 結果, 「되도록이면 양보한다」가 69.2% (74.9%), 「無條件 양보한다」가 27.2% (20.9%),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2.3% (2.9%)에 不過하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양보한다」에서 높은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음은 年長者에 對한 생각이 消極的임을 엿 볼 수 있다.

(7) 異性交際觀

異性과의 交際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하는 것이 좋다」가 47.7% (66%),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가 27.9% (23.4%)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다」가 14.1% (4.2%), 「무조건 찬성이다」가 7.4% (5.5%), 「안하는 것이 좋다」가 2.7%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特히 大學生들의 경우는 「하는 것이 좋다」에 많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8) 性倫理觀

婚前 性關係에 對하여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가 45.3% (51.5%)로서 가장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가 愛情만 있다면 相關없다」가 43.3% (40.1%)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점차 開放的인 傾向으로 흐르고 있음을 暗示한다.

3) 國家意識

(1) 國家觀

“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싶습니까? ”의 물음에, 「말은 일을 充實히 하여 國家, 社會發展에 도움이 되겠다」가 56.3% (62.4%)로서 가장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國民으로서의 責任과 義務를 다하겠다」가 34.3% (31.5%), 「國家를 爲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가 7% (2.1%)로 나타났다.

(2) 民族觀

靑少年들이 우리 民族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보가 爲하여, “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 設問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急速한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있다」가 27.7% (18%), 「國難을 克服하여 國家를 지켜온 單一 民族이다」가 23.7% (22.2%) 「禮節 바르고 부지런한 民族이다」 14.5% (10.7%), 「悠久한 歷史 文化를 가지고 있다」 12.3% (14%), 「아름다운 江山을 가지고 있다」 8.1% (9.3%), 「世界에서 으뜸가는 反共國이다」 5% (3.9%)의 順位로 나타내고 있어, 우리 靑少年들이 最近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에 對하여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 祖上들의 國難克服의 意志와 單一民族임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未來觀

우리나라의 展望에 對하여, 「繼續 發展하여 先進國의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가 57.7% (30%) 로서 가장 높고, 「先進國까지는 모르지만 現在보다는 確實히 發展할 것이다」가 39% (62%) 의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發展可能性에 對하여 攄 樂觀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바람직한 韓國像

將次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하느냐?” 의 물음에 對해서, 「國際社會에서 몇몇이 認定받는 나라」가 35% (32.2%), 「福祉社會를 누리는 나라」가 29.5% (40.2%), 「經濟的으로 윤택한 나라」가 16.8% (6.2%), 「傳統과 文化를 重視 여기는 나라」 8.9% (12.3%), 「國土와 自然이 아름다운 나라」가 8.6% (6.7%) 의 順位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가 將次 世界에 자랑할만한 富強한 國家를 建設해야 되겠다는 強한 意志와 進取的이고 積極的인 態度를 보여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 바람직한 靑少年像

바람직한 靑少年像을 알아보기 爲하여 18 個의 德目中, 3 個만 選擇토록한 結果, 가장 많이 나타난 德目은 「뚜렷한 目標가진 靑少年」 33.8% (47.3%), 「誠實한 靑少年」 32% (38.5%), 「孝道하는 靑少年」 28.7% (11.3%), 「올바른 國家觀을 가진 靑少年」 25.6% (25.1%), 「責任感이 強한 靑少年」 24% (24.4%), 「民族的 긍지를 지닌 靑少年」 22.4% (28.2%) 의 順位로 나타났다.

4) 家庭生活과 意識

(1) 家庭觀

家庭의 機能에 對한 意識을 알아보기 爲하여 家庭은 무엇을 하는 곳이나? 의 質問에, 「家族과 더불어 愛情을 주고 받는 곳」이 84.1% (86%) 로 가장 높은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고, 「休息하는 곳」 7% (8.7%), 「父母가 나를 키워주는 곳」 4.6% (1.8%) 의 順位로 나타나고 있다.

(2) 바람직한 父親像

어떤 型의 아버지를 좋아하느냐? 의 設問에,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75.6% (81.6%) 로 가장 많고, 「社會적으로 德望이 있는 아버지」가 5.2% (2.2%) 의 順位로 나타났다.

(3) 바람직한 母親像

어떤 型의 어머니가 바람직하느냐? 의 設問에, 「집안 일을 알뜰하게 보살피는 어머니」가 89% (92.2%) 로서 絕對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社會를 爲하여 奉仕하는 어머니」 4% (1.9%), 「家庭을 爲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어머니」가 2.1% (0.7%) 로 나타내고 있어, 靑少年들은 父母 모두 家庭的인 것을 願하고 있으며, 愛情어린 父母의 生活態度를 무엇보다 重要視 여기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4) 家庭生活에서의 苦悶

家庭問題로 苦悶하고 있느냐?의 물음에, 75.2% (68.5%)의 靑少年들이 苦悶을 呼訴하고 있으며, 24.1% (31%)가 苦悶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苦悶의 內容을 보면, 大學生들은 父母의 理解不足(19.6%), 過剩期待(19%), 經濟問題(14.3%)의 順으로 나타났다.

5) 學校生活과 意識

(1) 學校觀

學校의 機能에 對한 意識을 알아보기 爲하여,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이나?의 質問에 「教養을 넓히며 人格을 陶冶하는 곳」이 57.2% (62.8%)로 가장 많고, 「學文을 닦고 眞理를 探求하는 곳」 26.6% (25.1%), 「知識을 가르쳐 주는 곳」이 6.2% (2.6%), 「生活能力을 길러주는 곳」이 5.9% (5.5%)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學生들이 學校가 教養을 넓히고 人格을 陶冶해 주는데 보다 힘을 기울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2) 바람직한 教師像

學生들이 바라는 教師像의 물음에, 「人格陶冶에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46.5% (59.4%)로서 가장 많고, 「學生과 자주 접촉하여 家庭이나 身上問題에 對하여 相談해 주시는 선생님」이 29.4% (18%) 「實力과 能力있는 선생님」이 15.3% (18.2%), 「授業을 充實히 하시는 선생님」 7.5% (2.8%)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學校觀에 考察한 바와 같이 人格陶冶面을 重視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學科教育에만 치중하는 教師像은 그다지 바라지 않는 것 같다.

(3) 交友關係

가장 親한 親舊와는 兄弟間 以上으로 마음이 通하느냐?의 質問에 對해서, 「兄弟間 以上으로 通하고 있다」가 39.6%, 「같은 程度」가 33.4%로서, 交友關係가 兄弟間이나 그 以上の 程度로 되는 學生의 比率는 全體의 約 2/3에 達하고 있어, 靑少年 特有的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三) 靑少年의 問題性, 原因, 對策

우리나라의 靑少年問題는 每年 增加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手法이 殘忍하고 組織的으로 되어가고 있다.

1971年度의 調査에 依하면, 靑少年 犯罪는 總 94,278名으로 1970年度의 84,810名에 比하여 11.2%로 增加하였고, 成人을 포함한 構成比率는 10.8%로서, 1970年度의 構成比率²⁵⁾ 7.6%보다 1.2%나 上昇하였다고 報告하고 있다.

25) 內務部治安局, 搜查白書(서울:內務部治安局, 1972), p.33.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都市化의 規模와 犯罪發生分布의 程度는 上當히 높은 相關關係가 있다는 事實이다. 卽 全國의 六大都市, 其他都市, 農漁村으로 區分하여 보면, 1970 年度의 總 青少年 犯罪者中에서 六大都市가 點하고 있는 比率은 70.4 %나 되고 있어서 全人口에 對한 六大都市의 人口構成率 31.9 %에 比하여 六大都市에서의 青少年犯罪 發生比率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人口 10 萬에 對한 青少年 犯罪人係數를 보아도 全國이 300 名, 其他 都市와 農漁村이 130 名인데 比하여, 六大都市가 659 名으로 其他 都市와 農漁村을 合한 것보다 5 倍를 能加하고 있다.²⁶⁾

이와 같은 現象은 物質文明의 發展에 比하여 精神文化의 向上이 遲滯現象으로 나타나는 物質 萬能, 拜金主義思想의 墮배와 人間性 涵養을 爲한 機會의 喪失과 傳統的 倫理觀이 體質化 되어 있는 指導層의 期待와 또한 물질듯이 밀려드는 西歐文化의 形式的 價値의 소용돌이 속에서 彷徨하며, 中心價値를 找지 못하는 데에 起因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時代的 過渡期 狀況에서 民主主義가 定着하기까지의 바탕이 되는 責任과 義務의 根本은 아랑곳 없이 自由와 權利만을 누리려는 利己主義의인 生活態度가 秩序보다는 無秩序, 信賴보다는 不信風潮를 造成하고 있으며, 産業化 및 工業化過程과 더불어 人間의 疏外 및 非人間化 現象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同時에 家庭 및 社會教育의 機能이 弱화되고, 學校教育은 形式的내지 斷編的인 知識爲主로 흘러, 人間化 教育을 爲한 機會의 減小 및 缺如에서 나타나는 結果라 하겠다.

1) 青少年의 問題性

오늘날 青少年問題性의 特徵에 對하여 Hurlock 은, 未開發國의 青少年들은 美國의 生活樣式만 模倣하면 그 나라 國民들도 先進化되는 것으로 錯覺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美國 青少年들이 가지는 特性和 問題性을 比較的 子細히 列舉하고, 이는 반드시 지난 世代의 青少年들보다 優秀하다는 證據는 없지만, 劣等하다는 證據는 分明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確實히 오늘날, 우리나라 青少年들의 問題性도 美國 青少年들의 그것과 비슷한 點이 많다. 그 問題性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① 年長者에 對한 尊敬心의 喪失

父母나 教師 그리고 윗 어른이나 老人에게 尊敬心이 弱하다. 長幼有序나 孝는 勿論, 敬老思想까지도 그 必要性을 別로 느끼지 않는다.

② 規則과 秩序의 無視

그들은 規則이나 秩序가 個人이나 社會를 爲해서 存在價値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個人을

26) 上揭書, pp. 36 ~ 36. 六大都市란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大邱市, 仁川市, 光州市, 大田市를 말함

27) 文光錫, 前揭書, pp. 30 ~ 32.

拘束하기 위해 存在하는 生活에 거추장스러운 障礙物로 생각한다.

③ 自己中心性和 지나친 利己性

그들은 主體性이 強하다는 面에서 比較的 早熟現象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같은 主體性은 지나치게 自己中心의 方向과 利己主義的 方向으로 치닫고 있다.

④ 意務보다는 權利追求型이고 責任感이 弱하다.

權利에는 반드시 責任과 意務가 따르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靑少年들은 權利만 追求하고 意務와 責任을 遂行하려는 態度나 努力이 不足하다.

⑤ 非現實的인 抱負水準과 現實感覺의 缺如

그들은 때때로 假空的인 理想世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現實感覺이 缺如되고 그러기 때문에 非現實的인 抱負水準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不適應 現象을 일으킨다.

⑥ 反禮儀, 沒純潔, 感覺的 快樂追求의 價値觀

그들은 規則과 秩序를 個人을 拘束하는 거추장스러운 障礙物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禮儀나 純潔도 그렇게 생각하는 快樂追求의 價値觀을 가지므로서 그 價値觀은 發展的이거나 建設的이기 보다는 消費的이고 享樂的인 價値觀의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⑦ 同僚集團에의 盲目的인 同調性

靑少年들은 그들이 所屬하고 있는 集團內에서의 價値를 維持하기 爲하여, 그것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盲目的으로 同僚集團에 同調하며, 따라서 父母나 成人들의 價値나 行動類型에의 同調를 회피하는 傾向이 높다.

⑧ Sports man 이나 演藝人의 英雄觀

Sports man 이나 演藝人과 같은 人氣職에 從事하고 있는 人物을 英雄視하며, 그들의 言行이나 服裝을 模倣하고 지나치게 流行에 敏感하며 그것에 同調하는 傾向이 높다.

⑨ 反勤勞的 態도와 安逸性的 追求

모든 일들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解決하려고 하며, 힘들여 일해서 손해를 볼 必要가 없다는 態度이다.

⑩ 어떤 社會階層의 指導的 價値에 對한 占有欲

靑少年들은 單純한 自己實現이나, 成就의 充足보다는 社會 階層意識의 文化에 敏感하며, 恒常 어떤 社會階層의 指導的 位置를 占有하기를 바란다. 씨클의 組織이나 선동의 行爲 등은 이에 屬한다.

⑪ 巨視的인 큰 利 보다는 近視的인 目前的 利만을 追求하려 한다.

先輩나 어른에게 禮儀를 지키거나 人事性있게 行動하므로서 그들에게 認定을 받아 將來의 큰 利를 얻으려는 努力보다, 禮儀를 지키거나 人事를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며 지금의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한다.

⑫ 批判追求

家庭에서 父母의 行動은 恒常 子息들의 批判의 對象이 되고, 學校 또한 學生들의 反抗의 場이 되기 쉽다.

以上과 같은 靑少年期의 特徵은 비록 그것이 모두 直接的인 問題性으로 보여지는 性質의 것이 라고 判定하기는 어려우나, 問題行動이나 非行의 소지가 되고 있는 性質들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姜周泰 등은 靑少年들의 問題性과 問題靑少年들의 特徵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²⁸⁾

① 適應障害에 의한 問題性

靑年期는 人格發達이 매우 현저하다. 그래서 既得의 生活適應의 形式으로써는 解決이 안되며 새로운 適應樣式이 必要하게 되는데, 이것이 心身兩面에 걸쳐 確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問題에 當面하게 된다. 靑年들은 精神發達의 結果로 自我意識이 強해지고 自我實現을 爲하여 여러가지의 欲求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欲求過剩으로 되기 때문에 欲求不滿의 狀態에 빠진다. 또한 身體의 成長과 더불어 感受性이 強해져서 情緒的으로 不安狀態에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知的 發達에 依하여 批判力도 銳敏하게 되므로 傳統的 權威를 否定하려고 하며, Mass-com의 刺戟과 對決하여 否定과 受容의 矛盾에 빠지면서 그 영향을 強하게 받는 立場에 있는 것이다. 社會經驗이 不足한 靑年의 感受性이나 批判性은 外的인 權威나 傳統에의 否定的 態度로 나타나 反社會的으로 됨과 同時에 自己에 對한 否定이나 批判이 되므로 苦悶, 不安, 自殺에의 衝動, neurosis도 發生하게 된다.

특히 最近의 Mass-com이 주는 思想性은 複雜하며 新聞등에 나타나는 政治思想도 複雜하므로 靑年의 人生觀 形成을 困難하게 하고 있다.

現代 生活에 있어서 精神障害 增加의 社會的 原因으로, ① 刺戟의 增大 ② 生活의 困難 ③ 將來에의 不安 ④ 可能性의 增大와 滿足의 困難등을 들 수 있으며 이가 Mass-com과 크게 關係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斷編的인 Mass-com의 刺戟 그 自體에 依한 영향이라기 보다 그 內容이 不統一한 思想性에 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모든 靑年들은 무엇인가 問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優秀한 靑年일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問題를 지녀서 neurosis나 自殺등에 빠지는 수가 있다. 또한 심각한 劣等感에 사로잡혀 있는 靑年들은 自己를 放棄하기 쉽고 怠學, 怠休에서 더 나아가 非行으로 連 結된다.

② 問題靑年의 特徵

28) 姜周泰外, 前掲書, pp.230~233.

問題를 일으키는 靑年들에게는 共通的인 特徵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깊은 劣等感을 가지고 있다는 點이다. 學校에서는 學業에 對한 劣等感이나 疏外感을 느끼게 되고, 就職하면 學生 靑年들에 對하여 卑下感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學習 意欲이나 勤勞欲을 惡循環的으로 減退시켜 積極的인 向上欲을 喪失하게 하여 異常적인 享樂主義로 빠지게 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劣等感은 主觀的 要素가 强하며, 外部로부터의 客觀的 評價는 그러한 程度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도 自己의 短點을 過大評價하고 長點은 過少하게 評價한다. 그 結果 自身을 스스로 問題視하는 點에 特徵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 卑下시키는 反面 外部로부터 輕視當하는 것에 對하여 苦悶하게 된다. 따라서 問題靑年들은 他로부터 구제를 얻기 전에 自己를 放棄하고 있는 것이다.

第二는 耐忍性이 弱하다는 點이다. 問題靑年들은 大部分 意志가 薄弱하거나 勤勞의 努力이 缺如되어 있다는 點이다. 이것으로 因하여 刺戟이나 誘惑에 弱하며 享樂的인 놀이에 빠져 苦悶이 不安에 쌓여서 사소한 問題에도 맞서지 못하고 挫折해 버린다.

또한 耐忍性이 弱한 者는 거꾸로 欲求過剩이나 自己誇大의 傾向이 있다. 이 때문에 欲求不滿이나 自傷的 狀態에 빠져 問題의 發生과 惡循環의 連鎖關係를 갖게 되는 것이다.

第三은 自主性이나 責任感이 缺如된 點이다. 問題靑年들은 무엇이든지 재밌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自己中心的인 것으로 自主性과는 달리하는 것이다. 自主性이 낮기 때문에 他로부터의 批判을 감당할 수 없고 他人의 忠告나 助言에 對하여 逃避的으로 되고, 反面 對他的 勇氣가 不足하므로 外部로부터의 誘惑에 빠지기 쉬운 特徵을 가지고 있다.

또한 自主性이 缺如되어 있다는 點에서, 自己나름의 生活目標도 不安定하여 恒常 變한다. 自己에게 興味가 있는 일에는 熱中하지만 오래 持續을 못하는 「氣分 내키는대로」의 人間에 對한 意識이 弱하고 無責任한 行動이나 他人에게 責任을 전가하는 傾向을 가지고 있다.

第四는 自主性이 缺如함과 關連해서 生活의 基本的 姿勢確立이 習慣化 되어 있지 않다는 點이다. 問題靑年들은 例外없이 父母의 放任, 溺愛, 嚴格의 어느 態度에 依해서든 길러지고 있다.

第五는 對他的 不信感을 지니고 있다는 비뚤어진 感情을 갖고 있기 때문에 孤獨感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第六은 家庭生活의 不安定이다. 家庭에 問題가 있는 경우에는 精神的 不健康이 되어 問題가 發生한다. 父母의 不健全한 生活態度, 父母의 不和, 家族間의 葛藤, 經濟的 不安, 이웃으로부터의 疏外등의 좋지 못한 條件이 있으면 性格形成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問題發生의 原因이 될 수 있다.

第七은 交友關係에 問題가 되는 點이다. 極端的인 非社交性에 依해서 親舊가 거이 없거나 또는 非行集團에 所屬하여 社交性은 있으나 問題를 지닌 親舊에만 둘러쌓여 있으면 非社會的인 問題나 反社會的인 問題를 發生케 한다.

또한 鄭元植(1979)은 靑少年들의 問題를 學業, 交友, 心理的 適應, 價值觀, 將來問題로 區分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⁹⁾

① 學業問題

中等學校 學生들이 거이 共通的으로 苦悶하고 있는 問題는 學業上의 問題이다. 中等學校 學生을 對象으로 어느 問題調査에서도 學業上의 問題는 그 頻度로 보아 단연 首位를 차지한다. 學校工夫를 熱心히 하는데도 學業成績이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어떻게 工夫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등의 問題가 그 代表的인 例이다.

學業上의 問題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도 벌어진 個人差에서 야기되는 學業遲進의 現象이다. 여러 調査 結果가 共通的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全中等學生의 約 半이 正常的인 授業에 必要한 基礎能力의 不足으로 因하여 學業遲進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學校에 따라서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大部分의 學校에서 相當數의 遲進學生이 發見된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1968 年度에 施行한 中學校無試驗進學制의 採擇 以後 中學生集團의 個人差가 현저하게 벌어짐에 따라 나타나기 始作한 것이다. 現在 中學生集團의 IQ의 範圍는 60~145를 나타내고 있다. 知能이 낮은 學生이 相當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自然 能力別 班編成制의 問題가 發生하게 됨은 물론 學生의 處地에서도 正常的인 授業을 따라갈 수 없는 學業遲進의 現象을 일으키게 된다.

한편 學校에서는 이와 같은 學業上의 問題에 對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自然 學校授業에 對한 不信의 程度가 高潮되어 가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學校授業에의 不振은 結果的으로 課外工夫에 對한 依存度を 높여주고 있으며, 그 程度는 高等學校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現象이다. 이와 같은 課外工夫에 投入되는 學父母의 經濟的 부담은 고사하고라도 學校教育의 正常運營을 阻害하고 있다는 것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② 交友問題

學生들이 當面하는 交友問題로서 注目을 要하는 것은 두가지이다. 그 하나는 異性間의 交友關係問題이고, 다른 하나는 陰性 group 問題이다. 異性交際는 健全한 方向으로 指導되고 권장되면 問題視할 수 없으나, 올바른 性에 對한 理解 없이 陰性的으로 恣行되고 있다는 데에 問題가 있다. 여기에서 性的 非行의 問題는 일어나며, 이와 같은 性的 非行은 特히 高等學生의 生活指導에서 無視될 수 없는 問題로 登場하고 있다.

學生의 處地에서 보더라도 異性交際의 問題는 커다란 苦悶거리가 되고 있다. 어떤 調査報告에 依하면 高校 三學年 女學生의 경우, 약 81%의 學生이 異性交際를 願하고 있고, 男學生의 79%가 역시 異性交際를 願하고 있으나 健全한 異性交際의 機會가 주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9) 李星珍外, 前掲書, pp.139~145.

苦悶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部分의 學校에서 異性間의 交際는 禁止하고 있기 때문에. 自然히 陰性的 交際가 恣行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다. 더우기 그와 같은 陰性交際가 擴大一路에 있다는 것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學校에서 異性交際를 嚴格하게 規制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女高의 調查報告에 依하면 約 60%에 해당되는 學生이 異性交際의 經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傾向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高校生の 陰性 group은 밖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넓게 ครอบคลุ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學校에서 권장하고 있는 써클活動에 比하여 陰性써클은 不良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健全한 娛樂이나 活動을 하기보다는 패싸움이나 女學生 희롱과 같은 非行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陰性 group員間의 유대는 強하며 學校外의 靑少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特히 學校에서 除籍當한 靑少年들이 계속적으로 在學生과의 유대를 維持하고 있어서 不良行爲를 集團的으로 일으킬 可能性을 지니고 있다.

③ 個人的인 適應問題

中高生들은 그들의 發達上의 特徵으로 보아, 學校나 家庭에 對한 適應이 가장 어려운 時期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大部分의 靑少年들은 個人的으로 適應上의 고민거리를 가지게 마련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中央靑少年對策委員會의 廣範한 調查報告에 依하면 “요즈음 苦悶이나 걱정거리가 있느냐?”의 質問에 對해 「없다」고 應答한 比率은 8.7%뿐으로, 大部分의 靑少年들은 크든 작든 무엇인가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家庭問題로 苦悶하고 있느냐?”의 質問에 對해 75.2%에 해당되는 靑少年들이 苦悶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庭에 對한 苦悶의 內容을 알아 본 結果, 比較的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父母의 理解 不足」 「自身에 對한 過剩期待」 「生活이 어렵다」 등으로서 苦悶의 主된 內容은 父母에 對한 不滿에서 起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中高生의 精神健康狀態가 우려될만한 狀況에 處해 있다는 것을 示唆하는 여러가지 證據가 累積되어 가고 있다. 大部分의 資料는 斷片的인 것이기는 하나 中高生中에서 相當數의 精神患者가 發見된다는 것이 報告되었다. 精神科 의사들은 高校 2~3學年中에서 發見되는 特異한 精神疾患狀態를 「高三病」이라고 부르는 程度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病名이 있다는 것은 바로 學生의 精神健康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間接的인 證據가 되기도 한다.

中高生이 當面하는 여러가지 個人的인 問題中에서 比較的 精神健康과 關連성이 깊은 情緒的 不適應問題가 漸次的으로 增加하고 있다는 證據가 提示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精神健康問題를 間接的으로 示唆하는 資料가 된다. 어떤 調查報告에 依하면 中高生이 苦悶하고 있는 問題中에서 30~40%가 情緒的 不適應問題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比率은 學業과 進學의 問題 다음가는 比率로서 결코 無視할 수 없는 程度이며 中高生의 精神的 不健康狀態를 나타내는 間接的인 證

據로 볼 수 있다.

③ 價値觀의 問題

靑少年期는 價値觀의 再構成期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時期에는 價値觀의 混亂을 일으키게 된다. 더욱이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社會는 急激히 變遷하고 있으며, 이로 因하여 더욱 많은 價値觀의 混亂을 야기시켜 준다. 그러므로 그들의 處地에서는 이 時期에 彷徨하지 않고 正體意識(Identity)을 確立해야할 課題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 問題가 教育的으로 注目을 끌게 되는 것은 그들의 價値觀이 父母나 學校에서 바라 는 方向과 점차 유리되어 간다는 事實이다. 그 현저한 傾向으로서 다음 세가지 點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物質萬能의 價値觀이 팽배해 가고 있다는 點이다. 모든 價値觀的 判斷을 物的 準據에 依하는 傾向이 현저하게 增加하고 있으며, 同時에 享樂主義와 消費性向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는 安逸主義的 傾向이 높아져 간다는 點이다. 靑少年期는 가장 理想이 높고 꿈이 많은 時期임에도 불구하고 意欲이 없는 安逸한 生活觀이 相當한 程度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는 利己主義的 傾向이다. 健全한 意味의 個人主義와 利己主義가 混同되고 있으며, 利己的인 態度나 行動이 個人主義라는 名分으로 妥當化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이와 같은 價値觀의 變化는 既存 價値體制와의 葛藤을 낳게 하며, 既存世代에게 憂慮와 失望을 안겨주는 根據가 되고 있다. 기실 世代間의 격차는 다른 어떤 面보다도 價値觀의 差異때문에 起因되며, 이 때문에 父母世代와 子女世代間의 不調和가 나타난다.

⑤ 將來問題

中高生の 處地에서 볼 때, 大部分의 學生에게서 發見되는 共通的인 問題中에서 將來와 關連된 進學의 問題는 大端히 큰 比重을 차지한다.

그런데 進學의 問題와 關連해서 지적되어야할 것은 一般的으로 將來에 對한 設計가 未熟하고 計劃的인 이 되지 못하다는 點이다. 嚴格한 意味에서 進學問題는 個人的 將來와 直結해서 設計되어야 하는데 進學計劃이 將來의 設計와는 別로 關連性 없이 推進되고 있다는 데에 問題가 있다. 大學에 進學한 學生에 對한 調查結果에서 그들의 進學計劃이 무모하였다는 點이 여실히 밝혀지고 있다. 學科選擇 하나만 보더라도 相當히 많은 進學生이 將來에 對한 設計의 一環으로 學科를 選擇하였다기 보다는도 순전히 편의를 위하여 學科를 選擇했다는 證據는 거이 確實하다. 특히 將來의 職業計劃과는 無關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觀察은 充分하다고 보아진다.

中高生の 將來計劃과 關連해서 지적되어야할 또하나의 事實은 그들의 職業意識의 成熟과 發達이 未熟한 狀態에 있다는 事實이다. 高校生에 對한 職業意識의 調査와 一般的인 觀察에 依하면 現代社會의 分化된 職業에 對한 知識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職業的 展望을 갖고 있지 못하

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職業意識의 發達을 促進시키기 爲한 適切한 指導가 不足하다는 것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2) 靑少年問題의 原因

지금까지 여러 分野에서 靑少年問題가 提起되고 또 그와 같은 問題가 發生하는 原因이 分析되기도 하였으나 大部分의 경우, 問題의 原因을 直接的이고 表面的인 것에서 찾으려는 試圖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問題의 原因을 間接的인 것은 하지만 보다 內面的이고 底邊的인 原因을 家庭環境, 學校教育, 社會周邊의 側面에서 考察하기로 한다. (鄭元植, 1979)³⁰⁾

(1) 家庭問題

人間形成에 있어서 家庭環境이 차지하는 比重은 大端히 크다. 家庭環境中에서도 教育이란 觀點에서 보면 物理的 環境보다도 心理的 環境이 더욱 큰 意義를 지닌다. 그리고 心理的 環境은 親子關係에서 決定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點에서 家庭環境의 問題는 父母와의 關係에서 일어난다.

(1) 心理的 離乳의 遲延

人間發達過程에서 達成해야할 發達課業中에는 父母에 對한 依存을 벗어나서 心理的으로 離乳를 해야 할 課業이 있다. 心理的 離乳를 통해서 自立이 可能해지고 自發的이고 自律的인 思考와 行動이 發達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家庭에서 觀察되는 一般的인 傾向은 心理的 離乳期를 오랜 期間 延長되고 있는 現象이다. 그것은 幼兒期의 子女教育에서 있을 수 있는 保護狀態가 어떤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고 繼續的 持續되는 데에 原因이 있다. 이와 같은 過保護는 結果的으로 靑少年들에게서 發見되는 依存的 態도와 自律的 行動 결핍의 源泉的 要因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自律性과 自主的 能力의 不足은 靑少年들의 여러가지 問題를 發生시킬 可能性을 內包하게 된다. 靑少年들에게서 發見되는 諸般 問題中에는 基本的으로 自律의 缺乏에서 起因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否認하기는 어렵다.

(2) 父母-子女間의 새로운 葛藤

家庭에 葛藤狀態를 야기시키는 主된 두가지 要因이 있다. 그 하나는 父母와 權威主義的 態度이며, 다른 하나는 子女에 對한 지나친 一方的인 期待이다. 어느 父母世代도 子女世代를 거쳐서 父母世代가 되지만 우리의 文化的인 傳統은 父母世代의 權威主義的 教育을 要求하게 되며 그것을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傾向이 있다. 이것이 子女世代와의 葛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은 權威主義的 教育이 理解와 受容보다도 盲目的인 順從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子女에 對한 一方的 期待도 憂慮될 만한 葛藤의 原因이 되고 있다. 傳統的 家門主義의 價値

30) 上掲書, pp.146~151.

意識과 結付되어 男兒에 對한 期待는 相當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非現實的이며, 그것은 心理的 부담을 加重시켜 준다. 이와 같은 家庭에서의 心理的 葛藤이 家庭에 對한 否定的인 態度를 가지게 하고, 그것이 밖으로 表出될 때 諸般 問題行動을 수반하게 된다.

(2) 學校教育

① 認知的 經驗과 情意的 經驗의 不均衡

學校教育은 個人的 全人的 發達을 爲한 經驗의 組織化된 總體이다. 故로 學校教育의 正常的인 모습은 全人的 發達에 必要한 多樣한 經驗을 均衡있게 提供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學校教育에서는 認知的 經驗에 比하여 情緒的 經驗이 크게 缺乏되어 있는데 問題가 있다. 올바른 價値觀을 再構成하고 道義的 武裝을 할 수 있는 情意的 經驗이 認知的 經驗에 依하여 밀려나고 있어, 結果的으로 靑少年의 精神的 姿勢와 眞正한 人間形成을 弱化시키고 있다.

② 意志訓練의 機會不足

오늘날의 學校教育이 知育偏重의 傾向이 높아짐에 따라, 教育에서 다른 要素가 삼입될 可能性은 相對的으로 희박해져 가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런 狀況에서 特히 問題가 되는 것은 靑少年期에 育成되어야할 強忍한 意志를 訓練시킬 수 있는 機會가 不足하다는 點이다.

社會環境이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個人的 適應을 어렵게하고 있으며, 學校教育이 그와 같은 어려운 環境을 克服할 수 있는 精神的인 힘을 키우지 못하는 데서 靑少年들의 當面問題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③ 處罰爲主의 生活指導

中高에서의 生活指導는 指導의 內容보다도 指導方法이 더욱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生活指導에 依해 達成하려는 教育目標는 教師—學生間의 關係와 接觸을 通하여 보다 効率的으로 成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點에서 處罰爲主의 生活指導는 目前的 效果는 거둘 수 있지만 長期的인 眼目에서 보면 가장 疎略한 指導方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處罰爲主의 指導는 學校에 對한 否定的인 態度 뿐만 아니라 成人世代에 對한 否定的인 態度와 諸般 不適應行動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 社會에 對한 否定的인 態度는 上當한 程度로 處罰爲主의 指導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3) 社會周邊

① 人間疏外

靑少年期는 우리 社會에서 가장 疏外視 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傳統的으로 韓國의 文化가 成人志向의 文化라는 點과, 兒童도 成人도 아닌 境界人이란 點에서 그들을 爲한 社會的 配慮는 期待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靑少年은 成人들이 餘暇를 즐기는 場所와 施設로부터 疏外되어 있음은 勿論, 그렇다고 어린이 놀이터나 뒷골목에서도 놀 수 없는 형편이다.

② 挫折의 連續的인 經驗

挫折感은 반드시 力動的인 침체를 隨伴하는 것은 아니지만 挫折의 經驗이 連續的인 때에는 諸

般 不適應行動의 原因이 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現在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 再修生의 問題는 좋은 例라고 하겠다. 이런 再修의 經驗이 靑少年들에게 肯定的인 意味를 부여하기도 하지 만 大部分의 경우, 否定的인 問題를 隨伴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 成人文化의 無分別한 侵入

靑少年들에게 健全한 文化를 지니도록 育成해야할 責任이 社會에 있다. 特히 大衆媒體機關은 靑少年 文化形成을 爲한 先導의 役割을 지녀야 하는데, 그들에게 發展的이며 探索的인 文化가 形成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거이 無分別하게 成人文化를 模倣하고 있는 實情이라고 보아진다.

大衆媒體中 電波媒體는 靑少年들의 生活와 分離할 수 없을 程度로 密着되어 있으며, 靑少年들의 無分別한 模倣行動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價値觀形成에 나쁜 影響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鄭範謨(1979)는 靑年問題의 原因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³¹⁾

① 發達의 不連續線

不連續線地帶에는 氣候가 고르지 못하고 바람이 일기 쉽다. 靑年期는 따뜻한 兒童期의 氣流와 냉한 成人期의 氣流가 相衡되는 不連續線地帶라고 본다.

靑年期는 이러한 不連續線地帶가 길다고 하겠다. 卽, 中·高·大學이라는 試驗地獄에서 살아야 하는 學生들, 職業이 있다해도 低賃金의 下位職에 從事하는 靑年들, 學校도 職場도 없는 靑年들에게는 浪漫化의 時期에도 不拘하고 暴風雨의 心情에 어느 旣가는 사로잡힐 수 밖에 없다. 그래도 靑年들은 思考의 水準에서 象徵的 試行을 거쳐 解決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動作的 試行으로 나타난다. 이때 問題는 發生한다.

② 發展政策; 成人中心의

發展하는 社會는 그 主要한 關心이 成人에 있다. 例컨데 都市計劃, 文化施設, 遊興 및 娛樂施設 등은 대개 成人中心이다. 이런 狀況에서는 어린이, 靑年, 老人들은 갈 곳이 없게 마련이고, 그런 環境을 現實의 全部라고 誤認하는 데서 挫折과 反抗이 發生하기도 한다. 흔히 靑年文化가 論議되기도 하지만, 이는 같은 周邊人들이 서로 依存하기 爲한 現象으로 다분히 發展過程에서 成人들이 靑年들을 放棄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先進國들이 體驗하는 「豐饒속의 不幸」 卽, 犯罪, 自殺, 精神疾患, 離婚, 人間疏外 등 의 많은 原因이 자라나는 世代들을 等閑視하는데 起因하다고 보아진다.

③ 兒童期의 延長

靑年期에 나타나는 問題의 大部分의 原因은 실은 靑年期가 아니라, 그 以前의 幼兒 및 兒童

31) 上揭書, pp.18~26.

期에 숨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靑年期가 제아무리 疾風怒濤의 時代라 할지라도 이를 克服하느냐?의 興否는 그 以前의 生活史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거이 問題靑年의 生活史 分析에서 究明된 事實이다. 따라서 靑年에 對한 敎育과 指導對策이 靑少年만을 對象으로 한다면 이는 氷山의 一角에 不過한 셈이다. 다시말해서 靑少年이 될 幼兒 및 兒童들을 善導하는 對策이 絶실히 必要한 것이다. 卽 幼兒 및 兒童期 때의 諸般 文化失調 現象이 靑年들의 問題性과 密接하게 關係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現況의 難點

우리나라의 中高校에 해당되는 年齡의 靑少年中 約 60%가 中等學生이고 나머지 20%가 勤勞者, 20%가 遊休者로 보았을 적에 이들은 제각기 어려움속에 있다 하겠다.

中等學生들은 試驗地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實情이다. 試驗이라는 恐怖는 每週, 每月 不安을 몰고 온다. 工夫의 失敗는 그대로 人間失敗로 여겨버리기 일췌이다. 한편 物的環境은 貧寒하고 心理的 環境은 集團的이고 規律的이다. 아마도 이들에게 絶실히 必要한 것은 現實化와 人間化일 것이다.

勤勞靑少年의 大部分은 下位職일 것이 쉽게 짐작이 된다. 俸給 등 여러 勤勞條件이 改善되어 간다고 하지만, 결코 그들은 滿足한 狀況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環境, 人間關係, 成長의 機會如何에 關係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職場에서 靑少年들도 成長해야 하고, 職場은 그들의 成長을 도와줘야 할 것이며, 成長을 도와주는 條件이 勤勞靑少年들에겐 가장 큰 勤勞條件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또한 自己成長에 對한 助言, 相談者가 必要하다. 일에 沒頭하고 있다고 해서 苦悶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絶실히 必要한 것은 學習化와 人間化일 것이다.

遊休靑少年들이야 말로 가장 큰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큰 研究課題일 것이다. 이들 중에는 정말 遊休者, 離職者, 再修生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버려진 周邊人들이다. 이들에게는 一般的으로 依持할 곳이 없으며 方向感도 서있지 못하다. 이들에게 絶실히 必要한 것은 收容化와 方向化일 것이다.

⑤ 依持할 곳이 적다.

一般的으로 靑少年들에겐 依持할 곳이 적고 마땅치 않다. 獨立的이고, 反抗的이고, 어른들의 말에는 아랑곳 없는 듯 하면서도 기실은 어른들에게 기대고, 理解를 바라고, 꾸지람까지 바라는 心情이 있다. 혼자 解決하기가 어려울 때, 父母는 바쁘다 하고, 敎師는 만나기 힘들고, 職場主는 일만 안다. 그들은 얘기할 곳,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기대고, 傭한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問題를 解決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어른들의 知慧는 들어가지가 어렵다. 中高校의 Counselor 制는 이러한 狀況을 救濟하려는 데 目的이 있지만 바라는 成果에는 이르지 못하다 하겠다.

⑥ 지나친 理想化의 強調

우리들 周圍에서 「靑年들이여 大望을 품어라!」 「理想의 날개를 퍼라!」 「이 나라의 棟樑이 돼라!」 「이 나라의 指導者가 돼라!」고 靑少年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흔히 듣는다. 또한 이와 같은 理想化를 복돋는 것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當然한 忠告일까? 靑少年 모두가 이 나라의 棟樑이 돼 버린다면 棟樑에 언질 서리는 누가 맡으랴 말인까? 現實世界에선 指導者도 있어야 하지만 그들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卽 指導者의 經驗과 協從者의 經驗이 모두 必要하다. 어떤 경우는 指導者이지만, 다른 狀況에서는 中間者 및 協從者가 되는 處地가 보통이다. 指導者되기에만 執念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러다가 指導者가 못 되었다고 自認하는 경우, 失望과 失意에 빠져들게 됨은 當然하다. 大望을 품는다는 것은 좋지만, 大望과 現實사이를 모두 展望하며 處理할 수 있는 兩幅化를 길러주어야 한다.

靑年은 周圍人이기에 생각이 많고, 꿈이 많다. 그것은 보람있는 일이지만 꾸준한 現實檢證을 토대로 할 때 結實은 되는 것이다. 지나친 理想化는 科學的 思考보다 浪漫的 虛無에 빠지게 하여 失意, 幻滅속에서 現實反抗 또는 現實執着에 머물게 된다.

⑦ 家庭

우리 靑少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比較的 잘 자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흔히 問題視되는 靑少年犯罪率은 外國보다는 덜한 셈이다. 그 程度의 問題表出로 通過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多幸이라 할 수 있다. 그 理由는 그래도 家庭이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하겠다. 흔히 靑年을 둔 家庭에서 “말을 안듣는다, 말생만 부려서 父母를 괴롭힌다.” 등등의 말을 토로하지만 그들에게 必要한 것은 家庭이다. 혹 物質的으로 貧寒할지라도 心理的으로 같이 할 家庭이 그들에게 必要한 것이다. 家庭이 그들에게 開拓地의 Camp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韓國에서도 이제 그리 樂觀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小家族制로 移行하고 있으며, 父母도 바빠지기 始作하고, 離婚率도 每年 10%로 增加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樂觀만 할 수는 없는 實情이다.

이런 추세는 우리가 몇가지 問題點을 示唆해준다. 첫째는 靑少年保護의 一次的 責任은 家庭 父母에게 있으며, 父母는 靑少年을 다 자랐다고 放心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成長에 關心과 理解로 對해야 한다는 家庭教育的인 示唆이다. 둘째는 家族制度의 變遷의 추세에도 不拘하고 傳統的 家族制度和 家族關係에 어느程度까지 變質을 許容할 것이냐의 文化的 問題인 것이다. 靑少年들의 健全한 成長發達을爲한 家族關係에서 最少必須가 무엇인가를 究明해내어야 할 것이며, 家族制度도 어느 程度 意圖的으로 維持, 改善될 수 있을 것인가를 밝힐 必要가 있다. 세계로 이런 意圖에도 不拘하고 近代化의 물결이 어차피 家庭을 變質, 崩壞케 하는 傾向을 內包하고 있다면 健全한 靑少年의 成長發達을爲한 國家, 社會的 對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家庭的, 文化的, 政策的인 問題는 同時에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ole(1963)은 非行 發生에 作用하는 決定的인 要因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要約, 說明 하였다.³²⁾

(1) 遺傳的 側面

① 家系上的 血統이 不良하다. 精神薄弱, 精神疾患, 痼疾의 發生率이 非犯罪性 家庭보다 높다.

② 知的으로 低知能 해당자가 많다. (非行 靑少年의 平均 IQ는 85~90에 해당하다.)

③ 言語的, 推象的 事物의 理解가 困難하다. (結果的으로 學校에서 學業成績이 떨어진다.)

④ 普通을 넘는 活力(원기왕성), 衝動性, 情力왕성을 特徵으로 하는데, 그 結果, 침착하지 못하고, 行動過多, 攻擊性傾이 심하게 나타난다.

(2) 家庭的 側面

⑤ 貧困 및 密集家庭

⑥ 父母나 兄弟의 共嫁家族成員中, 非行者나 犯罪者가 있다.

⑦ 死亡, 別居, 離婚, 처자 불법유기, 受監狀態

⑧ 全般的으로 家族成員의 情緒的으로 安定性 缺乏, 家庭內에서 緊張感이 높다. 父母들의 情緒的 安定性이 不足하다.

⑨ 最適 또는 調和的인 訓育習慣의 缺如

⑩ 巨否的, 無關心 일변도로의 養育, 子女들의 日常生活, 動態등의 無關心

(3) 教育環境의 側面

⑪ 學業成績의 不振

⑫ 學校를 싫어한다.

⑬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無斷缺席이 잦다.

⑭ 教師들로 排斥을 받거나, 非好意的 取扱을 받는다.

家庭 및 인근의 環境的 側面

⑮ 이웃간에 많은 犯罪 Model이 存在한다.

⑯ 適當한 管理나 保護가 要請되나 實際로 不足하다.

⑰ 適當한 排出口가 不足하다.

⑱ 成人의 道義性이 희박하거나 葛藤이 노출된다.

個人的 特性

⑲ 劣等感, 不安感, 巨否性이 높다.

⑳ 痛切한 적개심이 發生하고, 계속적인 欲求不滿을 知覺한다.

32) 金正輝, 現代靑年心理學, 學文社, 1977. pp.160~161.

- ㉑ 情緒的으로 未熟하다.
- ㉒ 父母, 學校, 社會에 摘對的, 攻擊的이다.
- ㉓ 犯罪方法이나 Model 을 同一視한다.
- ㉔ 反社會的 集團에 所屬되므로서 情緒的 滿足을 追求한다.
- ㉕ 良心에 依하여 統制받지 못하며, 強한 衝動性에 依해 支配 當한다.

끝으로 鄭寅錫(1971)은 靑少年 非行의 一般的인 原因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³³⁾

(1) 家庭的 要因

- ① 親子, 夫婦, 家族間의 不和
- ② 父母의 教育的 缺如(缺損家庭, 放任, 嚴格, 酷使, 工夫에의 無關心, 學校와의 不一致 過剩期待)
- ③ 道德水準의 低劣, 不倫
- ④ 義父母對 子女關係에 依한 感情的 葛藤
- ⑤ 家族의 性格異常, 家庭의 冷酷한 雰圍氣
- ⑥ 家庭事情의 急變, 잦은 移徙

(2) 學校生活의 要因

- ① 學業不振, 教師의 壓力, 友人의 壓力
- ② 初期 非行에 對한 不親切한 措置
- ③ 級友의 誘惑
- ④ 校外指導의 不徹底, 指導의 不統一

社會的 要因

- ① 不良 靑少年의 脅迫, 誘惑, 선동
- ② 地域의 不良한 雰圍氣(道德的 雰圍氣, 地域慣習)
- ③ 健全한 娛樂施設의 缺如
- ④ 不健全한 文學과 映畫, 賭博
- ⑤ 迷信, 恐慌과 戰爭

(3) 個人的 要因

- ① 知的 能力의 缺如
- ② 性格異常(意志薄弱, 情緒不安定)
- ③ 精神病質, 精神病
- ④ 性的 早熟
- ⑤ 犯罪, 非行經驗

33) 鄭寅錫, 靑年心理學, 載東文化社, 1971. pp.226~227.

3) 靑少年 問題에 對한 對策

靑少年의 問題性에 關한 善導問題는 專門家, 學者, 社會輿論으로 恒常 제기되어 왔지만, 그 本質的인 解決이나, 對策은 아직 요원한채 宿題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大韓教育聯合會와 韓國 行動科學研究所가 共同으로 오늘과 來日의 靑少年問題 세미나를 開催했고, 朝鮮日報 역시 靑少年問題의 現況과 診斷, 對策에 關하여 學者들의 意見을 集大成했는데, 그 對策에 關하여 重要한 內容만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⁴⁾

(1) 靑少年問題 解決을 爲한 處方

① 國家發展과 靑少年 ;

成人爲主의 社會開發을 止揚하고 各 部門別 相談指導制의 擴充, 發展이 必要함을 強調한 鄭 範謨는 다음과 같이 具體的인 意見을 發表했다.

文明의 所産인 靑年期를 거처온 어른에게는 장미와 浪漫의 季節로 幻想될지 모르지만 兒童에 게도 成人에게도 끼이지 못하는 周邊人으로서 엄청난 自我發見이라는 發達課業을 지니고 있는 靑年, 그 自身에게는 오히려 「暴風雨」의 季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職業, 社會, 國家, 歷史에서의 自己位置와 役割을 發見하는 發達課業이 제대로 成就 되면 그것이 國家發展을 爲한 人間資源의인 原動力이 된다는 것은 거이 分명한 事實이다.

그러나 자라는 世代에 對한 教育, 訓練, 指導의 努力이 그 社會的 結實을 가져오기에는 언제 나 時差現象이 있다는 自明한 理治를 자주 잊어버리는 데서 問題가 發生하는 것이다. 이런 理治를 忘覺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世代의 問題를 등한시하고, 그 때문에 來日에 맞지 않는 教育 訓練을 하기가 일수이다.

이 時差現狀은 우리에게 發展을 爲한 靑年 뿐만 아니라, 發展을 다스리고 넘어서는 未來까지 전달하는 靑年教育 및 分명한 對策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靑年을 爲한 指導와 保護 및 對策은 그 問題性的인 根據를 分析하므로써 그의 原理는 分명한 진 다. 靑少年을 爲해 周邊性이 물고오는 發達의 不連續性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社會發展이 자칫 成人中心으로, 자라나는 世代를 잊어버리는 內容으로 推進되기 쉽 다는 點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靑年問題의 大部分이 幼兒 및 兒童期에 뿌리박고 있다는 事實에 비추어 靑少年對策에는 넓게 幼兒, 兒童을 爲한 對策도 包含되어야 한다.

靑少年層을 좀 더 分析해 볼 때, 中高生에게는 教育의 現實化와 人格化, 勤勞層 靑少年에게는 環境의 學習化와 人間化, 遊休靑少年에게는 기댈 곳을 주는 收容化와 方向化가 절실히 要請된다.

34) 金正輝, 前揭書, pp.472~478.

學校, 職場, 社會單位로 Counselor 制度를 擴充하고, 現實感覺 形成을 爲한 대대적인 靑少年 program도 創案해야 한다.

이런 觀點에서 靑少年問題 解決方案은 첫째, 靑少年 遊休人口를 줄여 學習人口나 勤勞人口로 전환시키는 努力, 둘째, 勤勞靑少年의 活動을 効率化하는 努力, 셋째, 各種 靑少年運動을 生産的으로 運營하는 努力등으로 集約할 수 있다.

② 靑少年을 爲해 무엇을 어떻게 ;

金在恩은 “靑少年들에게 한 市民의 矜持를 갖도록 引導하고, 納得해 가는 人生觀, 價値觀을 심도록 指導해야 함”을 強調하고 다음과 같이 具體的인 意見을 提示했다.

靑少年은 總人口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教育의 惠澤을 받고 있는 靑少年은 3백58만명으로, 教育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靑少年과의 比率은 10對1로써 後者의 數가 크게 웃돌고 있다.

靑少年期란 急激한 身體의 成長과 性的 成熟의 促進에 依해 自我意識이 뚜렷이 싹트는 時期이다. 卽 他律에서 自律로, 依存에서 獨立으로, 順從에서 反抗으로 變해간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나?」라는 質問을 던지며, 自己 正體에 적절한 解答이 없으므로 계속 彷徨하고 懷疑하고 否定하게 되는 것이다. 故로 社會와 學校는 그들의 不滿과 疏外感을 씻어주고, 한 人間으로서 한 市民으로서의 矜持를 가지고 健全하게 成長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으로의 理想과 情熱과 學究熱과 探究心を 實驗하고 發揮할 機會와 雰圍氣를 누릴 權利가 있다. 그러므로 그에 對한 적절한 統制와 自由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一貫性 있고 納得이 가는 人生觀, 價値觀을 익혀갈 必要가 있다. 價値의 傳倒니, 混亂이니, 瓦解니 하는 것은 靑少年들의 責任은 아니다. 既成世代는 僞善 대신 良質의 社會倫理를 學習하게 해 주어야 한다.

③ 靑少年問題의 對策 ;

李康燦은 오늘날의 狀況에서 靑少年對策은 國家發展이란 次元에서 檢討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提言하였다.

첫째, 靑少年을 諸般 計劃樹立에 있어서 靑少年이란 무엇인지?, 그들의 問題點, 行動, 趣味 등에 關한 깊은 認識이 必要하다.

둘째, 靑少年을 爲한 諸般活動을 制約하는 社會構造와 傳統意識의 改革이 必要하다.

셋째, 靑少年들이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獻身을 促求하고, 그들의 努力이 全體的인 國家發展計劃에 적절하고 價値있는 結果에 이루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넷째, 靑少年들로 하여금 自助, 協同, 團結하는 program에 參加토록 하는 刺戟을 한층 強化하여야 한다.

다섯째, 靑少年政策이나 問題解決을 爲한 諸般 計劃은 靑少年을 爲한, 靑少年에 依한, 靑少年

들의 參與下에 이루어져야 한다. 靑少年問題가 內包하고 있는 위기의 根源이 靑少年들 自身이라고 하기 보다는 靑少年들에 對한 社會의 態度에 있기 때문이다.

(2) 靑少年 非行對策

靑少年問題의 深刻性和 그 處方의 重要性에 關하여 美國의 著名한 靑少年問題 專門家인 Clueck 博士*는 時事週刊誌인 U.S. News and World Report(1977)誌와의 會見에서 그가 強調하고 있는 要旨는, 이른바 問題靑少年은 그 父母가 만들어 낸다고 主張했으며, 둘째로는 矯正은 豫防보다 어렵기 때문에, 靑少年 脫線의 豫防에 力點을 두어야 하고, 셋째로, 올바른 處罰은 非行을 抑止하는 作用을 하며, 넷째로, 우리의 子女에게 必要한 것은 拜金主義가 아니라 分別있는 愛情이며, 가장 缺乏된 것도 역시 愛情이라는 點을 強調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이 크리라고 보아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³⁵⁾

問; 貧困은 現代社會에서 靑少年犯罪의 根源인가?

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 그러나 貧困 그 自體가 犯罪靑少年을 만들지는 않는다. 살림을 꾸러가기 위한 맞벌이가정(共稼家庭)의 경우, 子女들이 非行을 저지를 可能性이 조금 크지만, 家庭의 雰圍氣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問; 富裕한 家庭出身의 非行靑少年이 늘어 가고 있는 理由가 무엇인가?

答; 父母가 子女를 기르는 데 가장 重要한 것은 돈이 아니라 愛情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愛情表現이 自然스럽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돈과 선물로 子女들의 歡心을 사는 것이 옳지 않다. 特히 現代家庭에서는 子女들에게 意味있고 最適한 役割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問題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靑少年들은 家庭에서 自身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 있다.

이런 問題點 때문에 그들에게는 人生의 倦怠가 發生하는데 그 背後에는 兩親의 子女教育, 養育態度가 問題로 갈려 있게 마련이다.

問; 非行傾向이 나타나는 것은 몇살 때부터인가?

答; 過去의 研究結果, 非行靑少年의 50%는 8歲를 前後하여 不適應行動의 徵候를 나타낸다. 그러나 非行傾向은 事實上 90%가 10歲를 前後해서 나타나고 있다.

問; 非行化로 向하는 性格이란 어떤 것인가?

答; 頑強한 固執, 情緒的 不安, 反抗性, 破壞性등이다.

問; 그러한 性格의 特性이 있는 靑少年은 健全한 靑少年으로 볼 수 없는가?

* Glueck 博士는 靑少年非行의 問題點, 家庭環境과 非行, 精神疾患과 犯罪, 犯罪과 矯正 등을 著述한 靑少年問題, 特히 非行問題를 깊이 있게 研究 發表한 世界的인 권위자이다.

35) 上掲書, pp.485 ~ 487.

答; 勿論이다. 그러나 問題는 이와 같은 性格의 特性을 가지고 있더라도 兩親의 理解와 愛情이 있으면 걱정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無關心하고 冷淡한 兩親 밑에서는 攻擊的 行動을 낳을 可能性이 크다.

問; 오늘날 非行靑少年이 激增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인가?

答; 한마디로 家庭의 放任主義와 子女의 教育態度의 變化를 꼽을 수 있다. 核家族化와 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傾向이 커져서, 子女들이 幼兒 때 必要한 指導나 安定感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問; 道德的 價値觀이 崩壞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가?

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大部分의 사람들이 道德的으로 옳다. 그러다에 對한 確信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 事實이 子女들에게 規律을 지키는 것을 困難하게 하고 있다.

問; 나쁜 子女를 만드는 것은 나쁜 父母 때문인가?

答; 大體로 그렇다. 子女로서 또는 어른으로서의 態度和 思想을 形成해 주는 家庭에서 子女들이 받는 愛情과 訓育이기 때문이다. 子女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父母의 希望을 無視하는 것이 自己들의 權利라고 생각해 된다.

問; 非行靑少年에 對한 體罰은 效果的인 解決策인가?

答; 나쁜 行動과 適正한 體罰이 明確하게 相互·關聯지어질 때에는 效果가 있다. 그러나 참으로 必要한 것은 愛情에 對한 確固不動하고 一貫性있는 態度이다.

問; 警察이나 裁判所는 靑少年犯罪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가?

答; 裁判所의 新세를 지게 되면 靑少年의 性格形成에 큰 상처를 준다. 矯正은 豫防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豫防이 더 重要하다.

問; 問題性있는 靑少年들에 對하여 家庭에서 嚴한 處罰은 必要한가?

答; 올바른 處罰은 犯罪를 막는데 큰 힘이 된다. 勿論 子女教育에서 處罰은 恐怖를 利用한다는 것도 틀린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處罰이 갖는 阻止力을 없애는 것도 옳지 않는 것이다.

Ⅲ. 研究 方 法

(一) 對 象

1983學年度 本大學 在學生 1,300 名을 對象으로 資料를 配布 蒐集했으나, 設問에 應答한 學生은 男 779 名, 女 444 名, 計 1,223 名으로 그 具體的인 研究對象은 다음의 <表 1, 2> 와 같다.

<表 1> 性別 研究對象

단대별	성 별	男 子	女 子	合 計
師 範 大 學		132	160	292
人 文 大 學		64	105	169
農 科 大 學		121	38	159
社 會 科 學 大 學		249	96	345
海 洋 科 學 大 學		213	45	258
合 計		779	444	1,223

<表 2> 學年別 研究對象

단대별	학년별	1	2	3	4	T
師 範 大 學		93	99	66	34	292
人 文 大 學		56	59	33	21	169
農 科 大 學		41	50	48	20	159
社 會 科 學 大 學		120	113	71	41	345
海 洋 科 學 大 學		96	63	51	48	258
合 計		406	384	269	164	1,223

(二) 道 具

特殊하게 地域과 環境을 달리하는 濟大生들의 諸般 當面問題가 무엇인가를 보다 科學的으로

밝히기 爲하여 本大學의 實情에 맞도록 設問紙를 作成, 使用하였다.

① 個人的 適應問題	2 問 項
② 身體的 健康問題	2 "
③ 餘暇善用 問題	1 "
④ 交友問題	6 "
⑤ 經濟問題	4 "
⑥ 學生—教授와의 人間關係	7 "
⑦ 性格問題	1 "
⑧ 異性問題	5 "
⑨ 家庭問題	4 "
⑩ 價値觀 問題	6 "
⑪ 將來問題	2 "
⑫ 專攻科學 問題	5 "
⑬ 學內生活 問題	7 "
⑭ 卍클活動 問題	7 "
⑮ 情緒的 問題	9 "

(三) 節 次

- ① 設問紙 調査는 1983 年 7 月 中에 實施했으며,
- ② 蒐集된 資料는 大學別, 性別 및 學年別로 區分하여 百分率로 換算 處理하였다.

IV. 結 果 分 析

(一) 個人的인 適應問題

在學生들의 現實的인 當面問題가 무엇이며, 當面問題가 發生했을 경우, 누구하고 相談하고 있는가에 關하여 알아 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現實的인 當面問題

現在 當面問題中 가장 질실하게 느끼는 個人問題가 무엇이나?의 設問에 對한 反應은 <表 3

가, 나)와 같다.

〈表 3-가〉 現在の 當面問題

항 목	대 학 별								
	인 대	사 회	사 범	농 대	해 양	남	여	전 체	
신체적 건강	4.73	9.57	5.48	10.06	6.98	9.24	4.28	7.44	
사고 및 오락	10.65	4.64	7.53	6.29	6.59	4.49	10.81	6.79	
경제적인 문제	11.24	10.43	16.78	8.81	12.79	13.22	10.81	12.35	
사회관계 및 적응	6.51	4.06	4.79	5.66	4.26	4.11	6.08	4.82	
심리적 적응	5.33	4.06	6.51	6.29	8.14	5.91	6.08	5.97	
연애·결혼·이성 문제	6.51	10.43	8.22	4.40	6.98	8.86	6.08	7.85	
가정 및 가족관계	1.18	2.90	4.79	1.26	1.55	2.05	3.60	2.62	
도덕가치관	2.96	4.35	3.77	0.63	3.49	3.21	3.60	3.35	
대학생활	9.47	9.86	9.25	6.29	7.36	8.09	9.68	8.67	
장래진로	31.95	33.62	16.78	37.73	32.17	30.68	27.70	29.60	
교육과정 및 강의	4.14	2.90	4.79	5.03	5.04	4.24	4.28	4.25	
전공문제	1.75	0.58	6.16	5.03	3.10	2.70	4.05	3.19	
기 타	3.55	0.87	4.11	2.52	1.55	2.44	2.25	2.37	
무응답	-	1.74	1.02	-	-	0.77	0.68	0.74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3-나〉 現在の 當面問題

항 목	학 년					전 체
	1	2	3	4		
신체적 건강	8.62	6.25	8.55	5.49	7.44	
사고 및 오락	10.59	6.51	2.97	4.14	6.79	
경제적인 문제	14.04	11.46	11.52	11.59	12.35	
사회관계 및 적응	7.14	4.95	1.49	2.44	4.58	
심리적 적응	6.90	7.55	5.58	2.44	6.21	
연애·결혼·이성 문제	4.93	8.33	10.41	9.15	7.77	
가정 및 가족관계	1.97	3.91	2.60	1.22	2.62	
도덕가치관	2.71	2.60	4.09	5.49	3.35	
대학생활	14.04	9.90	3.35	1.22	8.67	
장래진로	13.05	27.08	40.89	51.22	28.70	
교육과정 및 강의	6.90	3.39	3.35	2.44	4.42	
전공문제	2.71	4.95	2.23	1.83	3.19	
기 타	2.46	2.08	2.97	1.22	2.29	
무응답	3.94	1.04	-	-	1.64	
N	406	384	269	164	1223	

〈表 4-나〉 當面問題에 對한 相談者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가 족	19.21	14.06	11.15	14.02	15.13	
친한 친구나 선배	68.47	64.49	73.23	70.73	69.83	
지도교수	1.72	1.56	4.09	4.27	2.53	
과목담당교수	0.74	1.30	1.49	2.44	1.31	
기 타	9.36	13.54	9.29	7.32	10.38	
무응답	0.49	1.04	0.74	1.22	0.82	
N	406	384	269	164	1223	

(二) 身體的인 問題

身體的인 健康 및 外貌上의 苦悶 與否를 考察해 본 結果는 〈表 5-가,나〉와 〈表 6-가,나〉와 같다.

1) 健康問題

自身の 身體的인 問題로 切實히 苦悶하고 있는 問題에 對한 反應은 〈表 5-가,나〉와 같다.

〈表 5-가〉 健 康 問 題

선택지	구 분								전체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18.93	20.58	22.26	17.61	19.77	17.59	24.77	20.20	
몸이 늘 피곤하다	26.63	21.74	21.23	30.19	24.42	23.36	24.77	23.96	
시력이 약하다	14.20	11.59	9.93	11.32	10.08	11.55	9.52	11.20	
운동이 부족하다	9.48	12.17	8.56	11.32	15.12	14.38	10.59	11.45	
감기에 잘 걸린다	5.33	2.90	3.77	0.63	2.71	2.58	4.05	3.11	
신선한 공기가 일광	0.59	0.58	1.37	2.52	0.76	1.16	0.90	1.06	
소화불량 혹은 변비증	5.92	5.80	7.88	3.77	2.71	3.21	9.23	5.40	
현기증	8.28	4.06	7.53	3.14	8.39	3.08	9.23	5.31	
몸이 너무 말랐다	3.55	8.12	6.51	6.92	9.30	9.88	2.48	7.20	
건강하지 못하다	5.92	6.96	6.85	7.55	6.20	7.96	4.50	6.70	
무응답	1.18	5.51	4.11	5.03	5.04	5.26	3.15	4.42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나〉 健 康 問 題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17.98	20.83	16.36	26.83	19.71
몸이 늘 피곤하다		22.66	25.0	24.16	24.39	23.96
시력이 약하다		13.30	8.59	14.13	10.37	11.61
운동이 부족하다		10.84	11.98	13.38	8.54	11.45
감기에 잘 걸린다		2.96	3.91	2.60	2.44	3.12
신선한 공기와 일광		0.99	1.56	0.37	1.22	1.06
소화불량 혹은 변비증		5.42	4.43	7.43	4.27	5.40
현기증		7.64	5.99	2.97	0.61	5.15
몸이 너무 말랐다		5.91	7.81	5.95	11.58	7.28
건강하지 못하다		8.37	6.51	6.69	2.44	6.62
무응답		3.94	3.39	5.95	7.32	4.66
N		406	384	269	164	1223

全般的인 傾向은, 몸이 늘 피곤하다(23.96%),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 때가 많다(20.2%)의 順으로 苦悶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게 많은 比率은 아니어서 自身の 健康에 關하여 크게 苦悶하고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性別로 보면 男學生은 몸이 늘 피곤하다(23.36%),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 때가 많다(17.59%)의 順으로, 女學生들도 비슷한 傾向으로 苦悶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大學別 및 學年別로도 거이 비슷하게 2번 및 1번 選擇에 反應率이 높은 傾向임을 알 수 있다.

2) 身體的 外貌

身體的 外貌上의 어떤 問題로 苦悶하고 있는지를 알아 본 結果는 〈表 6-가,나〉와 같다.

全般的인 傾向을 살펴 보면 근심, 걱정이 없다(31.32%), 키가 너무 작아서(17.17%), 몸이 너무 말라서(14.96%)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約 3분의 1의 學生들은 身體的인 外貌上의 苦悶이 없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苦悶이 있다면 短身 및 細身으로 因한 것인데 그 比重은 그렇게 높지 않다.

性別로 考察해 보면, 女學生들은 키가 너무 작거나, 얼굴이 잘못 생겨서, 男學生들은 細身型이나 短身으로 약간의 苦悶을 나타내고 있다.

大學別로 보면 社會大, 師大 農大 및 海大는 共히 短身 및 細身으로 苦悶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人文大는 短身 및 其他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도 全般的 傾向과 비슷한 反應임을 알 수 있다.

〈表 6-가〉 自身の 外貌問題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키가 너무 작아서		24.26	13.91	15.41	20.13	17.05	14.63	21.62	17.17
얼굴처 잘 못 생겨서		5.33	9.57	10.96	2.52	4.26	5.65	10.14	7.28
키가 너무 커서		1.18	2.90	3.08	0.63	3.10	2.31	2.70	2.45
너무 뚱뚱하다		8.88	6.09	7.88	5.66	4.26	2.57	13.29	6.46
척신형; 갈비시		10.65	14.20	13.36	15.09	20.54	20.67	4.73	14.96
피부색이 곱지 않다		11.24	4.93	9.59	9.43	5.04	5.26	11.49	7.52
근심 걱정이 없다		20.12	35.36	28.08	32.70	36.05	36.33	23.87	31.81
기 타		14.79	5.51	11.64	10.06	6.59	9.24	8.78	9.08
무응답		3.55	7.54	-	3.77	3.10	3.34	3.38	3.76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나〉 自身の 外貌問題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키가 너무 작아서		21.92	8.23	11.52	12.20	17.17
얼굴이 잘 못 생겨서		7.64	5.99	7.81	8.54	7.28
키가 너무 커서		1.97	2.34	2.60	3.05	2.37
너무 뚱뚱하다		6.40	7.81	5.58	4.88	6.46
척신형; 갈비시		13.79	15.89	14.87	18.29	15.29
피부색이 곱지 않다		7.14	7.55	7.81	7.93	7.52
근심 걱정이 없다		29.56	28.65	35.32	37.80	31.64
기 타		6.90	11.20	11.52	4.27	8.91
무응답		4.68	2.34	2.97	3.05	3.35
N		406	384	269	164	1223

(三) 餘暇善用

濟大生들이 餘暇時間을 어떻게 活用하고 있는지를 考察해 본 結果는 〈表 7-가, 나〉와 같다. 全體的인 傾向을 살펴보면 教養讀書(18.07%), 對人交際(17.17%), 趣味生活(16.35%) 등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大部分의 學生들이 餘暇時間을 有效하게 지내고 있으며, 極小數(12.9%)의 學生이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男學生들은 趣味生活(18.23), 對人交際(17.07)에, 女學生들은 對人交際(17.34), 家事助力(13.74)에 餘暇를 善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7-가〉 餘 暇 善 用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전공과목 공부	11.24	9.28	7.53	8.18	6.20	9.50	6.31	8.34	
교양서적 독서	21.89	17.39	19.18	19.50	14.34	14.12	25.0	18.07	
가사조력	5.33	6.96	10.62	10.69	8.53	5.39	13.74	8.42	
대인교제	11.83	19.42	19.18	13.21	17.83	17.07	17.34	17.17	
취미생활	13.02	15.36	13.70	20.13	20.54	18.23	10.81	16.35	
씨클활동	15.98	8.41	13.01	6.29	10.85	9.88	12.39	10.79	
부직활동	3.55	0.58	2.40	2.52	0.39	1.93	1.13	1.64	
하는 일 없다	13.02	16.23	9.59	9.43	14.34	14.76	9.68	12.92	
기 타	4.14	3.77	4.11	8.81	5.43	5.78	3.38	4.91	
무반응	-	2.61	0.68	1.26	1.55	3.34	0.23	1.39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7-나〉 餘 暇 善 用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전공과목 공부	3.69	7.29	12.27	15.85	8.34
교양서적 독서	18.72	17.71	14.87	25.0	18.40
가사조력	7.14	8.85	10.78	6.71	8.42
대인교제	18.97	14.58	17.1	18.90	17.17
취미생활	17.98	15.89	13.38	17.07	16.19
씨클활동	10.84	14.06	9.67	4.88	10.79
부직활동	0.99	2.60	1.86	0.61	1.64
하는 일 없다	12.32	15.89	9.76	7.32	12.18
기 타	7.14	3.13	8.92	3.66	5.81
무반응	2.22	-	1.49	-	1.06
N	406	384	269	164	1223

單大別로 보면, 人文大는 教養讀書, 씨클活動, 社會大는 對人交際, 教養讀書, 趣味生活. 師大는 教養讀書, 對人交際, 趣味生活, 農大는 趣味生活, 教養讀書, 海洋大는 趣味生活, 對人交際, 教養讀書등으로 餘暇를 善用하고 있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學年別로도 上記와 비슷한 傾向임을 엿볼 수가 있다.

(四) 交友問題

濟大生들이 느끼는 交友觀, 眞實한 交友關係의 形成 維持, 理想的인 交友型, 現實的인 交友關係觀, 交友關係의 問題點 등에 關하여 調査해 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現實的인 交友觀

오늘날 大學에서의 交友關係를 어떻게 보며,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 본 結果 <表 8-가, 나> 와 같다.

<表 8-가> 現實的인 交友觀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타산적이고 이기적	26.04	22.90	33.90	26.42	30.23	26.83	29.95	27.96	
배타적이고 폐쇄적	12.43	7.25	9.93	6.29	9.30	7.70	11.04	8.91	
개방적이고 활발함	26.04	26.96	21.58	35.85	31.78	27.47	28.15	27.72	
특징이 없다	35.50	40.29	33.90	31.45	27.91	36.46	30.63	34.34	
무응답	-	2.61	0.68	-	0.76	1.54	0.23	1.06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8-나> 現實的인 交友觀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타산적이고 이기적	23.15	30.47	33.09	25.61	27.96	
배타적이고 폐쇄적	8.87	11.20	5.20	9.76	8.91	
개방적이고 활발함	30.05	22.92	26.77	34.76	27.72	
특징이 없다	36.95	33.85	33.83	29.88	34.34	
무응답	0.99	1.56	1.12	-	1.06	
N	406	384	269	164	1223	

윗 <表 8-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般的인 傾向을 살펴 보면, 뚜렷한 特徵이 없다(34.34%) 他算的 利己의이다(27.96%), 開放的이고 活潑하다(27.72%)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그들의 交友觀은 否定的으로 보는 傾向임을 알 수 있다.

性別로도 男女 共히 特徵없이 利己的인 交友觀임을 알 수 있다.

單大別로는 人文大와 師大는 無特徵, 利己的의 順으로, 社會大는 無特徵, 開放的의 順, 農大는 開放的, 無特徵의 順, 海洋大는 開放的, 利己的 등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1~3 學年은 共히 無特徵, 利己的의 順으로 나타났으나, 4 學年에서는 開放的, 無特徵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 주고 있다.

2) 理想的인 親友像

自身이 바라는 理想的인 親友像에 對하여 調査해 본 結果 <表 9-가,나>와 같다.

<表 9-가> 理想的인 交友型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학문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	7.69	6.96	7.53	5.03	5.81	6.55	7.43	6.70
전공분야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1.78	3.77	4.79	3.14	7.36	4.88	3.60	4.42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56.80	58.84	61.64	64.15	63.95	61.87	59.46	61.0
인생관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33.14	28.70	25.68	27.67	22.48	25.67	29.28	27.15
무응답	0.59	1.74	0.34	-	0.39	1.03	0.23	0.74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9-나> 理想的인 交友型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체
학문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	7.14	7.55	6.69	4.88	6.87
전공분야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8.87	5.21	3.35	5.49	6.05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58.37	61.46	63.20	57.93	60.34
인생관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25.62	24.48	26.02	31.71	26.17
무응답	-	1.30	0.74	-	0.57
N	406	384	269	164	1223

理想的인 交友型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을 살펴 보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親衛 (61%), 人生觀 및 價値觀을 같이할 수 있는 親衛 (27.15%)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그들이 願하는 理想的인 交友像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親衛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男女別, 單大別 및 學年別로도 上記와 비슷한 傾向임을 알 수 있다.

3) 現實的인 交友關係

우리 大學에서 그들의 交友關係를 어떻게 形成 維持하고 있다고 보느냐?의 設問에 對한 應答은 다음의 <表 10-가,나>와 같다.

全般的인 傾向을 보면 比較的 원만한 편 (59.69%), 比較的 좋지 않은 편 (30.25%)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約 2/3에 가까운 學生이, 우리 大學의 學生들의 交友關係를 大體的으로 妥善하게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꽤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男女別, 單大別 및 學年別로도 上記와 비슷한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表 10-가> 現實的인 交友關係觀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아주 원만한 편이다	-	2.90	3.77	3.14	4.65	2.70	3.83	3.11	
비교적 원만한 편이다	55.62	60.58	61.99	62.26	56.98	61.49	57.43	59.69	
비교적 좋지 않은 편이다	38.46	27.25	29.11	31.45	31.01	27.47	35.14	30.58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5.33	6.38	3.42	2.52	6.20	6.03	3.15	4.99	
무응답	0.59	2.90	1.71	0.63	1.16	2.31	0.45	1.64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10-나> 現實的인 交友關係觀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아주 원만한 편이다	2.71	2.60	2.97	5.49	3.11	
비교적 원만한 편이다	57.88	58.59	61.71	62.80	59.61	
비교적 좋지 않은 편이다	36.21	2.86	26.77	24.39	30.25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1.72	7.81	5.20	5.49	4.91	
무응답	1.48	2.08	3.35	1.83	2.13	
N	406	384	269	164	1223	

4) 交友關係上的 問題點

交友關係의 形成 및 維持上的 障礙點에 對한 反應을 보면 <表 11-가,나>와 같다.

<表 11-가> 交友關係上的 問題點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소극적 성격	31.36	33.30	31.16	34.59	30.23	31.32	33.33	32.05	
사교성 부족	20.71	21.74	20.21	18.24	30.23	24.13	19.82	22.57	
열등감	9.47	6.67	5.14	11.32	6.59	6.68	8.33	7.28	
우울감	6.51	8.12	12.33	9.18	5.81	6.93	10.59	8.26	
사귀만한 상대가 없음	20.12	17.39	16.44	11.47	14.34	15.66	18.02	16.52	
기 타	10.06	6.38	10.27	11.32	9.69	9.76	8.12	9.16	
무응답	1.78	6.38	4.45	3.14	3.10	5.52	1.82	4.17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11 -나〉 交友關係上的 問題點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소극적 성격		32.76	32.81	29.0	33.54	32.05
사교성 부족		24.38	21.35	17.84	28.66	22.57
열등감		9.11	7.03	7.43	4.88	7.52
우울감		8.62	8.85	7.43	7.32	8.26
사귄만한 상대가 없음		15.76	16.15	20.07	13.41	16.52
기 타		6.65	10.94	11.52	7.32	9.16
무응답		2.71	2.86	6.69	4.88	3.92
N		406	384	269	164	1223

윗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般的인 傾向은 消極的인 性格(32.02%), 社交性的 不足(22.57%), 사귄만한 相對가 없다(16.52%)의 順位로 나타나고 있어 交友關係의 形成 및 維持에 消極的 性格이 問題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男女別, 單大別 및 學年別로도 비슷한 傾向임을 알 수 있다.

5) 交友關係에서 重要視 해야 할 點

交友關係에서 매우 重要視 해야 할 것이 무엇이나?의 設問에 對한 反應은 〈表 12-가,나〉와 같다.

全體的으로 考察해 보면, 相對方을 信賴하는 일(44.4%), 相對方을 理解하는 일(43.91%)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交友關係의 形成 및 維持에 相對方을 相互 信賴하고 理解하는 일이 重要視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性別, 單大別 및 學年別로도 비슷한 傾向임을 알 수 있다.

〈表 12 -가〉 交友關係에서 重要視 해야 할 點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상대방의 이해		48.52	40.87	48.63	45.28	41.09	41.34	49.77	44.40
상대방의 설득		1.18	2.90	1.37	0.63	2.33	2.70	0.45	1.88
남의 말을 경청하는 일		7.69	6.96	7.53	5.03	8.91	8.47	6.53	7.36
상대방의 신뢰		40.83	44.35	41.44	47.80	45.74	44.80	42.34	43.91
동정하는 일		0.59	2.32	-	0.63	1.16	1.54	0.23	1.06
기 타		1.18	0.58	0.34	0.63	-	0.51	0.45	0.49
무응답		-	2.03	0.68	-	0.76	0.64	0.23	0.90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12-나〉 交友關係에서 重要視 해야 할 點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상대방의 이해	42.12	44.79	40.15	50.0	43.58
상대방의 설득	1.72	2.08	2.23	1.22	1.88
남의 말을 경청 하는 일	8.13	7.29	7.43	5.49	7.36
상대방의 신뢰	44.58	40.63	49.07	40.85	43.83
동정하는 일	0.25	1.82	0.74	1.83	1.06
기 타	-	1.56	-	0.61	0.57
무응답	3.20	1.82	0.37	-	1.72
N	406	384	269	164	1223

6) 眞正한 親舊의 有無

大學에 와서 眞正한 親舊를 사귀고 있는나?의 設問에 對한 反應은 〈表 13-가,나〉와 같다.

〈表 13-가〉 眞實한 親舊

선택지	구 분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진실한 친구를 사귀고 있다		37.87	27.54	39.04	38.99	33.33	32.99	36.71	34.42
가벼운 친구로 사귀고 있다		20.12	22.61	14.73	22.64	24.81	23.49	16.22	20.85
사귀고 싶으나 진실한 친구가 없음		35.50	38.26	41.44	33.33	36.05	35.82	40.54	37.53
진실한 친구를 사귄수가 없음		3.55	6.38	2.74	3.77	5.04	4.75	4.05	4.50
무응답		2.96	4.64	2.05	1.26	0.76	2.95	2.48	2.70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13-나〉 眞實한 親舊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진실한 친구를 사귀고 있다	22.27	31.51	36.43	43.29	34.42
가벼운 친구로 사귀고 있다	20.44	20.31	21.56	21.95	20.85
사귀고 싶으나 진실한 친구가 없음	41.87	39.84	32.71	29.27	37.53
진실한 친구를 사귄수가 없음	2.46	4.95	6.32	5.49	4.50
무응답	2.96	3.39	2.97	-	2.70
N	406	384	269	164	1223

全體的으로 보면, 眞實한 親舊를 願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37.5%), 眞實한 親舊를 사귀고 있다(34.42%)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約 半의 學生이 眞實한 親舊를 사귀고 싶지만 아직 大學에 와서 求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性別로도 上記와 비슷한 傾向이며, 大學別로 보면 農大를 除外한 他大學은 上記와 비슷한 傾向을 보여주고 있지만, 農大는 眞實한 親舊를 사귀고 있다가 우선 順位로 나타났다. 그리고 學年別로 考察해 보면 1~2學年은 사귀고 싶지만 眞實한 親舊를 求할 수 없다가 우선 順位로, 3~4學年은 現在 眞實한 親舊를 사귀고 있다가 우선 順位를 보여주고 있어 低學年이기 때문에 아직 眞正한 親舊를 求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五)經濟問題

濟大學生들의 經濟問題를 알아보기 爲하여 學費調達, 學費調達의 方法, 副職希望, 副職希望의 理由 등에 關하여 알아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學費調達의 程度

家庭에서 學費調達의 程度에 關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나?의 設問에 對한 反應은 <表 14-가,나>와 같다.

<表 14-가> 學費調達의 程度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 체	
여유가 있다	12.43	11.01	9.25	8.18	11.24	10.40	10.59	10.47	
충분한 편	17.75	20.87	21.92	18.24	20.93	19.26	22.52	20.36	
약간 부족한 편	38.46	35.07	24.59	48.43	36.43	36.07	39.86	37.45	
부족하다	30.18	31.01	32.88	25.16	30.62	32.86	26.35	30.50	
무응답	1.18	2.03	1.37	-	0.76	1.41	0.68	1.2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14-나> 學費調達의 親舊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여유가 있다	10.10	9.64	11.52	11.59	10.47	
충분한 편	16.0	22.66	20.45	26.22	20.44	
약간 부족한 편	41.34	34.90	37.55	33.54	37.45	
부족하다	31.53	30.73	30.48	28.66	30.66	
무응답	0.99	2.08	-	-	0.98	
N	406	384	269	164	1223	

學費調達の 程度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不滿(67.95%), 滿足(30.83%)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大部分의 學生들이 調達되는 學費가 不足한 傾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男學生은 68.96%, 女學生들은 66.21%의 不滿을 表示하고 있고, 單大別로는 農大, 人文大, 師大, 海洋大, 社科大의 順位로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 살펴보면 1學年, 3學年, 2學年, 4學年の 順으로 1學年生들이 많은 不滿을 나타내고 있다.

2) 學費調達の 方法

누가 學費를 調達하고 있는지를 調査해 본 結果는 <表 15-가, 나>와 같다.

<表 15-가> 學費調達の 方法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부모·형제		83.43	82.03	77.74	81.76	82.56	80.74	81.08	81.28
친척이나 친지		2.96	2.32	1.71	1.89	1.16	2.18	1.58	1.96
자기(부직)		1.78	3.48	4.11	6.29	3.88	3.85	3.83	3.84
장학금		10.06	9.86	12.67	8.18	8.91	9.63	11.04	10.14
기타		1.78	0.58	2.40	1.89	1.55	1.67	2.25	1.55
무응답		-	1.74	1.37	-	1.94	1.93	0.23	1.2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15-나> 學費調達の 方法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부모·형제		83.0	79.43	79.55	83.54	81.19
친척이나 친지		0.99	1.82	2.97	3.05	1.96
자기(부직)		3.69	3.13	5.58	3.05	3.84
장학금		8.37	11.20	10.41	10.37	9.98
기타		1.48	2.60	1.12	-	1.55
무응답		2.46	1.82	0.37	-	1.47
N		406	384	289	164	1223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父母, 兄弟(81.28%), 獎學金(10.14%), 副職(苦學)의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大部分의 學生들이 父母로부터 學費를 調達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記 할만한 것은 苦學(副職)으로 學費를 充當하고 있는 學生이 3.84%를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고 보아진다.

苦學生의 實態를 考察해 보면 男女別로는 비슷한 傾向이지만, 單大別로는 海洋大, 農大, 師大 社科大, 人文大의 順位로 나타나고 있어 海大가 首位를 보여주고 있으며, 學年別로는 3學年, 1學年, 2學年, 4學年の 順으로 3學年이 首位를 보여주고 있다.

3) 副職 希望與否

만약 副職의 機會가 있으면 志望하겠는가?의 設問에 對한 反應을 보면 <表 16-가,나>와 같다.

<表 16-가> 副職希望 與否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희망한다	80.47	75.94	82.88	73.58	79.84	74.84	85.59	78.74	
모르겠다	8.28	6.96	9.25	11.32	10.47	9.76	7.88	9.0	
희망치 않는다	11.24	15.36	7.19	15.09	9.30	25.34	6.31	11.53	
무응답	-	1.74	0.68	-	0.39	0.89	0.23	0.74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16-나> 副職希望 與否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희망한다	83.0	77.60	76.58	74.39	78.74	
모르겠다	8.37	9.38	9.67	8.54	8.99	
희망치 않는다	8.13	11.72	13.01	17.07	11.53	
무응답	0.49	1.30	0.74	-	0.74	
N	406	384	269	164	1223	

全體的인 傾向을 보면, 大部分의 學生들이 副職을 希望(78.74%)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單大別로도 비슷한 傾向으로 나타났다. 性別로는 女學生(85.59%)이 男學生(74.89%)보다 높은 比率을 보여 주고 있으며, 學年別로는 1~2學年이, 3~4學年보다 副職 希望率이 높은 傾向으로 나타났다.

4) 副職 希望 理由

副職을 希望하는 理由에 關한 反應은 <表 17-가,나>와 같다.

全般的인 傾向을 살펴보면 社會經驗(28.06%), 學費補助(20.28%)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約 半에 가까운 學生들이 社會的 體驗을 爲하여 副職을 希望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7-가〉 副職希望 理由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학	비	마	련	18.43	24.93	23.63	26.42	20.93	24.01	20.15	23.06	
잡	비	마	련	24.26	19.13	22.26	12.58	21.71	18.23	24.10	20.28	
사	회	경	협	28.40	26.96	27.74	29.56	28.68	27.09	29.50	28.06	
직	업	경	협	4.14	2.61	4.11	5.03	6.20	4.49	3.83	4.25	
자	립	정	신	10.06	10.14	9.25	11.95	12.79	10.65	10.81	10.71	
여	가	선	용	2.96	3.77	4.45	1.89	3.10	3.59	3.15	3.43	
무		응	답	11.83	12.46	8.56	12.58	6.59	11.94	7.66	10.22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17-나〉 副職希望 理由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체
학	비	마	련	25.62	21.61	22.68	19.51	22.89
잡	비	마	련	20.94	23.96	15.61	17.68	20.28
사	회	경	협	27.83	28.13	29.37	26.22	28.06
직	업	경	협	2.46	3.39	5.58	7.93	4.17
자	립	정	신	12.81	8.59	10.78	10.37	10.71
여	가	선	용	3.69	3.13	3.72	3.05	3.43
무		응	답	6.65	11.20	12.27	15.24	10.47
N				406	384	269	164	1223

性別로는 男學生들은 社會經驗, 學費補助, 雜費補助의 順으로, 女學生들은 社會經驗, 雜費補助, 學費補助의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大學別 및 學年別로도 全般的인 傾向과 비슷하게 反應하고 있다.

(六) 教授와의 人間關係

大學에서 學生들에게 가장 큰 影響力을 미치는 存在가 教授일 것이다. 이것은 學問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人格的인 側面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大學生活에서 學生個人과, 教授와의 人間關係는 學生 個人的 學問的, 人格的 成長 發達 및 大學生活의 適應問題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보겠다.

우리 大學生들과 教授와의 人間關係가 어떠한지 그에 따른 問題를 考察하기 爲하여, 教授와의

人間關係, 相談程度, 相談內容, 非相談의 理由, 教授에게 바라는 點, 理想的인 教授像 등에 關하여 알아 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教授와의 人間關係

自身과 教授와의 人間關係 維持의 程度에 關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 본 結果는 <表 18-가, 나>와 같다.

<表 18-가> 教授와의 人間關係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아주 원만한 편		0.59	3.77	10.27	6.29	11.63	6.68	7.21	6.87
비교적 원만한 편		48.52	49.86	47.60	49.69	46.12	47.63	49.55	48.32
비교적 좋지 않은 편		34.32	28.12	31.51	35.85	28.29	30.68	31.08	30.70
아주 좋지 않은 편		11.83	14.20	8.56	6.29	12.02	11.94	9.46	11.04
무응답		4.73	4.06	2.05	1.89	1.94	30.81	2.70	2.94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18-나> 教授와의 人間關係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아주 원만한 편		6.40	5.73	6.69	10.98	6.87
비교적 원만한 편		49.26	38.54	53.16	54.88	47.51
비교적 좋지 않은 편		28.57	36.72	29.37	25.0	30.83
아주 좋지 않은 편		11.33	13.02	9.29	8.54	11.04
무응답		4.43	5.99	1.49	0.61	3.76
N		406	384	269	164	1223

윗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比較的 圓滿한 편 (48.32%), 比較的 圓滿치 못한 편 (30.7%), 아주 좋지 않은 편 (11.04%), 아주 圓滿한 편 (6.87%)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約 過半數 (55.19%)의 學生들이 教授와의 人間關係를 圓滿하게 지내고 있어 꽤 바람직한 傾向이라 할 수 있으나, 極小數의 學生이긴 하지만 約 3.76%의 學生들이 教授와의 人間關係가 아주 좋지 않다고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는 點에 注意를 끈다.

性別로는 女學生들 (56.76%)이 男學生 (54.31%)들 보다 教授들과 圓滿하게 지내고 있음을 窺볼 수 있다.

單大別로는 全體的인 傾向과 비슷한 傾向을 表示하고 있다.

學年別로는 3~4學年이 1~2學年보다 教授와의 人間關係가 圓滿한 傾向임을 알 수 있다.

2) 教授와의 相談의 程度

濟大生들이 教授와의 相談의 程度를 調査해 본 結果는 <表 19-가,나>와 같다.

<表 19-가> 教授와의 對話程度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자주 하고 있다	-	1.45	1.37	1.89	1.94	1.67	2.25	1.39	
비교적 많이 하고 있다	1.78	4.06	5.14	6.92	6.20	5.01	6.98	4.82	
보통이다	15.38	17.97	19.18	23.27	17.83	17.97	17.34	18.56	
비교적 적게 하고 있다	29.59	24.64	28.77	28.93	20.16	25.80	27.70	25.91	
거의 안하고 있다	52.66	50.72	44.86	37.74	52.33	48.27	45.27	48.24	
무응답	0.59	1.16	0.68	1.26	1.55	1.28	0.45	1.06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19-나> 教授와의 對話程度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자주 하고 있다	0.49	1.04	1.49	1.83	1.06
비교적 많이 하고 있다	3.20	3.39	5.20	12.20	4.91
보통이다	22.17	15.63	23.42	23.17	20.52
비교적 적게 하고 있다	22.41	25.0	30.48	29.88	26.0
거의 안하고 있다	50.0	54.17	37.92	32.93	46.36
무응답	1.72	0.78	1.49	-	1.14
N	406	384	269	164	1223

教授와의 相談의 程度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거의 하지 않는다」(48.24%) 「比較的 적게 한다」(25.91%), 「比較的 많이 하고 있다」(4.82%) 등의 順位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大部分의 學生들이 對話를 않는 實情임을 알 수 있다. 性別로는 男學生(74.07%) 들이 女學生(72.37%)보다 教授와의 相談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單大別로는 人文大, 社科大, 師大, 海科大, 農大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人文大生들이 教授와의 相談이 적은 傾向임을 알 수 있다.

學年別로는 2學年, 1學年, 3學年, 4學年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低學年에서 教授와의 相談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3) 教授와 非相談의 理由

自身이 教授와의 만남이나 相談이 없다면 그 理由는 무엇이나?의 設問에 對한 反應은 <表

20-가,나)와 같다.

〈表 20-가〉 教授와 非對話의 理由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개인문제를 알리고 싶지않아서	8.88	7.54	14.04	12.58	10.47	10.01	12.61	10.55	
자신이 기회가 없어서	37.28	36.23	30.14	33.33	31.0	33.88	33.56	33.44	
교수님이 바빠서	2.96	4.06	4.45	8.81	5.81	4.49	4.50	4.99	
교수님이 응해주지 않아서	1.18	2.90	2.40	-	3.10	2.31	1.80	2.21	
자신의 성격문제로 얘기하기 두려워서	27.22	21.45	28.77	25.16	27.52	25.03	27.02	25.76	
별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15.38	16.81	11.64	12.58	14.72	15.92	13.06	14.39	
무응답	7.10	11.01	8.56	7.55	7.36	8.86	7.43	8.67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20-나〉 教授와 非對話의 理由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체
개인문제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8.37	10.42	14.87	12.20	10.96
자신이 기회가 없어서	42.12	34.11	23.79	26.22	33.44
교수님이 바빠서	4.68	4.69	4.83	2.44	4.42
교수님이 응해주지 않아서	1.23	2.60	1.86	4.88	2.29
자신의 성격문제로 얘기하기 두려워서	28.33	26.56	15.61	26.22	24.69
별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8.37	15.10	22.68	17.07	14.80
무응답	6.90	6.51	16.36	10.98	9.40
N	406	384	269	164	1223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생각은 있으나 自身이 機會가 없어서」(33.44%) 「생각은 있으나 自身の 性格問題로 이야기 하는 것이 두려워서」(25.7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4.39%)의 順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非對話의 原因을 攝取쪽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性別로도 男女 共히 비슷한 傾向임을 엿볼 수 있다.

單大別로 살펴보면 人文大, 社科大, 農大 및 海科大는 全般的인 傾向과 같은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師大만큼은 「생각은 있으나 自身이 기회가 없어서」, 「생각은 있으나 自身の 性格問題로 이야기 하는 것이 두려워서」 「個人的인 問題를 他人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의 順으로 非對話의 原因을 指摘하고 있다.

學科別로도 全般的인 反應과 비슷한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4) 相談에 對한 教授의 反應

自身이 教授와의 相談이나 만남이 있었다면 學生 個人問題에 對한 教授의 反應이 어떠한가? 의 設問에 對한 反應은 <表 21-가, 나>와 같다.

<表 21-가> 對話에 對한 教授의 反應

선택지	구 분								
	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줌	5.33	8.12	10.27	13.21	9.69	9.63	8.33	9.24	
비교적 성의있게 대해줌	46.15	46.67	45.55	46.54	46.90	48.01	43.47	46.36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었다	26.63	24.93	25.0	30.82	26.74	25.29	28.15	26.33	
회피적이었다	2.37	2.90	2.74	0.63	2.33	2.57	2.03	2.37	
무응답	19.53	17.97	16.44	8.81	14.34	14.51	18.02	15.86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21-나> 對話에 對한 教授의 反應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줌	10.84	7.29	8.55	10.37	9.24
비교적 성의있게 대해줌	44.33	45.31	49.44	48.78	46.36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었다	17.98	30.21	30.86	31.71	26.49
회피적이었다	1.23	3.91	1.86	2.44	2.37
무응답	25.62	13.28	9.29	6.71	15.62
N	406	384	269	164	1223

全體的인 傾向을 보면 比較的 誠意있게 對해 주었다(46.36%), 形式的이고 의례적이었다(26.33%). 매우 積極的으로 도와 주었다(9.24%)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過半數(55.6%)의 學生들은 肯定的인 反應으로 나타났지만 28.7%의 學生들은 否定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으며, 또한 約 16%의 學生들은 無應答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教授와의 對話의 機會가 없었음을 間接的으로 立證해 주고 있어 注意를 要한다 하겠다.

性別로 살펴보면 女學生(30.18%)들이 男學生(27.86%)들보다 否定的인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單大別로는 自身이 教授와의 對話에 對한 反應은 모든 大學에서 肯定的인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씩 바라직하다 하겠으나, 否定인 反應도 看過할 수 없는 일이라 보아야 하겠다.

學年別로 考察해 보면 比較的 高學生일 수록 否定的인 反應을 보여주고 있음은 低學年에서 對話의 機會가 不足한 데서 起因한 現象이라 하겠다.

5) 相談의 內容

教授와의 相談內容에 對한 反應을 調査해본 結果는 <表 22-가,나>와 같다.

<表 22-가> 相談 內容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성격문제	1.18	2.03	2.74	1.26	3.88	2.82	1.58	2.37
학업 및 학문적 문제	34.91	33.91	36.24	34.59	33.72	34.40	35.36	34.75
경제적인 문제	3.55	3.77	6.16	3.14	2.71	3.47	4.95	4.0
사상 및 도덕 종교문제	0.59	2.90	2.40	3.77	2.71	3.34	1.23	2.53
장래 진로에 관한 문제	28.40	30.14	18.49	39.62	29.46	30.30	24.55	28.21
가정 및 가족관계 문제	1.78	2.90	5.14	3.77	4.65	2.95	5.18	3.76
이성 및 결혼문제	2.96	1.45	0.68	1.89	0.76	1.67	0.9	1.39
대인관계 적응문제	5.92	2.61	4.11	1.89	2.71	3.72	2.70	3.35
기 타	2.96	2.90	8.56	2.52	6.98	4.75	3.38	5.07
무응답	17.75	17.39	15.07	7.55	12.40	12.58	20.27	14.55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22-나> 相談 內容

선택지	학년				전체
	1	2	3	4	
성격문제	2.96	1.04	1.86	4.88	2.37
학업 및 학문적 문제	31.53	37.24	37.55	32.93	34.83
경제적인 문제	2.71	4.95	5.20	3.05	4.01
사상 및 도덕 종교 문제	2.71	1.56	2.97	3.66	2.53
장래 진로에 관한 문제	23.40	26.56	31.23	39.02	28.21
가정 및 가족관계 문제	3.94	4.95	2.60	2.44	3.76
이성 및 결혼문제	0.99	2.08	1.49	0.61	1.39
대인관계 적응문제	2.96	3.91	3.72	2.44	3.35
기 타	4.93	6.25	4.83	3.05	5.07
무응답	23.89	11.46	8.55	7.93	14.47
N	406	384	269	164	1223

全般的인 傾向을 살펴보면 「學業 및 學問的 問題」(34.75%), 「將來進路 問題」(28.21%) 「無應答」(14.55%)의 順으로 나타내고 있어, 主로 學業이나 進路問題를 教授들과 相議하고 있는 實情임을 엿볼 수 있다.

性別, 單大別 및 學年別로도 上記와 비슷한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6) 教授에게 바라는 點

自身이 教授들에게 가장 바라는 點이 무엇인가?의 設問에 對한 反應은 <表 23-가,나>와 같다.

<表 23-가> 教授에게 바라는 點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해대	농대	남	여	전체
충분한 강의		6.51	7.54	5.48	8.81	10.85	8.22	7.88	7.77
인격적인 소양		16.57	16.81	15.75	13.84	13.18	4.38	17.12	15.37
성실한 학생지도		10.65	12.17	11.64	13.47	10.08	2.20	10.81	11.69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		-	2.03	0.34	0.63	1.16	1.16	0.68	0.98
학생과의 인간적 접촉		51.48	46.96	51.71	46.54	56.59	50.58	50.90	50.7
전문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		11.83	9.86	11.64	12.58	5.43	10.01	9.91	9.98
기 타		-	1.45	1.71	1.89	1.16	1.16	1.13	1.31
무응답		2.96	3.19	1.71	1.26	1.55	2.31	1.58	2.21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23-나> 教授에게 바라는 點

선택지	학년					전체
		1	2	3	4	
충분한 강의		8.37	6.51	9.67	6.10	7.77
인격적인 소양		13.05	12.50	18.59	22.56	15.37
성실한 학생지도		10.84	11.20	12.64	13.41	11.69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		1.97	0.78	1.18	1.83	1.31
학생과의 인간적 접촉		55.67	53.39	43.87	38.41	50.04
전문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		8.62	10.94	10.78	8.54	9.81
기 타		0.99	1.56	0.74	1.22	1.14
무응답		0.49	3.13	2.97	7.93	2.86
N		406	384	269	164	1223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學生과의 人間的 接觸(50.7%), 人格的인 素養(15.37%) 誠實한 學生指導(11.67%), 專攻分野에 對한 깊은 研究(9.98%)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約 半數의 學生이 學生과의 人間的인 接觸을 하는 教授를 그들이 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性別, 單大別 및 學年別로도 上記와 비슷한 傾向으로 反應하고 있다.

7) 理想的인 教授像

學生들이 생각하는 가장 理想的인 教授像?에 對한 反應은 <表 24-가,나>와 같다.

<表 24-가> 理想的인 教授像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전문적 학문적 소양이 풍부한 교수		14.20	18.55	18.49	16.98	22.09	18.87	17.79	18.48
학생과 인간적 접촉이 원만한 교수		44.38	48.41	44.86	52.20	47.67	50.06	19.57	47.34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하는 교수		-	2.32	0.68	3.14	1.84	2.18	0.90	1.64
인격자로서의 교수		37.28	23.19	31.16	25.16	24.03	22.98	35.36	27.47
유능한 지도자		2.37	4.35	1.37	0.63	1.55	2.82	1.35	2.29
기 타		1.18	0.87	2.40	1.26	1.55	1.54	1.35	1.47
무응답		0.59	2.31	1.03	0.63	1.16	1.54	0.68	1.31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24-나> 理想的인 教授像

선택지	학년					전체
		1	2	3	4	
전문적 학문적 소양이 풍부한 교수		16.75	18.23	18.22	23.78	18.48
학생과 인간적 접촉이 원만한 교수		56.16	49.74	40.52	31.10	47.34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하는 교수		1.48	0.78	1.86	3.05	1.55
인격자로서의 교수		22.41	25.26	21.35	16.15	27.15
유능한 지도자		0.99	2.86	2.86	2.44	2.45
기 타		0.74	1.82	1.04	1.83	1.39
무응답		1.48	1.30	3.35	-	1.64
N		406	384	269	164	1223

全體的인 傾向을 살펴 보면, 學生과 人間的 接觸이 圓滿한 教授(47.34%), 人格者로서의 教授(27.47%), 專門的, 學門的인 素養이 풍부한 教授(18.48%)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그들이 보는 理想的인 教授像은 學生들과의 人間的인 接觸이 圓滿한 教授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性別, 單大別 및 學年別로도 上記와 비슷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七) 性格 問題

自身の 心理的(性格的)인 問題로 切實히 苦悶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의 設問에 對한 反

應을 調査해본 結果는 다음의 <表 25-가,나> 와 같다.

<表 25-가> 性 格 問 題

선택지	구 분								전 체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공상이 심하다	7.10	9.28	6.51	11.32	13.57	10.27	8.11	9.48	
나에 대한 자신이 부족	24.26	24.93	25.0	23.27	21.32	22.08	27.03	23.88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	10.06	12.46	12.67	13.21	13.18	11.81	12.61	12.43	
사소한 일로 걱정한다	12.43	9.57	10.96	5.03	6.59	8.47	9.46	9.08	
화를 참지 못하고 잘 터뜨린다	4.73	5.51	6.85	5.03	5.04	5.91	5.86	5.56	
나 자신의 문제가 너무 많다	13.02	11.59	13.01	15.09	13.18	13.86	11.26	12.92	
우울증 증세가 있다	3.55	2.03	3.77	3.77	2.71	2.31	4.28	3.03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할 때가 있다	6.51	6.09	3.08	4.40	2.33	4.62	4.05	4.42	
마음을 폭 놓지 못한다	2.96	1.74	5.14	5.03	4.26	3.59	4.5	3.68	
여러일에 결정을 못하고 망설인다	14.20	13.62	9.59	11.32	13.18	12.97	9.0	12.35	
무응답	1.18	3.19	3.42	2.52	4.65	4.11	3.83	3.19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25-나> 性 格 問 題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공상이 너무 심하다	9.36	9.11	8.18	12.80	9.48
나에 대한 자신이 부족	25.62	29.71	18.96	21.34	23.79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	11.82	9.63	13.75	15.85	12.10
사소한 일로 걱정을 한다	12.56	7.81	10.78	7.93	10.06
화를 참지 못하고 잘 터뜨린다	3.94	5.73	7.43	6.10	5.56
나 자신의 문제가 너무 많다	10.84	13.54	17.84	8.54	12.92
우울증 증세가 있다	2.46	4.17	2.60	3.05	3.11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할 때가 있다	4.19	4.17	5.58	3.66	4.42
마음을 폭 놓지 못한다	2.22	3.39	5.20	5.49	3.68
여러일에 결정을 못하고 망설인다	13.55	13.54	9.67	9.76	12.18
무응답	3.45	2.60	-	-	2.70
N	406	384	269	164	1223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나에 對한 自信이 不足하다(23.8%), 나 自信의 問題가 너무 많다(12.92%),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12.43%), 여러가지 일에 決定을 못하고 망설

이다(12.35%)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自身の 心理的인 問題上의 苦悶은 自信感의 缺如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性別로 보면, 男學生들은 自信感의 缺如, 當面問題의 過多, 決斷力의 不足, 問題의 深刻性의 順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女學生들은 自信感의 缺如, 問題의 深刻性, 當面問題의 過多 소한 일로 근심걱정한다의 順으로, 男學生들 보다는 조금 다른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單大別로는, 人文大 및 社會大는 自信感의 缺如, 決斷力의 不足으로, 師大 및 海大는 自信感의 缺如, 當面問題의 過多의 順으로, 農大는 自信感의 缺如, 空想의 順으로 苦悶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學年別로는, 1學年은 自信感의 缺如, 決斷力의 決如, 問題의 深刻性의 順으로, 2學年은 自信感의 缺如, 當面問題의 過多 및 決斷力의 缺如의 順으로, 3學年은 自信感의 缺如, 當面問題의 過多, 問題의 深刻性의 順으로, 4學年은 自信感의 缺如, 問題의 深刻性의 順位로 苦悶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八) 異性 및 性問題

異性 및 性問題를 알아보기 爲하여 異性交際 與否, 異性交際觀, 異性交際에 對한 態度, 性教育에 對한 態度와 方法等을 調査해 본 結果는 다음들과 같다.

1) 異性交際 與否

現在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나?의 質問에 對한 反應은 <表 26-가, 나>와 같다.

<表 26-가> 異性交際 與否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 체	
하고 있다	35.50	31.59	30.14	42.14	39.92	36.96	32.21	34.91	
하고 있지 않다	62.13	65.22	66.44	57.86	58.91	60.21	64.86	62.80	
무응답	2.37	3.18	3.42	-	1.16	3.34	2.93	2.29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26-나> 異性交際 與否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하고 있다	29.31	31.25	40.15	48.78	34.81
하고 있지 않다	68.23	65.89	58.36	49.39	62.80
무응답	2.46	2.60	1.49	1.83	2.29
N	406	384	269	164	1223

全般的인 傾向을 보면 約 2/3에 가까운 學生(62.80%)들이 異性交際를 안하고 있는 實情으로 나타났다.

또한 性別 및 單大別로도 上記와 비슷한 傾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學年이 增加할 수록 異性 非交際率이 下降하고 있다.

2) 異性交際에 對한 態度

異性交際에 對한 態度를 묻는 問項에 對한 反應은 <表 27-가,나>와 같다.

<表 27-가> 異性交際에 對한 態度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매우 개방적	4.73	10.14	9.59	13.84	7.36	10.27	7.21	9.16
비교적 개방적	53.85	39.42	45.21	39.62	51.55	40.69	53.60	45.38
뚜렷하지 않다	26.04	28.12	25.34	30.19	24.03	30.17	20.27	26.57
비교적 보수적	13.02	14.49	16.10	11.95	12.02	12.58	15.99	13.82
매우 보수적	-	4.35	2.05	3.14	2.33	3.34	1.35	2.62
무응답	.37	3.48	1.71	1.26	2.71	2.95	1.58	2.45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27-나> 異性交際에 對한 態度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매우 개방적	9.61	8.85	9.67	7.93	9.16
비교적 개방적	48.77	39.58	42.01	52.44	44.89
뚜렷하지 않다	25.37	26.56	30.86	26.22	27.06
비교적 보수적	12.32	18.23	11.52	9.76	13.65
매우 보수적	2.22	3.39	1.86	2.44	2.53
무응답	2.72	3.39	4.09	1.22	2.70
N	406	384	269	164	1223

全體的인 傾向을 보면, 開放的으로 보는 傾向이 54.54%이고, 保守的인 傾向이 40.39%를 나타내고 있어 保守에서 進歩로 넘어가는 過渡期的인 傾向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性別로는 男學生(42.85%)들이 女學生(36.26%)들보다 異性交際를 保守的으로 보는 傾向임을 짐작할 수 있다.

單大別로는 海大, 人文大, 師大, 農大, 師大의 順으로. 그리고 學年別로는 4學年, 1學年, 3學年, 2學年の 順으로 進取的인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3) 異性交際에 對한 贊否

異性交際에 對한 贊否를 묻는 質問에 對한 反應은 <表 28-가,나>와 같다.

<表 28-가> 異性交際에 對한 贊否

선택지	구 분								전체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매우 찬성한다	16.57	21.16	15.75	23.27	25.58	24.26	13.74	20.44	
하는 편이 좋다	47.34	46.96	55.82	50.31	48.06	46.47	55.63	49.80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33.14	22.61	24.32	21.38	18.60	22.85	24.55	23.47	
가능한 안하는 편이 좋다	2.37	6.09	3.42	4.40	6.20	4.49	5.18	4.74	
무응답	0.59	3.19	0.68	0.63	1.55	1.93	0.9	1.55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28-나> 異性交際에 對한 贊否

선택지	학 년	구 분				전 체
		1	2	3	4	
매우 찬성한다		20.69	23.18	18.59	16.46	20.44
하는 편이 좋다		50.25	30.21	51.67	60.98	49.80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22.91	27.60	23.04	15.85	23.47
가능한 안하는 편이 좋다		3.69	4.17	5.58	6.10	4.58
무응답		2.46	1.82	1.12	0.60	1.72
N		406	384	269	164	1223

全體的으로 살펴보면, 大部分의 學生(70.24%)들이 異性交際를 贊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性別로는 男女 共히 비슷한 傾向으로 大學生들의 異性交際를 贊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單大別로는 海大, 農大, 師大, 社會大, 人文大의 順으로 贊成率을 나타내고 있어 海大生들이 가장 開放的인 思考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 보면, 4學年, 1學年, 3學年, 2學年の 順으로 贊成率을 보여주고 있다. 特히 1學年에서 贊成率이 높은 것은 閉鎖的인 高校권에서의 放心에 起因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4) 性教育에 對한 態度

오늘날 大學에서 性教育 實施 與否에 對한 反應을 調査해본 結果는 <表 29-가,나>와 같다.

〈表 29-가〉 性教育에 對한 態度

선택지	구 분								전 체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꼭 실시해야 한다	64.50	50.14	64.73	59.12	62.40	55.71	64.41	59.36	
할 필요가 없다	9.47	17.10	12.67	14.47	11.68	15.66	10.59	13.49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24.85	29.86	21.58	25.16	24.42	26.83	23.42	25.43	
무응답	1.18	2.90	1.03	1.26	1.55	1.80	1.58	1.72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29-나〉 性教育에 對한 態度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꼭 실시해야 한다	59.61	56.25	60.97	63.41	59.36
할 필요가 없다	11.33	13.54	16.36	14.02	13.49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26.85	27.86	21.56	22.56	25.43
무응답	2.22	2.34	1.12	-	1.72
N	406	384	269	164	1223

全般的으로 考察해 보면, 大學에서 性教育을 꼭 實施해야 한다가 59.36%, 實施할 必要가 없다가 13.49%의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性教育을 實施해야 한다는 傾向임을 알 수 있다.

性別로는 女學生(64.41%)들이 男學生(55.71%)들보다 實施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單大別로는 師大, 人文大, 海大, 農大, 社會大의 順으로 性教育 實施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4學年, 3學年, 1學年, 2學年順으로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主로 高學年學生들이 性教育을 實施해 주기를 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性教育 實施方法

性教育을 實施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의 反應을 보면 〈表 30-가,나〉와 같다.

〈表 30-가〉 性教育 實施方法

선택지	구 분								전 체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정규과목으로 실시	17.75	13.91	19.52	22.01	28.29	20.67	18.47	19.87	
관련 교과목에서 실시	32.54	22.32	33.90	29.56	22.87	26.19	29.95	27.56	
과외활동시간에 실시	45.56	57.10	40.41	46.54	44.96	47.11	48.42	47.59	
무응답	4.14	6.67	6.16	1.89	3.88	6.03	3.15	4.99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30-나〉 性教育 實施方法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정규과목으로 실시	16.5	21.61	21.93	20.73	19.87	
관련 교과목에서 실시	30.3	25.52	26.02	28.05	27.56	
과의활동시간에 실시	48.28	47.4	46.1	47.56	47.42	
무응답	4.93	5.47	5.95	3.66	5.15	
N	406	384	269	164	1223	

全體的으로 보면, 課外活動 時間(47.59%), 關連教科目 時間(27.56%), 正規教科 時間(19.87%)의 順으로 나타내고 있어, 性教育을 實施한다면 課外活動 時間에 實施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性別, 單大別 및 學年別로도 上記와 비슷한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九) 家庭 問題

現在 우리 大學生들의 家庭에서의 情緒的인 고민거리, 家庭의 雰圍氣, 父母의 期待, 家庭에서의 當面 問題點등에 對하여 調查해본 結果는 다음들과 같다.

1) 家庭에서의 苦悶

家庭問題로서 現在の 情緒的인 고민거리가 무엇이나?의 물음에 對한 反應은 〈表 31-가, 나〉와 같다.

〈表 31-가〉 家庭에 對한 苦悶

선택지	구 분								전 체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나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		20.71	24.35	20.21	21.38	19.77	20.54	22.52	21.50
내 일을 부모에게 다 이야기 할 수 없다		10.65	11.88	5.82	11.95	12.40	9.88	11.26	10.38
나 때문에 부모가 너무 큰 희생을 하고 있다		20.12	20.0	25.34	29.56	25.58	25.93	18.92	23.71
가족중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한 걱정이 크다		6.51	6.67	7.88	2.52	5.81	6.03	6.53	6.21
집에서 내가 맡은 책임이 너무 무겁다		9.47	12.46	10.27	10.69	11.63	12.97	7.88	11.12
내 문제를 집에서 상의할 수가 없다		4.73	3.48	4.11	3.77	5.04	4.24	4.05	4.17
늘 속상하게 만드는 식구가 있다		2.37	2.03	2.40	-	1.16	1.67	2.70	1.72
나의 일에 부모가 너무 간섭을 한다		10.06	5.22	7.53	5.03	1.94	3.85	9.23	5.81

나의 가정적 배경이 싫다	5.92	2.90	5.82	5.03	1.16	2.82	8.11	3.92
부모에게 말대꾸를 하게 된다	2.37	1.45	1.03	1.89	1.94	1.93	1.13	1.64
기 타	6.51	4.35	7.53	6.92	5.31	5.26	7.43	6.05
무응답	0.59	4.93	2.05	1.26	7.75	4.88	0.23	3.76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31 -나〉 家庭에 對한 苦悶

선택지 \ 학년	1	2	3	4	전체
나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다	21.67	20.31	22.3	20.73	21.26
내 일을 부모에게 다 이야기 할 수 없다	10.84	9.64	11.52	9.15	10.38
나 때문에 부모가 너무 큰 희생을 하고 있다	25.37	23.70	21.56	23.17	23.71
가족중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걱정이 크다	5.42	6.25	7.43	6.1	6.21
집에서 내가 맡은 책임이 너무 무겁다	10.84	9.11	10.78	17.07	11.12
내 문제를 집에서 상의할 수가 없다	4.68	3.39	4.46	4.27	4.17
늘 속상하게 만드는 식구가 있다	1.23	2.34	1.49	1.83	1.72
나의 일에 부모가 너무 간섭을 한다	7.39	7.29	4.83	3.66	6.30
나의 가정적 배경이 싫다	2.46	6.25	1.12	6.71	3.92
부모에게 말대꾸를 하게 된다	2.22	2.08	0.74	0.61	1.64
기 타	4.19	6.77	8.55	4.88	6.05
무응답	3.69	2.86	5.2	1.83	3.52
N	406	384	269	164	1223

全體的으로 考察해 보면, 「나때문에 父母가 너무 큰 犧牲을 하고 있다」(23.71%), 「나에 對한 父母의 지나친 期待」(21.50%), 「家庭에서 나의 責任이 너무 무겁다」(11.12%), 「내 일을 父母에게 다 말할 수 없다」(10.38%), 「家族中 어떤 한 사람에 對한 걱정이 크다」(6.21%)의 順으로 心理的인 苦悶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性別로 보면, 男學生들은 上記와 같은 順位로 苦悶을 나타내고 있는데 比해, 女學生들은 父母의 지나친 期待, 父母의 큰 犧牲, 父母와의 Rapport 缺乏, 나쁜 家庭背景 등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男學生들 보다는 조금 다른 樣相으로 苦悶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單大別로 살펴보면 農大 및 海大는 父母의 犧牲, 父母의 지나친 期待, 父母와의 Rapport-
 缺乏의 順으로 苦悶을 表示하고 있으나, 人文大는 父母의 지나친 期待, 父母의 犧牲, 父母와의
 Rapport 缺乏의 順으로, 社會大는 父母의 지나친 期待, 父母의 犧牲, 責任過重의 順으로, 師大
 는 父母의 犧牲, 父母의 지나친 期待, 責任過重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서, 조금씩 다른 樣相
 의 苦悶을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 分析해 보면, 역시 父母의 지나친 期待, 자기들 때문에 父母의 犧牲, 家庭에
 서의 責任過重등으로 心的 苦悶을 表示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家庭霧圍氣

學生들의 家庭霧圍氣가 어떠한가에 對한 反應은 <表 32-가,나>와 같다.

<表 32-가> 家庭霧圍氣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매우 좋은 편	20.71	21.45	17.47	17.61	24.03	20.15	20.95	20.44	
다소 좋은 편	37.28	28.70	30.14	28.93	31.40	26.83	37.84	30.83	
보통이다	31.36	31.88	39.04	35.85	32.17	35.43	31.76	34.10	
다소 좋지 않은 편	5.92	10.72	8.56	10.69	8.53	10.91	5.86	9.08	
매우 좋지 않은 편	4.73	5.80	4.11	6.29	2.33	5.39	3.15	4.58	
무응답	-	1.45	0.68	0.63	1.55	1.23	0.45	0.98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32-나> 家庭霧圍氣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체
매우 좋은 편	23.99	20.57	18.22	23.78	21.59
다소 좋은 편	34.24	29.95	29.74	32.32	31.64
보통이다	30.54	31.51	37.55	34.15	32.87
다소 좋지 않은 편	7.88	10.94	8.18	6.1	8.67
매우 좋지 않은 편	2.46	6.25	4.83	3.66	4.33
무응답	0.99	0.78	1.49	-	0.90
N	406	384	289	164	2223

家庭의 霧圍氣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肯定的인 反應이 51.27%, 否定的인 反
 應이 13.66%의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約 半數에 해당하는 學生들이 自己 家庭의 霧圍氣에 滿
 足を 表示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傾向으로 보아진다.

또한 性別로는, 男學生들은 46.98 %의 肯定率을 보여주는데 비해 女學生들은 58.79 %의 肯定率을 나타내고 있어 女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自己家庭의 雰圍氣를 좋게 보고 있다.

單大別로는 人文大, 海大, 社會大, 師大 및 農大의 順으로 家庭의 雰圍氣를 좋게 보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1學年, 4學年, 2學年, 3學年の 順으로 肯定的인 反應으로 나타났다.

3) 父母의 期待

學生들에 對한 父母의 期待가 어느 程度인가?를 알아본 結果는 <表 33-가,나>와 같다.

<表 33-가> 父母의 期待

선택지	구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기대가 매우 큰 편		30.77	38.84	37.33	32.08	37.98	40.56	28.83	36.30
기대가 약간 큰 편		40.83	32.46	40.07	40.25	34.88	35.73	44.14	36.96
보통이다		23.08	20.0	19.18	20.75	19.38	20.0	22.30	20.20
별로 기대를 하지 않은 편		2.96	4.93	1.37	5.66	3.86	4.75	2.25	3.68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은 편		1.78	1.16	2.05	0.63	2.33	1.23	1.58	1.46
무응답		0.59	2.61	-	0.63	1.55	1.67	0.90	1.2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33-나> 父母의 期待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기대가 매우 큰 편		35.96	40.63	29.74	37.8	36.30
기대가 약간 큰 편		34.73	33.59	43.87	39.02	36.96
보통이다		23.4	17.97	19.33	18.9	20.20
별로 기대를 하지 않은 편		2.96	4.95	2.97	3.66	3.68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은 편		1.48	1.56	2.6	0.61	1.64
무응답		1.48	1.3	1.49	-	1.23
N		406	384	269	164	1223

父母의 期待에 對한 全體的인 反應을 考察해 보면, 大部分의 學生들(73.26%)이 지나친 期待를 하고 있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어, 子女들의 能力을 無視한 期待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것은 先行研究의 結果로 나타난 事實이다.

또한 性別로는, 男學生들(76.29%)이 女學生들(72.97%)보다 父母들의 期待가 크게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單大別로는, 師大, 海大, 農大, 人文大, 社會大의 順으로 지나친 反

應率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4學年, 2學年, 3學年, 1學年의 順으로 父母들이 지나친 期待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4) 家庭에서의 當面問題

現在 家庭의 當面問題에 對한 反應을 보면 <表 34-가,나>와 같다.

<表 34-가> 家庭의 當面問題

선택지	구 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경제적 문제	52.66	48.41	54.79	48.43	53.10	50.19	53.83	51.51	
가족의 건강	18.93	23.48	21.92	23.27	21.71	21.31	23.42	22.08	
가족간의 불화	15.38	13.33	11.64	16.35	12.40	14.63	11.26	13.41	
기 타	8.88	6.38	8.90	8.81	8.14	7.96	8.11	8.01	
무응답	4.14	8.41	2.74	3.14	4.65	5.91	3.38	4.99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34-나> 家庭의 當面問題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경제적 문제	53.69	51.04	47.58	53.66	51.51	
가족의 건강	23.4	20.57	23.05	21.34	22.16	
가족간의 불화	11.33	15.89	15.24	9.76	13.41	
기 타	6.65	7.29	10.04	9.76	8.01	
무응답	4.93	5.21	4.09	5.49	4.91	
N	406	384	269	164	1223	

家庭에서의 當面問題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보면, 經濟問題(51.51%), 家族의 健康(22.08%), 家庭不和(13.41%)의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家庭의 經濟問題로 苦悶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性別, 單大別 및 學年別로 살펴 보아도 약간의 程度差異는 있지만 約 半數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家庭에서의 當面問題로 經濟問題를 首位로 反應하고 있다.

(十) 價値觀의 問題

우리 大學生들의 價値觀의 問題로 그들의 行動基準, 人生觀, 幸福의 要素, 人生的 보람, 生活

態度, 親子間的 價値觀의 葛藤 등에 對하여 調査해본 結果는 다음들과 같다.

1) 行 動 基 準

學生의 行 動基準에 對하여 물어본 結果는 <表 35-가,나>와 같다.

<表 35-가> 行 動 基 準

선택지	구 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 체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		30.77	34.49	35.62	40.88	41.09	38.25	33.33	36.47
경우에 따라 적당히 행동		49.70	44.64	45.55	39.62	42.64	41.98	48.87	44.48
안이한 방향으로 행동		8.28	8.12	7.19	7.55	5.43	7.06	7.66	7.28
되는데로 행동		7.69	8.12	7.19	8.81	8.53	9.11	6.08	8.01
기 타		2.37	1.16	3.42	2.52	0.78	1.67	2.48	1.96
무응답		1.18	3.48	1.03	0.63	1.55	1.93	1.58	1.80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35-나> 行 動 基 準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		35.22	30.21	40.89	43.29	35.98
경우에 따라 적당히 행동		48.52	45.05	40.52	39.63	44.48
안이한 방향으로 행동		6.16	8.85	8.92	3.66	7.28
되는데로 행동		6.65	10.42	5.2	7.93	7.69
기 타		0.99	3.39	3.35	1.22	2.29
무응답		2.46	2.08	31.12	4.27	2.29
N		406	384	269	164	1223

學生들의 行 動基準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경우에 따라 適當히 行 動한다」(44.48%), 「確固한 價値觀에 따라 行 動한다」(36.47%), 「되는데로 行 動한다」(8.01%)의 順으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다.

性別 및 單大別로는 男女, 人文大, 社會大, 師大 및 海大는 上記와 같이 「경우에 따라 適當히 行 動한다」, 「確固한 價値觀에 따라 行 動한다」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나 農大만큼은 「確固한 信念下에 行 動한다」, 「경우에 따라 適當히 行 動한다」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辟바람직한 傾向이라 하겠다.

그리고 學年別로 살펴 보면, 1~2學年은 「경우에 따라 行 動한다」, 「確固한 信念下에 行 動

한다」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는 反面, 3~4 學年은 「確固한 信念下에 行動한다」가 首位로 反應하고 있어 學年을 거듭할 수록 行動基準이 定立되어 가고 있는 傾向으로 씩 바람직하다 하겠다.

2) 人 生 觀

人生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이 무엇인가?의 質問에 對한 反應은 <表 36-가, 나> 와 같다.

<表 36-가> 人 生 觀

선택지	구 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돈·재산	5.92	12.17	6.51	10.69	12.02	11.94	5.86	9.73	
명 예	2.96	4.93	2.74	1.26	3.88	3.98	2.48	3.43	
권 력	0.59	2.32	3.42	1.26	2.71	2.95	1.13	2.29	
학 문	7.10	4.35	4.79	3.14	4.65	5.01	4.28	4.74	
신앙생활	2.37	4.64	7.19	6.92	3.49	4.36	6.08	4.99	
건 강	20.12	18.55	16.44	25.79	18.22	19.51	18.47	19.13	
이상적인 동반자	14.20	6.67	9.93	8.81	10.08	7.59	12.84	9.48	
화목한 가정	14.20	15.65	18.84	18.24	18.99	18.10	15.77	17.25	
성실·정직	30.18	24.64	25.0	22.64	20.93	22.21	28.38	24.45	
사회에 봉사	2.37	3.19	2.05	1.26	3.49	2.70	2.48	2.62	
무응답	-	2.90	3.08	-	1.55	1.67	2.25	1.88	
N	169	345	292	158	258	779	444	1223	

<表 36-나> 人 生 觀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돈·재산	7.14	12.24	14.87	9.15	10.71
명 예	2.71	4.43	2.6	4.27	3.43
권 력	1.97	2.6	3.72	1.22	2.45
학 문	4.43	4.43	4.83	5.49	4.66
신앙생활	5.17	6.51	4.83	9.76	6.13
건 강	20.2	17.71	18.96	15.85	18.56
이상적인 동반자	8.37	9.64	8.92	14.63	9.73
화목한 가정	18.97	15.63	17.1	18.9	17.50
성실·정직	24.38	21.09	21.93	17.07	21.83
사회에 봉사	4.43	0.78	2.23	3.05	2.62
무응답	2.22	4.95	-	0.61	2.37
N	406	384	269	164	1223

人生觀에 對한 全體的인 反應을 살펴 보면, 誠實과 正直(24.45%), 健康(19.13%), 和睦한 家庭(17.25%)의 順으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誠實과 健康으로 指摘하고 있어 꼭 바람직한 傾向으로 여겨진다.

性別로도 上記와 비슷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單大別로는, 人文大는 誠實과 正直, 健康, 理想的인 同伴者의 順, 社會大 및 農大는 誠實과 正直, 健康, 和睦한 家庭의 順, 師大 및 海大는 誠實과 正直, 和睦한 家庭, 健康의 順으로 삶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1~3 學年은 誠實과 正直, 健康, 和睦한 家庭의 順으로 人生의 重要性을 表示하고 있으나, 4 學年에서는 和睦한 家庭, 誠實과 正直, 健康의 順으로 약간 다른 樣相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3) 幸福觀

幸福의 重要한 要素에 對한 質問에 對한 反應을 보면 <表 37-가, 나>와 같다.

<表 37-가> 幸福觀

선택지	구 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경제적 능력	7.10	14.49	11.30	12.58	13.18	13.61	9.68	12.18	
남의 부러워할 정도의 지위	0.59	2.03	2.05	3.14	3.88	3.08	1.13	2.37	
평범한 자기생활에 충실한 태도	63.31	58.84	55.48	54.72	56.20	53.77	64.19	57.56	
자기 이상을 달성하려는 노력	25.44	22.32	26.37	25.79	22.09	25.16	22.3	24.12	
신앙생활	3.55	1.16	3.42	3.77	1.55	2.57	2.25	2.45	
무응답	-	1.16	1.37	-	3.10	1.8	0.45	1.31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37-나> 幸福觀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체
경제적 능력	10.34	14.06	13.35	9.15	12.18
남의 부러워할 정도의 지위	1.72	3.13	2.23	2.44	2.37
평범한 자기생활에 충실한 태도	64.04	53.65	54.28	54.27	57.56
자기 이상을 달성하려는 노력	21.43	22.03	29.74	31.1	24.94
신앙생활	1.48	3.13	2.97	2.44	2.45
무응답	0.99	3.19	-	0.61	1.31
N	406	384	269	164	1223

幸福의 要素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은 「平凡한 生活에의 充實」(57.56%), 「自己 理想을 達成하려는 努力」(24.12%), 「經濟的인 能力」(12.18%)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그들의 幸福觀을 自己生活에의 充實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性別, 單大別 및 學年別로도 비슷한 傾向을 보여주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4) 人生의 보람

삶의 보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냐?의 불응에 對한 反應은 <表 38-가,나>와 같다.

<表 38-가> 人生의 보람

선택지	구 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래대	남	여	전체	
공부에 몰두하고 있을 때	11.24	11.88	11.30	8.18	10.85	10.78	11.26	0.96	
행복한 가정생활의 장면을 볼 때	37.28	33.62	34.93	38.99	41.47	37.36	35.81	36.79	
휴일이나 방학때 여가를 즐길 때	3.55	4.35	5.48	5.03	9.69	6.16	4.95	5.72	
교내 씨클활동을 할 때	3.55	4.06	6.51	7.55	2.71	5.01	4.28	4.74	
연애하고 있을 때	3.55	7.83	4.79	6.29	5.43	7.19	3.15	5.81	
매일 매일의 생활이 삶의 보람이다	38.46	33.62	31.16	31.45	28.29	30.03	36.26	32.3	
무응답	2.37	4.63	5.82	2.52	1.85	3.47	4.28	3.68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38-나> 人生의 보람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체
공부에 몰두하고 있을 때	12.32	8.59	12.27	9.15	10.71
행복한 가정생활의 장면을 볼 때	36.95	36.98	34.57	37.2	36.47
휴일이나 방학때 여가를 즐길 때	4.43	7.03	4.83	11.59	6.30
교내 씨클활동을 할 때	5.17	5.73	3.72	2.44	4.66
연애하고 있을 때	4.43	7.81	5.95	3.05	5.64
매일 매일의 생활이 삶의 보람이다	32.76	30.21	33.46	34.15	32.30
무응답	3.94	3.65	5.2	2.44	3.92
N	406	345	292	164	1223

人生의 보람에 對한 全體的인 反應을 보면, 「幸福한 家庭生活」(36.79%), 「每日 每日의 生活」(32.3%), 「工夫에 몰두할 때」(10.96%)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 大學生들은 幸福한 家庭 및 日常生活의 영위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傾向으로 여겨진다.

또한 性別, 社會大, 師大, 農大 및 海大도 역시 幸福한 家庭生活 및 日常生活의 영위에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人文大는 日常生活의 영위, 幸福한 家庭을 꾸미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 보면, 역시 全體的인 傾向과 같은 順位로 幸福한 家庭을 꾸미는 것에 삶의 보람이 있다고 反應하고 있다.

5) 人生의 價値

人生의 價値는 어떤 生活態度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의 물음에 對한 反應은 <表 39-가, 나>와 같다.

<表 39-가> 生活 態度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21.89	27.25	23.29	25.79	23.26	22.85	27.48	24.53
자유로운 생활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		38.46	44.06	45.21	44.03	48.84	44.54	44.59	44.56
사회적으로 남을 지도하는 생활		5.33	6.96	7.19	8.18	3.49	6.93	4.95	6.21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		24.85	11.01	17.47	13.21	16.67	15.4	16.89	15.94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5.92	6.96	3.08	6.92	4.65	7.06	2.48	5.40
무응답		3.55	3.77	3.77	1.89	3.10	3.21	3.6	3.35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39-나> 生活 態度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29.8	23.18	20.82	23.17	24.86
자유로운 생활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		40.89	47.4	44.24	48.17	44.64
사회적으로 남을 지도하는 생활		6.4	4.43	8.18	6.71	6.21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		15.27	15.89	15.99	18.29	16.03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5.17	5.99	10.78	1.83	6.21
무응답		2.46	3.13	-	1.83	2.04
N		406	345	292	164	1223

大學生들의 生活態度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살펴보면, 自由 및 趣味를 즐기는 生活(44.56%), 남을 위해 奉仕하는 生活(24.53%), 眞理探究에 獻身하는 生活(15.94%)의 順位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서, 大部分의 學生들이 自由와 趣味生活 및 奉仕生活를 生活信條로 삼고 生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性別, 學年別, 社會大, 師大, 農大 및 海大 등도 역시 上記와 같은 順位를 보여주고 있으나, 人文大만은 自由와 趣味生活, 眞理探究, 奉仕生活의 順位로 나타내고 奉仕生活보다 眞理探究에 比重을 두고 있다는 點에 注目을 끈다.

6) 親子間의 價値觀의 葛藤

學生과 父母間의 價値觀의 差異가 어느 程度인가? 를 調査해본 結果는 <表 40-가, 나>와 같다.

<表 40-가> 親子間의 價値觀의 葛藤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심하다	16.57	15.36	20.55	15.72	13.57	17.2	15.09	16.43	
다소 있다	57.40	53.91	48.63	51.57	56.59	49.81	57.43	53.39	
보통	15.38	15.65	17.12	16.98	16.28	17.07	14.64	16.27	
거의 없다	2.96	11.30	10.27	10.06	10.08	10.39	10.59	9.48	
전혀 없다	7.10	2.03	1.71	4.40	1.94	2.3	1.35	2.94	
무응답	0.59	1.74	1.71	1.26	1.55	3.21	0.9	1.47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40-나> 親子間의 價値觀의 葛藤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체
심하다	13.79	20.83	17.1	11.59	16.43
다소 있다	52.46	51.56	52.79	60.98	53.39
보통	17.49	15.89	15.16	14.63	16.19
거의 없다	12.81	7.29	11.52	10.37	10.47
전혀 없다	1.72	3.13	1.86	0.61	2.04
무응답	1.72	1.3	1.12	1.83	1.47
N	406	345	292	164	1223

親子間의 價値觀의 差異에 對한 全體的인 反應을 考察해 보면, 大部分의 學生들(70.82%)이 葛藤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으며, 12.42%의 學生들만이 親子間에 價値差가 없는 實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性別로는 女學生들(72.52%)이 男學生들(67.01%)보다 葛藤이 深함을 알 수 있으며, 單大別로는 人文大, 海大, 社會大, 師大, 農大의 順位로 葛藤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 보면, 2學年, 4學年, 3學年, 1學年의 順으로 葛藤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十一) 將來問題

學生들의 將來問題를 알아보기 爲하여 進路計劃, 就職問題등에 對하여 調査해본 結果는 다음들과 같다.

1) 進路計劃

卒業後의 進路計劃에 對한 물음에 對한 應答은 <表 41-가, 나>와 같다.

<表 41-가> 進路計劃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취직		49.11	52.46	48.29	45.28	53.86	41.72	65.77	50.37
군입대		3.55	8.41	11.30	7.55	9.69	12.97	0.9	8.59
진학(대학원)		39.05	24.35	29.11	25.79	23.64	30.29	22.75	27.56
해외유학		1.78	3.48	2.05	3.14	3.49	3.08	2.48	2.86
결혼		2.37	4.64	4.11	4.40	3.49	3.98	3.83	3.92
가사조력		-	1.16	0.34	6.92	1.55	1.93	1.13	1.64
타대학 편입		1.18	1.74	0.34	1.26	0.78	1.54	0.23	1.06
생각해본바 없다		1.78	1.45	2.05	3.14	1.94	2.44	1.13	1.96
무응답		1.18	2.32	2.40	2.51	1.55	2.05	1.8	2.04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41-나> 進路計劃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취직		48.03	51.82	50.19	53.66	50.45
군입대		7.14	8.07	8.92	12.80	8.59
진학(대학원)		33.99	26.56	24.16	21.95	27.88
해외유학		2.96	2.86	3.72	1.22	2.86
결혼		1.97	3.39	7.43	4.27	3.92
가사조력		1.48	1.56	1.49	3.05	1.72
타대학 편입		1.23	0.78	1.12	0.61	0.98
생각해본바 없다		2.22	2.60	0.37	1.83	1.88
무응답		0.99	2.34	2.60	0.61	1.72
N		406	345	292	164	1223

卒業後の進路計劃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보면, 就職(50.37%), 大學院 進學(27.56%), 入營(8.59%)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大部分의 學生들이 就職 및 進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傾向임을 알 수 있다.

性別로는 男學生들은 就職, 進學, 入隊의 順, 女學生들은 就職, 進學, 結婚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 주고 있으며, 單大別로 보면, 모든 大學에서 全體的인 傾向과 같이 就職, 進學, 入隊의 順으로 進路計劃을 樹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도, 就職, 進學, 入隊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2) 就職計劃

願하는 職業이 어떤 領域인지에 對한 反應은 <表 42-가,나>와 같다.

<表 42-가> 就職計劃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지도적 직업	6.51	9.28	8.56	5.66	6.59	8.22	6.76	7.69	
존경받는 직업	8.88	6.96	12.33	7.55	4.26	6.68	10.36	8.01	
안정성 있는 직업	9.47	13.04	7.88	10.06	17.41	12.84	10.14	11.86	
취미나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	30.18	27.25	30.48	35.85	37.98	30.55	33.78	31.81	
수입성 있는 직업	2.96	5.80	4.45	5.66	7.36	6.68	3.15	5.40	
봉사할 수 있는 직업	16.57	9.57	14.04	11.32	4.26	8.86	13.96	10.71	
자립성 있는 직업	6.51	11.88	6.51	11.32	5.81	9.11	7.43	8.50	
시간적 여유 있는 직업	4.14	3.77	2.40	4.40	1.94	3.34	2.7	3.19	
인기 있는 직업	-	0.29	1.03	0.63	0.39	1.41	0.45	0.49	
흥미 있는 직업	11.24	4.64	5.82	4.40	6.20	5.78	5.86	6.13	
권위성 있는 직업	2.37	4.06	1.37	-	2.33	2.44	1.35	2.29	
기 타	0.59	0.58	3.42	1.89	1.94	1.69	1.8	1.72	
무응답	0.59	2.90	1.72	1.26	3.49	2.44	2.25	2.21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42-나> 就職計劃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지도적 직업	8.62	7.81	5.58	9.15	7.77	
존경받는 직업	6.90	7.03	10.41	9.15	7.98	
안정성 있는 직업	10.84	13.80	13.01	7.93	11.86	
취미나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	34.73	30.73	26.77	35.37	31.81	

수입성 있는 직업	5.42	5.21	5.58	5.49	5.40
봉사할 수 있는 직업	13.55	8.33	8.92	9.15	10.30
자립성 있는 직업	6.65	8.33	9.29	9.15	8.09
시간적 여유 있는 직업	2.71	4.43	5.20	2.96	3.84
인기 있는 직업	0.25	0.78	1.49	-	0.65
흥미 있는 직업	4.43	7.29	7.06	5.49	6.05
권위성 있는 직업	2.22	3.13	1.49	1.83	2.29
기 타	0.4	2.08	2.60	1.22	1.64
무응답	2.96	1.04	2.60	3.05	2.29
N	406	384	269	164	1223

學生들이 願하는 職業에 對한 全體의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就味와 素質을 살릴 수 있는 職業(31.81%), 失職危險이 적고 安定한 職業(11.86%), 쉽게 自立할 수 있는 職業(8.5%), 他人의 尊敬을 받을 수 있는 職業(8.01%), 사람이 많이 거느릴 수 있는 職業(7.69%)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過半數의 學生들이 趣味와 素質을 살릴 수 있고, 安定되고, 他人을 爲해 奉仕할 수 있는 現實的인 職業을 願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傾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性別로 보면, 男學生들은 趣味와 素質을 살릴 수 있는 職, 安定한 職業, 自立性, 奉仕職의 順으로, 女學生들은 趣味와 素質을 살릴 수 있는 職, 奉仕職, 尊敬을 받을 수 있는 職, 安定職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單大別로는, 人文大는 趣味와 素質, 奉仕職, 흥미있는 職의 順, 社會大는 趣味와 素質, 安定職, 自立性있는 職의 順으로, 師大는 趣味와 素質, 奉仕職, 尊敬을 받을 수 있는 職의 順으로, 農大는 趣味와 素質, 奉仕職 및 自立性있는 職의 順으로, 그리고 海大는 趣味와 奉仕, 安定職, 收入性 많은 職業의 順으로 各己 다른 樣相의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全學年에서 趣味와 素質을 살릴 수 있는 職業을 首位로 指摘하고 있는 것을 除外하고, 1學年은 奉仕職, 安定職의 順, 2學年은 安定職, 奉仕職 및 自立性的 順, 3學年은 安定職, 尊敬職의 順, 4學年은 指導職, 尊敬職, 奉仕職 및 自立할 수 있는 職業의 順으로 各己 다른 樣相의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十二) 專攻科에 對한 適應

專攻하고 있는 學科에 關한 問題를 알아보기 爲하여 專攻科를 選擇하게 된 動機, 學科에 對한 適應與否, 不滿理由, 轉科與否등에 對하여 調査해 보았다.

1) 專攻學科를 選擇하게 된 動機

現在의 專攻學科를 選擇하게 된 動機에 對한 反應率은 <表 43-가, 나>와 같다.

〈表 43-가〉 專攻科를 選擇하게 된 動機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취미와 적성이 맞기 때문		49.11	28.99	47.60	25.79	29.45	33.5	40.09	35.90
장래 성공의 전망이 좋기 때문		16.57	24.06	10.27	8.18	20.93	18.1	15.09	17.01
입학하기 쉬웠기 때문		8.28	9.57	7.19	30.82	18.99	13.22	14.19	13.57
학과 평판이 좋았기 때문		1.78	3.48	5.82	6.29	2.71	4.75	2.7	4.01
사회적 공헌의 기회가 많기 때문		2.96	8.70	3.77	5.03	3.10	6.68	2.25	5.07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		7.10	8.12	8.56	11.32	12.02	7.7	12.16	9.32
경제적 사정 때문		2.37	4.35	7.53	1.26	5.43	5.01	4.05	4.66
기 타		9.47	6.96	6.85	7.55	5.43	7.06	6.98	7.03
무응답		2.37	5.80	2.40	3.77	1.94	3.98	2.48	3.4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43-나〉 專攻科를 選擇하게 된 動機

선택지	학년	1	2	3	4	합계
취미와 적성이 맞기 때문		33.99	40.10	34.94	32.32	35.90
장래 성공의 전망이 좋기 때문		15.52	18.23	15.24	17.68	16.60
입학하기 쉬웠기 때문		14.04	9.90	13.38	21.34	13.57
학과 평판이 좋았기 때문		3.94	5.21	2.97	3.05	4.01
사회적 공헌의 기회가 많기 때문		5.91	4.17	4.83	5.49	5.07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		10.10	5.73	13.38	9.15	9.32
경제적 사정 때문		4.93	4.69	5.58	2.44	4.66
기 타		4.93	10.16	7.06	4.88	7.03
무응답		6.65	1.82	2.60	3.66	3.84
N		406	384	269	164	1223

現在の 專攻을 選擇하게 된 動機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보면, 趣味와 適性이 맞기 때문(35.90%), 職業展望이 좋기 때문(17.01%), 入學이 쉽기 때문(13.57%), 他人의 권유 때문(9.32%)의 順으로 反應率을 보이고 있다. 特히 入學이 쉽기 때문에 專攻科를 選擇했다는 學生이 全體의 13.57%나 차지하고 있어 注目할만 하다.

또한 性別, 學年別, 人文大, 社會大, 師大, 海大등도 全體的인 傾向과 비슷한 順으로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으나 農大만은 入學이 쉽기 때문, 趣味와 適應이 맞기 때문, 他人의 권유의 順으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다.

2) 專攻科에 關한 適應度

現在の 專攻學科에의 適應與否에 關한 反應率은 <表 44-가,나>와 같다.

<表 44-가> 專攻科에 對한 適應度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매우 만족하다	15.38	20.29	11.64	8.18	11.63	14.12	14.19	14.15
대체로 만족한 편	37.28	39.13	40.41	35.85	30.62	38.0	35.14	36.55
보통이다	23.08	20.29	21.92	25.16	25.58	22.21	23.87	22.81
다소 불만	17.75	12.75	19.18	22.64	18.22	15.53	20.72	17.42
매우 불만	2.96	5.51	3.77	5.66	10.85	6.8	4.28	5.89
무응답	3.55	2.03	3.08	2.52	5.04	3.34	1.8	3.19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44-나> 專攻科에 對한 適應度

선택지	학 년				
	1	2	3	4	합 계
매우 만족하다	13.05	13.54	11.15	22.56	14.06
대체로 만족한 편	35.47	39.58	34.57	39.02	37.04
보통이다	22.91	23.44	24.16	19.51	22.89
다소 불만	18.72	15.63	21.19	12.20	17.42
매우 불만	4.19	6.51	7.43	6.10	5.89
무응답	5.67	1.30	1.49	0.61	2.7
N	406	384	269	164	1223

專攻學科에의 適應與否에 關한 全體의인 反應率을 考察해 보면, 滿足이 50.70%, 不滿이 23.31%, 그리고 普通이 22.81%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約 半數의 學生들이 現在の 專攻學科에 適應하고 있는 實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性別로 보면, 男學生(52.12%)들이 女學生(49.33%)들보다 專攻科에 適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單大別로 보면, 社會大, 人文大, 師大, 農大, 海大의 順으로 現在の 專攻科에 滿足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學年別로는 4學年, 2學年, 1學年, 3學年の 順으로 適應 反應을 表示하고 있다.

3) 專攻學科에 對한 不滿理由

現在の 專攻科에 對한 不滿의 理由를 調査해 본 結果는 <表 45-가,나>와 같다.

<表 45-가> 專攻科에 對한 不滿理由

선택지	구 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1차 희망이 아니어서	7.69	4.64	4.11	2.52	7.36	5.13	5.41	5.23	
취미와 적성에 맞지 않음	5.92	8.12	7.88	14.47	13.18	8.86	11.04	9.65	
자신의 능력에 안 맞아서	5.92	7.54	10.96	8.18	6.59	7.19	9.46	8.01	
상래 전망이 없어서	13.61	8.70	8.22	20.13	17.44	11.81	13.96	12.59	
교육내용이 마음에 안 맞음	10.65	8.99	9.93	8.81	10.85	11.3	7.21	9.81	
학과 분위기가 좋지 않음	13.02	11.59	13.70	14.47	9.30	12.07	12.16	12.18	
모르겠다	8.88	12.75	13.70	5.66	9.69	12.07	8.78	10.87	
무응답	43.32	37.68	31.51	25.79	26.36	31.58	31.98	31.64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45-나> 專攻科에 對한 不滿理由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체
1차 희망이 아니어서	6.65	3.91	3.72	6.71	5.15
취미와 적성에 맞지 않음	10.84	8.59	10.04	8.54	9.65
자신의 능력에 안 맞아서	7.39	10.16	7.81	4.88	8.01
장래 전망이 없어서	8.62	11.98	16.73	17.07	12.59
교육내용이 마음에 안 맞음	7.64	9.9	11.9	11.59	9.81
학과 분위기가 좋지 않음	12.56	17.19	8.55	4.27	12.02
모르겠다	11.82	13.54	10.04	9.76	11.69
무응답	34.48	24.74	31.23	37.2	31.07
N	406	384	269	164	1223

現在의 專攻學科에 對한 不滿의 原因을 調査해본 結果, 全體의인 傾向을 보면, 將來 展望이 좋지 않아서 (12.59%), 學科 雰圍氣가 나빠서 (12.18%), 教育內容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9.81%), 趣味와 適性이 안맞아서 (9.65%)의 順으로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性別로 考察해 보면, 男子는 學科 雰圍氣가 나쁘다, 展望이 나쁘다, 教育內容이 안맞다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으며, 女子는 展望이 나쁘다, 學科 雰圍氣가 나쁘다, 趣味와 適性이 안맞다의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1學年은 學科 雰圍氣가 나쁘다, 趣味와 適性이 안맞다, 展望이 나쁘다의 順. 2學年은 學科 雰圍氣가 나쁘다, 展望이 나쁘다, 自身의 能力에 안맞다의 順으로 反應

하고 있어 1~2學年에서 學科 霧圍氣가 안맞다에 首位를 보여주고 있음은 學科의 霧圍氣 改善에 力點을 두어야 하겠음을 示唆하고 있다 하겠다. 3~4學年은 展望이 나쁘다, 教育內容이 안맞다, 趣味와 適性에 안맞다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4) 轉科 希望 與否

만약 轉科의 機會가 있다면 轉科하겠는가?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46-가,나>와 같다.

<表 46-가> 轉科希望 與否

선택지	구 분								전 체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과하겠다	23.67	19.42	19.86	35.22	34.88	24.9	25.23	25.43	
전과하지 않겠다	53.85	54.49	53.77	44.03	43.80	49.81	52.03	50.61	
졸업후 학사 편입을 하겠다	7.69	6.09	7.88	8.81	5.81	7.83	5.63	7.03	
모르겠다	12.43	14.20	17.47	9.43	10.85	13.09	15.32	13.41	
무응답	2.37	5.80	1.03	2.52	4.65	4.36	1.8	3.52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46-나> 轉科希望 與否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전과하겠다	26.35	27.08	24.16	21.95	25.51
전과하지 않겠다	41.63	51.3	49.81	56.71	48.49
졸업후 학사 편입을 하겠다	4.93	4.95	11.52	9.15	6.95
모르겠다	16.26	14.32	11.15	4.88	13.00
무응답	10.84	2.34	3.35	7.32	6.05
N	406	384	269	164	1223

轉科與否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轉科 안하겠다가 50.61%, 轉科 하겠다가 25.43%로 나타내고 있어 轉科 希望者의 適應問題가 時急을 要한다고 하겠다.

性別로는 女學生(25.23%)들이 男學生(24.9%)들보다 轉科를 願하고 있으며, 單大別로는 農大, 海大, 人文大, 師大, 社會大의 順으로 機會가 있다면 轉科를 하겠다고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 보면, 2學年, 1學年, 3學年, 4學年의 順으로 轉科를 願하고 있다.

(十三) 씨클活動 問題

學內 씨클活動에 對하여는 씨클에 加入 與否, 씨클에 不加入 理由, 씨클活動의 目的, 씨클活

動的 利點, 써클活動에서의 不滿點, 써클活動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問題點, 써클活動上의 現實의 問題등에 關하여 調査分析해 본 結果는 다음들과 같다.

1) 써클에의 加入與否

學生은 學內 써클에 加入하고 있느냐?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47-가, 나>와 같다.

<表 47-가> 써클加入 與否

선택지	구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가입하고 있다		42.01	30.14	43.84	42.14	27.91	33.89	40.09	36.14
가입하고 있지 않다		55.03	67.25	54.11	57.23	68.22	63.16	58.11	61.32
무응답		2.96	2.61	2.05	0.63	3.88	2.95	1.8	2.5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47-나> 써클加入 與否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가입하고 있다		24.63	47.14	40.89	31.1	36.14
가입하고 있지 않다		72.66	50.52	56.13	67.07	61.32
무응답		2.71	2.34	2.97	1.83	2.53
N		406	384	269	164	1223

써클加入 與否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보면, 加入이 36.14%, 不加入이 61.32%의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約 2/3에 가까운 學生들이 加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性別로 보면, 男學生(63.16%)들이 女學生들(58.11%)보다 높은 不加入率을 나타내고 있다. 單大別로는, 海大, 社會大, 農大, 人文大, 師大의 順으로 써클에 加入치 않는 實情이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1學年, 4學年, 3學年, 2學年の 順으로 加入치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써클 不加入의 理由

써클에 加入치 않는 理由에 對한 反應率을 調査해본 結果는 <表 48-가>와 같다.

<表 48-가> 써클 不加入의 理由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전체
내 적성에 맞는 써클이 없음		29.03	32.33	32.28	17.58	21.59	27.60
시간적 여유가 없음		21.51	18.53	30.38	28.57	23.86	23.87
공부에 방해가 됨		5.58	6.03	2.53	10.99	4.55	5.45
관심이 없음		44.09	43.10	34.81	42.86	50.0	43.07
N		93	232	158	91	176	750

씨클 不加入의 理由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살펴 보면, 關心이 없어서 (43.07%), 適性에 맞는 씨클이 없어서 (27.60%), 時間的 여유가 없어서 (23.87%)의 順으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서, 趣味와 適性에 알맞는 씨클을 많이 新設, 學生들의 關心을 씨클活動으로 誘導하여 즐거운 學內生活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單大別로 보면, 人文大, 社會大, 師大는 無關心, 適性에 맞는 씨클 없음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는 反面, 農大, 海大는 無關心, 時間的 여유가 없다는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3) 씨클活動의 目的

씨클活動의 目的을 묻는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49-가, 나>와 같다.

<表 49-가> 씨클活動의 目的

선택지	구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대인관계 개선에 있다		31.95	35.94	29.45	38.99	40.70	35.17	35.36	35.24
이성교제를 원만히 하는데 있다		1.78	4.06	3.08	5.03	5.43	4.11	3.6	3.92
적응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8.88	8.70	10.27	11.95	9.30	10.01	9.01	9.65
바람직한 인격을 적응하는데 있다		27.22	23.19	26.71	22.64	18.99	22.08	26.35	23.63
책임감을 기르는데 있다		4.73	4.35	6.16	2.52	3.88	5.01	3.38	4.50
여가를 선용하는데 있다		4.73	8.12	5.82	6.92	2.71	7.45	5.18	6.62
흥미를 깊게 하고 넓히는데 있다		10.06	4.64	11.30	6.29	5.04	6.55	8.56	7.28
기 타		3.55	2.32	3.77	4.40	2.33	3.47	2.7	3.11
무응답		7.10	8.70	3.42	1.26	7.75	6.16	5.86	6.05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49-나> 씨클活動의 目的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대인관계 개선에 있다		38.42	37.5	29.74	31.1	35.24
이성교제를 원만히 하는데 있다		3.69	3.65	5.95	1.83	3.92
적응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8.13	8.85	10.41	12.2	9.40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다		20.69	24.22	22.68	37.2	24.5
책임감을 기르는데 있다		5.67	3.39	4.46	4.27	4.50
여가를 선용하는데 있다		7.88	5.21	6.69	4.27	6.30
흥미를 깊게 하고 넓히는데 있다		6.4	8.07	8.55	4.88	7.20
기 타		2.96	4.69	2.23	3.05	3.35
무응답		6.16	4.43	9.29	1.23	5.64
N		406	384	269	164	1223

써클活動의 目的에 對한 全體의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人間關係 改善(35.24%), 圓滿한 人格形成(23.63%), 適應力 養成(9.65%)의 順으로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性別, 學年別, 社會大, 農大, 海大등은 全體의인 傾向과 비슷하게 人間關係 改善, 圓滿한 人格形成, 適應力 養成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으나, 人文大와 師大는 人間關係의 改善, 圓滿한 人格形成, 興味の 擴大와 深化의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4) 써클活動의 利點

써클活動을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의 質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50-가,나>와 같다.

<表 50-가> 써클活動의 利點

선택지	구 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30.18	25.22	28.08	44.65	33.72	31.84	29.28	30.91	
이성교제에 도움이 되었다	2.37	3.77	3.08	4.40	2.33	3.85	2.03	3.19	
인생관의 확립에	5.33	6.09	4.79	6.29	8.91	7.32	4.5	6.30	
여가선용을 하는데	2.37	4.35	7.53	3.14	7.36	5.52	4.95	5.31	
학술연구에	5.92	3.77	6.51	3.77	2.71	2.82	7.43	4.91	
심신의 단련에	1.78	2.03	1.71	1.26	1.94	1.8	2.03	1.80	
토론법 양성에	2.96	6.67	4.11	6.92	4.26	4.88	5.41	5.07	
도움이 되지 못했다	2.96	5.80	3.42	4.40	3.49	4.12	4.28	4.17	
기 타	0.59	8.12	5.82	6.92	5.43	6.42	4.73	5.81	
무응답	45.56	32.75	34.93	18.24	29.84	31.45	35.36	32.54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0-나> 써클活動의 利點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25.86	35.42	37.17	31.71	32.13
이성교제에 도움이 되었다	2.22	2.86	5.2	3.05	3.19
인생관의 확립에	5.91	4.43	7.43	7.32	5.97
여가선용을 하는데	5.67	3.65	4.83	7.32	5.07
학술연구에	3.94	10.16	4.09	3.05	5.80
심신의 단련에	0.74	2.08	1.86	3.66	1.80
토론법 양성에	5.42	3.65	5.95	6.1	5.07
도움이 되지 못했다	3.69	5.21	4.46	2.44	4.17
기 타	7.14	7.55	2.6	3.66	5.81
무응답	39.41	25.0	21.39	31.71	30.99
N	406	384	269	164	1223

써클活動의 利點에 對한 全體의인 反應率을 살펴 보면, 人間關係의 造成과 維持(30.91%), 人生觀의 定立(6.3%), 餘暇善用(5.31%)의 順으로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約 1/3에 가까운 學生들이 人間關係의 造成과 維持에 도움이 되었다고 首位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男學生들은 上記와 비슷한 順位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으나, 女學生들은 人間關係의 造成과 維持, 學術研究, 討論術의 順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大學別로 보면, 人文大는 人間關係 造成, 學術研究, 餘暇善用의 順, 3學年은 人間關係造成, 人生觀 確立, 討論術의 順, 4學年은 人間關係造成, 人生觀確立 및 餘暇善用의 順으로 써클活動에 도움이 되었다고 表示하고 있다.

5) 써클活動에서 不滿理由

써클活動을 하는데 不滿이 있다면 그 理由는 무엇이나?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51-가 나>와 같다.

<表 51-가> 써클活動의 不滿理由

선택지	구 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 체	
지도교수의 성의 부족	8.88	8.70	6.51	11.95	10.08	9.76	7.43	8.91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	5.33	3.19	5.48	7.55	3.49	4.12	5.86	4.66	
흥미 없다	13.61	9.57	17.81	17.61	17.05	13.86	16.22	14.72	
인화단결이 되지 않는다	7.69	11.01	10.62	15.09	10.47	12.07	8.78	10.87	
리더쉽이 부족	3.55	6.09	7.53	10.06	5.81	6.55	6.53	6.54	
써클의 본 목적에 위배되었다	5.33	7.54	8.56	6.92	6.20	6.93	7.43	7.11	
기 타	9.47	6.96	7.53	5.03	6.20	7.19	9.01	7.03	
무응답	46.15	46.96	35.96	25.79	40.70	39.54	38.74	40.15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1-나> 써클活動의 不滿理由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지도교수의 성의 부족	6.9	11.2	10.78	7.32	9.16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	2.96	5.73	5.58	5.49	4.74
흥미 없다	10.59	15.63	17.84	17.68	14.72
인화단결이 되지 않는다	8.87	13.54	11.52	7.93	10.79
리더쉽이 부족	8.13	7.29	4.09	7.32	6.87
써클의 본 목적에 위배되었다	6.16	8.07	6.69	7.32	7.03
기 타	7.14	7.81	5.95	7.32	7.11
무응답	49.25	30.73	37.55	39.63	39.57
N	406	384	269	164	1223

써클活動을 하는데 있어서 不滿의 原因에 對한 全體的 反應을 考察해 보면, 活動內容에 새로운 맛이 없다(14.72%), 成員의 人和團結이 모자라다(10.87%), 指導教授의 誠意가 不足(8.91%)의 順으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活動內容에 興味が 없고 成員의 人和團結 不足이 써클活動에서 主要 不滿點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性別, 農大, 海大, 2~3 學年은 全體的인 傾向과 같이 써클活動內容에 興味が 없다. 成員의 人和團結이 不足하다. 指導教授의 誠意不足의 順으로 不滿을 表示하고 있으나, 人文大는 活動內容에 興味が 不足하다, 指導教授의 誠意不足, 成員의 人和團結 不足의 順으로, 社會大는 構成員의 人和不足, 活動內容의 不足, 指導教授의 誠意不足의 順으로, 師大는 活動內容에 興味不足, 本來의 써클目的에 위배되었다의 順으로, 또한 1 學年에서는 活動內容에 興味不足, 構成員의 人和不足, 任員의 指導性 缺如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各己 조금씩 다른 樣相으로 不滿을 나타내고 있다.

6) 써클活動 및 運營上의 隘路點

써클活動을 하는데 重要的 隘路點이 무엇이나?의 물음에 對한 反應率은 <表 52-가,나>와 같다.

<表 52-가> 써클活動 및 運營上의 隘路點

선택지	구 분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재정이 빈약	12.43	15.07	14.73	18.87	19.38	18.36	11.94	16.03	
인화단결이 부족	8.28	8.70	13.01	18.24	10.08	11.17	11.26	11.20	
집회장소가 적합치 않음	5.92	4.35	6.85	10.06	6.98	6.68	6.08	6.46	
시간적 여유가 없음	5.33	5.22	6.85	3.77	5.43	5.01	6.31	5.48	
리마쉽이 부족	2.96	6.09	4.79	7.55	5.81	5.26	5.86	5.48	
지도교수의 성의 부족	3.55	2.90	1.03	5.66	2.71	3.08	2.48	2.86	
활동내용의 미흡	12.43	15.07	12.33	11.95	14.34	13.09	14.12	13.49	
기 타	2.96	5.22	2.74	1.89	2.33	3.72	2.48	3.27	
무응답	46.15	37.40	37.67	22.01	32.95	33.63	38.29	35.7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2-나> 써클活動 및 運營上의 隘路點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재정이 빈약	12.32	16.67	19.33	18.29	16.03	
인화단결이 부족	8.62	15.1	10.78	9.15	11.20	
집회장소가 적합치 않음	4.68	8.59	7.43	4.27	6.46	

시간적 여유가 없음	5.42	6.25	5.95	6.1	5.89
리더쉽이 부족	6.4	5.73	4.83	3.66	5.48
지도교수의 성의 부족	1.23	4.43	2.97	3.05	2.86
활동내용의 미흡	12.07	13.54	13.38	17.07	13.49
기 타	3.45	3.13	3.72	2.44	3.27
무응답	45.81	26.56	31.6	35.98	35.32
N	406	384	269	164	1223

씨클活動 및 運營上의 隘路點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을 살펴 보면, 財政의 貧弱(16.03%), 活動內容 未洽(13.49%), 人和不足(11.2%)의 順으로 씨클活動 및 運營上의 隘路事項을 들고 있다. 그리고 性別, 單大別, 學年別로도 全體的인 傾向과 비슷한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역시 財政貧弱, 形式的 活動, 人和 등이 씨클 운영상의 隘路임을 짐작할 수 있다.

7) 씨클活動上에서 個人的인 隘路點

씨클活動에 있어서 自身이 느끼는 問題點에 對한 反應率은 <表 53-가,나>와 같다.

<表 53-가> 씨클活動上의 個人的 問題點

선택지	구 분								전체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시간적 여유가 모자라다	18.34	14.20	20.55	18.24	12.79	15.92	17.57	16.52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다	17.16	8.12	10.27	14.47	7.75	8.34	14.64	10.63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다	1.18	6.96	6.85	5.66	9.69	7.32	5.18	6.54	
경제적 여유가 모자라다	4.14	5.22	6.51	6.29	5.04	7.06	2.7	5.48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5.92	5.80	6.51	8.81	6.20	5.78	7.66	6.46	
활동프로그램이 미흡하다	7.10	17.68	11.30	18.24	17.44	16.82	11.04	14.72	
무응답	46.15	42.03	38.01	28.30	41.09	38.77	41.22	39.66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3-나> 씨클活動上의 個人的 問題點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시간적 여유가 모자라다	15.27	16.41	15.24	19.51	16.19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다	10.84	13.28	9.67	6.1	10.71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다	5.91	5.99	6.32	9.76	6.54
경제적 여유가 모자라다	4.68	6.51	6.32	3.66	5.48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5.42	9.11	5.58	4.27	6.46
활동프로그램이 미흡하다	9.85	15.1	20.45	16.46	14.72
무응답	48.03	33.59	36.43	40.24	39.90
N	406	384	269	164	1223

씨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個人的인 隘路點이 무엇이나?에 對한 全體的인 反應率을 考察해 보면, 時間不足(16.52%), program未洽(14.72%), 能力不足(10.63%)의 順으로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씨클 활동에 있어서의 個人的인 隘路事項이 時間不足, program未洽, 自身의 能力不足등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는 性別로는, 男子는 Program未洽, 時間不足, 能力不足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는데 比하여 女學生들은 時間不足, 能力不足, Program未洽의 順으로 隘路事項을 指摘하고 있다.

單大別로 보면 人文大는 時間不足, 能力不足, Program未洽의 順, 社會大는 Program未洽, 時間不足, 能力不足의 順, 師大·農大는 時間不足, Program未洽, 能力不足의 順, 海大는 program未洽, 能力不足, 時間不足의 順으로 제각기 조금씩 다른 樣相으로 隘路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學年別로는 1學年은 時間不足, 能力不足, Program未洽의 順, 2學年은 時間不足, Program未洽, 能力不足의 順, 3學年은 Program未洽, 時間不足, 能力不足의 順, 4學年은 時間不足, Program未洽, 性格差의 順으로 各기 다른 樣相의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十四) 學內生活의 適應問題

學內生活의 問題에 關해서는 學內生活의 適應, 圖書館 施設 및 運營上의 問題, 圖書館 活用 및 不滿點 그리고 學生生活研究의 活動 및 活用に 對하여 調査해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學內生活에서의 適應

現在 自身의 大學生活에 對한 느낌은 어떠한가?의 質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54-가, 나> 와 같다.

<表 54-가> 學內生活의 適應

선택지	구 분								전체
	인문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의의있는 생활이다	15.98	17.10	15.41	18.87	15.50	17.97	13.74	16.43	
그런대로 지낸다	46.15	42.03	47.60	47.17	45.74	45.06	45.95	45.38	
무의미한 시간만 소비하는 느낌이다	32.54	35.07	31.51	30.19	32.56	30.81	36.04	32.71	
모르겠다	3.55	3.19	3.77	3.14	4.65	3.85	3.38	3.68	
무응답	1.78	2.61	1.71	0.63	1.55	2.31	0.9	1.80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4-나〉 學內生活의 適應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의의있는 생활이다	10.84	12.24	24.16	28.66	16.60
그런대로 지낸다	45.07	45.83	42.75	45.12	44.81
무의미한 시간만 소비하는 느낌이다	37.93	34.9	29.74	19.51	32.71
모르겠다	3.69	3.13	3.35	5.49	3.68
무응답	2.46	3.91	-	1.23	2.21
N	406	384	269	164	1223

學內生活에서의 適應에 對한 全體의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適應이 16.43%, 不適應이 32.71%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約 半에 가까운 學生들이 學內生活에 不滿임을 엿볼 수 있으며, 그런대로 지낸다가 45.38%의 反應率을 表示하고 있음은 約 半數에 가까운 學生들이 그런대로 適應해 불려고 努力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性別 學內生活의 不適應率을 살펴보면, 女學生들(36.04%)이, 男學生들(30.81%)보다 더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單大別로는 社會大(35.07%), 海大(32.56%), 人文大(32.54%), 師大(31.51%), 農大(30.19%)의 順으로 不適應率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學年別로는 1, 2, 3 學年의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는 反面, 4 學年 學生들은 適應率이 28.66%, 不適應率이 19.51%로서 學內生活에 滿足을 表示하고 있어 바람직한 傾向이라 하겠다.

2) 圖書館施設에 對하여

우리학교의 圖書館施設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率은 〈表 55-가, 나〉와 같다.

〈表 55-가〉 圖書館施設에 對한 問題

선택지	구 분								전체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매우 만족	1.18	1.74	1.71	3.14	4.65	2.95	1.58	2.45	
비교적 만족한 편	17.75	21.74	20.55	35.85	21.71	24.13	20.27	22.73	
다소 불만	42.60	44.06	40.41	34.59	42.64	38.64	46.4	41.46	
매우 불만	37.28	29.28	35.27	25.79	29.07	31.7	30.63	31.32	
무응답	1.18	3.19	2.05	0.63	1.94	2.57	1.13	2.04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5 -나〉 圖書館施設에 對한 問題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매우 만족	1.72	1.82	2.97	4.88		2.45
비교적 만족	2.08	22.92	19.7	14.02		22.73
다소 불만	41.13	43.49	35.69	46.95		41.46
매우 불만	26.35	29.69	39.41	33.54		31.23
무응답	2.71	2.08	2.23	0.61		2.13
N	406	384	269	164		1223

圖書館施設에 對한 全般的 反應率을 살펴보면, 滿足이 25.18%, 不滿足이 72.78%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大部分의 學生들이 施設에 不滿足을 表示하고 있는 傾向이다.

性別로 보면, 女子(77.27%)가, 男子(70.27%)보다 圖書館施設에 더 不滿足을 表示하고 있으며, 單大別로는 人文大, 師大, 社會大, 海大, 農大의 順으로 不滿足을 나타내고 있고, 學年別로는 4學年, 3學年, 2學年, 1學年の 順으로 不滿足을 나타내고 있어 學年이 거듭할 수록 不滿足의 程度가 深함을 알 수 있다.

3) 圖書館運營에 對한 問題

圖書館運營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率은 〈表 56-가,나〉와 같다.

圖書館運營에 對한 全體의인 反應率을 考察해 보면, 滿足이 30.9%, 不滿足이 66.96%의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大部分의 學生들이 不滿足을 表示하고 있으며, 性別로 보면, 女子의 不滿足率이 69.14%, 男子의 不滿足率이 65.73%로서 女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深함을 알 수 있다.

單大別로는 人文大, 師大, 社會大, 海大, 農大의 順으로 不滿足을 나타내고 있으며, 學年別로는 3學年, 4學年, 2學年, 1學年の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高學年에서가, 보다 不滿足을 表示하고 있다.

〈表 56 -가〉 圖書館運營에 對한 問題

선택지	구 분								전 체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매우 만족	1.18	2.90	2.05	5.66	3.49	3.47	2.03		2.94
비교적 만족한 편	26.63	26.96	25.34	30.82	31.40	27.98	27.93		27.96
다소 불만	45.56	42.61	42.81	38.99	43.41	40.31	47.07		42.76
매우 불만	24.85	25.22	27.05	23.27	19.76	25.42	22.07		24.20
무응답	1.78	2.32	2.74	1.26	1.94	2.82	0.9		2.1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6 -나〉 圖書館 運營에 對한 問題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매우 만족		2.96	2.86	2.23	3.66
비교적 만족한 편		34	26.56	20.45	21.34	26.98
다소 불만		38.18	44.53	44.24	47.56	42.76
매우 불만		19.46	23.7	30.48	26.83	24.20
무응답		5.42	2.34	2.6	0.61	3.19
N		406	384	269	164	1223

4) 圖書館 運營에 對한 不滿理由

圖書館 運營에 不滿이 있다면 그 理由는 무엇인가?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57-가,나〉와 같다.

〈表 57 -가〉 圖書館 運營에 對한 不滿理由

선택지	구 분	인 대	사 회	사 번	농 대	해 대	남	여	전 체
		시설이 빈약하다	21.89	24.64	22.60	18.24	27.52	22.72	25.23
장서 및 자료가 부족한 편	33.14	30.14	32.88	32.08	27.13	30.94	31.76	30.83	
분위기가 문란하다	17.35	23.77	24.32	28.30	27.13	26.44	20.72	24.37	
직원이 불친절하다	12.43	10.43	9.93	6.92	5.81	7.83	11.49	9.16	
기 타	4.73	1.45	5.82	8.81	2.71	3.98	4.5	4.17	
무응답	10.06	9.57	4.45	5.66	9.69	8.09	6.31	7.9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7 -나〉 圖書館 運營에 對한 不滿理由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시설이 빈약하다		22.66	23.44	21.93	29.27
장서 및 자료가 부족한 편		27.83	31.77	35.69	31.1	31.23
분위기가 문란하다		32.76	23.96	18.22	14.63	24.37
직원이 불친절하다		4.43	9.9	11.9	14.63	9.16
기 타		2.46	4.69	5.95	4.27	4.17
무응답		9.85	6.25	6.32	6.1	7.44
N		406	384	269	164	1223

圖書館 運營에 있어서, 不滿理由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藏書 및 資料貧弱 (30.83%), 雰圍氣 紊亂 (24.37%), 施設貧弱 (23.55%)의 順으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資料 및 施設擴充은 段階的으로 解決한다 하더라도 讀書 雰圍氣 造成에 時急을 要함을 示唆해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性別로는 男學生들은 藏書 및 資料貧弱 (30.94%), 雰圍氣 紊亂 (26.44%), 施設貧弱 (22.72%)의 順으로, 女學生들은 藏書 및 資料不足 (31.76%), 施設貧弱 (25.23%), 雰圍氣 紊亂 (20.72%)의 順으로 不滿理由를 指摘하고 있다.

單大別로 보면, 人文大와 社會大는 藏書 및 資料貧弱, 施設不足, 雰圍氣 紊亂의 順으로, 師大와 農大는 藏書와 資料貧弱, 雰圍氣 紊亂의 順으로 不滿을 表示하고 있으며, 學年別로 보면, 1~2學年은 藏書와 資料不足, 雰圍氣 紊亂, 施設不足의 順, 3~4學年은 藏書와 資料不足, 施設貧弱, 雰圍氣 紊亂의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5) 圖書館 活用

圖書館 活用度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率을 살펴보면 <表 58-가, 나>와 같다.

<表 58-가> 圖書館 活用度

선택지	구 분								전체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매일 이용	18.93	20.29	16.78	16.98	12.79	19	14.19	17.25	
가끔 이용하는 편	66.86	60.0	65.75	59.75	68.22	61.23	68.92	64.02	
시험기간만 이용	10.65	9.86	11.64	16.35	11.24	11.3	11.94	11.53	
전혀 이용하지 않음	2.37	8.12	4.11	5.66	5.43	6.3	4.5	5.48	
무응답	1.18	1.74	1.71	1.26	2.33	2.18	0.45	1.72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8-나> 圖書館 活用度

선택지	학 년				전체
	1	2	3	4	
매일 이용	15.02	16.41	23.05	15.24	17.25
가끔 이용하는 편	65.52	62.76	58.74	72.56	64.10
시험기간만 이용	12.56	13.02	10.04	7.93	11.53
전혀 이용하지 않음	4.93	6.25	7.06	3.66	5.64
무응답	1.97	1.56	1.12	10.61	1.47
N	406	384	269	164	1223

圖書館 活用度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가끔 活用(64.02%), 每日 活用(17.25%), 試驗期間만 活用(11.53%), 전혀 不活用(5.48%)의 順으로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過半數의 學生들은 가끔 利用하는 實情인데 反하여 전혀 利用하지 않는 學生들도 全體의 5.48%로 나타내고 있음에 注目이 된다.

性別로 보면 男子는 가끔 利用, 試驗期間만 利用, 每日 利用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는데 比하여 女子는 가끔 利用, 每日 利用, 試驗期間만 利用의 順으로 약간 다른 樣相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單大別 및 學年別로는 全體的인 傾向과 비슷하게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6) 學生生活研究所의 活動

現在의 우리대학의 學生生活研究所의 活動을 어떻게 보느냐?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59-가, 나>와 같다.

<表 59-가> 學生生活研究所의 活動에 對한 反應度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매우 만족	0.59	2.90	1.71	3.14	0.78	2.7	0.68	1.88
대체로 만족한 편	28.99	27.54	26.71	38.36	32.56	30.55	29.95	30.01
다소 불만	40.24	37.39	33.56	30.19	36.82	33.38	39.19	35.81
매우 불만	14.20	19.42	20.55	18.87	19.38	20.8	15.32	18.89
무응답	15.98	12.75	17.47	9.43	10.47	12.58	14.86	13.41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59-나> 學生生活研究所의 活動에 對한 反應度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매우 만족	2.71	1.82	0.74	1.82	1.88
대체로 만족한 편	39.66	25.26	23.79	30.48	30.42
다소 불만	29.8	39.58	38.28	37.80	35.81
매우 불만	12.32	20.83	24.90	14.02	17.99
무응답	15.52	12.5	12.26	15.85	13.90
N	406	384	269	164	1223

學生生活研究所의 活動에 對한 全體的인 反應率을 보면, 現在의 活動을 滿足으로 보는 學生들이 全體의 31.89%, 不滿足으로 느끼는 學生들이 54.7%로 나타내고 있어 不滿足度가 높다.

性別로 보면 女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單大別로는 人文大, 師大, 社會大,

海大의 順으로 生活研究所의 活動에 對하여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3學年, 2學年, 1學年, 4學年의 順으로 나타내고 있어 3學年이 不滿으로 보는 傾向이 가장 높다.

7) 學生生活研究所의 活用

學生生活研究所를 活用해본 일이 있다면, 그 結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60-가,나>와 같다.

<表 60-가> 學生生活研究所 活用結果의 反應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문제해결에 매우 도움이 됨		1.78	2.61	2.40	3.14	4.26	3.34	2.03	2.86
문제의 해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됨		12.43	19.13	18.15	24.53	20.93	21.69	14.64	19.05
도움이 되지 못했다		26.04	24.35	22.95	25.16	24.03	45.29	28.6	24.28
오히려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됨		2.37	6.67	3.42	0.63	3.49	4.62	2.48	3.84
무응답		57.40	47.25	53.08	46.54	47.29	48.52	52.25	49.96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0-나> 學生生活研究所 活用結果의 反應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문제해결에 매우 도움이 됨		2.46	3.39	1.86	4.27	2.86
문제의 해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됨		19.95	17.19	20.82	18.29	19.05
도움이 되지 못했다		15.27	27.86	31.97	31.71	25.10
오히려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됨		2.22	4.95	5.58	2.44	3.84
무응답		60.1	46.61	39.78	43.29	49.14
N		406	384	269	164	1223

學生生活研究所 活用 結果에 對한 全般的인 所見을 보면, 도움이 되지 못했다(24.28%), 도움이 되었다(21.91%), 問題解決이 어렵게 되었다(3.84%), 나머지는 無反應率로 나타내고 있어 이는 學生生活研究所를 活用해 본 바가 없는 學生들로 여겨지며, 學生生活研究所를 活用해본 結果, 問題解決에 別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보는 傾向이 높다.

性別로 보면, 男學生들(45.29%)이 女學生들(28.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單大別로는 人文大, 農大, 社會大, 海大, 師大의 順으로 別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學年別로는 3學年, 4學年, 2學年, 1學年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高學年에서

否定的으로 보는 傾向임을 알 수 있다.

8) 學生生活研究所 非活用の 理由

學生生活研究所를 活用해 본 바가 없다면, 그 理由는?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61-가, 나>와 같다.

<表 61-가> 學生生活研究所 非活用の 理由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몰라서	22.49	21.45	18.84	17.61	20.16	19.26	21.85	20.20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6.51	3.77	5.48	10.06	7.36	6.55	5.41	6.13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8.28	15.36	18.49	18.87	14.34	14.89	16.22	15.37	
문제학생으로 보일 것 같아서	0.59	0.87	0.68	0.63	1.55	9.63	1.35	0.89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하고 싶어서	15.98	11.30	17.12	17.61	24.03	17.59	15.54	16.84	
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16.57	15.07	13.01	6.92	11.63	13.35	12.39	13.01	
상의할만한 교수가 없어서	1.78	3.19	1.37	0.63	1.55	1.8	2.03	1.88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0.59	2.29	-	0.63	1.16	1.28	0.45	0.98	
연구소 직원이 불친절해서	0.59	1.16	1.71	1.26	0.39	1.03	1.13	1.06	
무응답	26.63	25.80	23.29	25.79	17.82	14.63	23.65	23.6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1-나> 學生生活研究所 非活用の 理由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몰라서	34.48	18.49	0.12	6.71	20.29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7.39	4.17	4.83	9.76	6.13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10.34	18.23	16.73	18.9	15.37	
문제 학생으로 보일 것 같아서	0.99	0.52	0.74	1.83	0.90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하고 싶어서	17	14.32	18.96	18.9	16.84	
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10.34	12.5	16.73	14.63	13.30	
상의할만한 교수가 없어서	1.72	1.3	2.23	3.05	1.88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0.49	0.52	3.35	-	1.06	
연구소 직원이 불친절해서	0.99	1.04	0.74	0.61	0.90	
무응답	16.26	28.91	26.02	25.61	23.63	
N	406	384	269	164	1223	

學生生活研究所를 利用해 본 바가 없다는 理由에 對한 全體의인 傾向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 機關인지 몰라서 (20.2%)가 가장 높은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自己 일은 自己가 處理하고 싶어서 (16.84%), 別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15.37%), 갈 必要가 없다고 느껴서 (13.01%)의 順으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다. 卽 學生들이 生活研究所를 訪問치 않는 理由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自己 일은 自己가 處理하기 때문에 찾아갈 必要가 없는 것으로 類推할 수 있다.

그리고 生活研究所를 訪問치 않는 理由를 性別로 보면, 全體의인 傾向과 같은 順으로 反應하고 있으며, 生活研究所를 어떤 일을 하는 機關인지 모르는 傾向은 女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單大別로 보면, 人文大는 어떤 일을 하는 機關인지 몰라서, 訪問할 必要가 없다, 自己 일은 스스로 處理한다의 順. 社會大는 機能몰음, 도움이 안됨, 訪問할 必要 없음의 順. 師大는 機能몰음, 도움이 안됨, 自己 일은 스스로 處理함의 順. 海大는 自己 일은 스스로 處理, 機能 모른다, 別 도움이 안됨의 順. 農大는 別 도움이 안됨, 機能 모른다, 自己 일은 스스로 處理한다의 順으로 學生生活研究所를 訪問해 본 바가 없다고 反應하고 있으며, 學生生活研究所의 機能을 모르고 있는 傾向은 人文大, 社會大, 海大, 師大, 農大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또한 學年別로는, 1學年은 研究所의 機能 모른다, 自己 일은 스스로 處理한다의 順. 2學年은 研究所의 機能 모른다, 別 도움이 안될 것 같다의 順. 3~4學年은 自己 일은 스스로 處理한다, 訪問할 必要가 없다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1~2學年은 學生生活研究所의 機能을 아직 잘 몰라서 訪問하지 않은 傾向인데 反하여 3~4學年 學生들은 自己 일은 스스로 處理하고 있기 때문에 訪問할 必要性을 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十五) 心理的인 不適應 問題

學生들의 心理的(情緒的)인 不適應 傾向을 알아보기 위하여 日常生活에서의 注意散漫, 高所恐怖, 試驗不安, 未來에 對한 不安, 異性에 對한 不安, 孤獨感, 不眠症, 現實逃避, 劣等感等 精神問題性向을 調査해 본 結果는 다음들과 같다.

1) 注意散漫

讀書을 한다든지 어떤 問題를 생각할 때 雜念때문에 注意集中이 잘 안될 때가 있는가?의 質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62-가,나>와 같다.

日常生活時 學生들의 注意散漫에 對한 全體의인 傾向을 보면, 肯定이 77.68%, 否定이 9.64%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全學生의 77.68%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平常時에 注意集中이 잘 안되고 있는 傾向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學生들의 精神問題性向에 警覺心を 불러 일으키고 있

〈表 62-가〉 注意散漫에 對한 反應率

선택지	구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언제든지 그렇다		13.02	17.97	15.75	15.09	19.38	16.3	17.34
가끔 그런 편		71.01	59.42	63.70	62.26	52.71	59.05	64.41	61.0
보통이다		6.51	8.99	9.25	11.95	11.24	10.91	7.21	9.57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4.14	10.14	6.16	7.55	10.47	8.22	7.9	8.09
전혀 없다		0.59	1.74	1.37	1.26	2.33	2.31	0.23	1.55
무응답		4.73	1.74	3.77	1.89	3.88	3.21	2.93	3.11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2-나〉 注意散漫에 對한 反應率

선택지	학년	1	2	3	4	전체
	언제든지 그렇다		16.75	19.27	14.87	12.8
가끔 그런 편		59.85	57.29	66.54	63.41	61.0
보통이다		9.85	9.38	8.92	10.37	9.57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12.32	9.64	5.95	9.76	9.73
전혀 없다		1.23	1.82	2.23	1.22	1.64
무응답		-	2.6	1.49	2.44	1.47
N		406	384	269	164	1223

다고 하겠다.

注意散漫度の 傾向性을 性別로 比較해 보면 女學生들(81.75%)이 男學生들(75.36%)보다 深刻性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單大別로는 人文大, 師大, 社會大, 農大, 海大의 順으로 높은 傾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學年別로 比較해 보면, 3學年, 1學年, 2學年, 4學年の 順으로 注意散漫의 傾向이 深함을 엿볼 수 있다.

2) 高所恐怖

옥상이나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떨어질 것 같은 衝動에 사로잡혀 무서워할 때가 있는가? 에 對한 反應率은 〈表 63-가,나〉와 같다.

平常時 高所恐怖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肯定 49.55%, 否定이 39.25%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約 半數에 가까운 學生들이 平常時에 高所恐怖症의 傾向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表 63-가〉 高所恐怖에 對한 反應率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언제든지 그렇다	8.88	10.14	10.27	12.58	10.47	9.24	12.39	10.38	
가끔 그런 편	46.75	38.55	41.44	32.70	36.43	33.38	49.32	39.17	
보통이다	8.88	9.57	7.19	11.32	13.57	11.42	7.43	9.98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14.79	20.0	23.29	20.13	20.54	22.6	16	21.10	
전혀 없다	16.57	20.29	15.41	22.01	17.05	20.8	13.51	18.15	
무응답	4.14	1.45	2.40	1.26	1.94	2.57	1.35	2.1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3-나〉 高所恐怖에 對한 反應率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언제든지 그렇다	9.85	13.54	14.13	4.88	11.28	
가끔 그런 편	39.9	35.94	35.69	46.34	38.59	
보통이다	9.61	9.11	9.67	13.41	9.98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20.2	22.4	21.19	13.41	20.20	
전혀 없다	17.24	17.45	19.33	20.12	18.15	
무응답	3.2	1.56	-	1.83	1.80	
N	406	384	269	164	1223	

이를 性別로 分析해 보면 女學生들(61.71%)이 男學生들(42.62%)보다 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全體 女學生의 約 2/3에 가까운 學生들이 高所恐怖의 傾向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精神 衛生上의 問題를 지니고 있음을 示唆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單大別로 본 高所恐怖의 傾向은 人文大, 師大, 社會大, 海大, 農大의 順으로 그 傾向성은 人文大가 가장 높다.

그리고 이를 學年別로 比較해 보면, 4學年, 3學年, 2學年, 1學年の 順으로 4學年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高所恐怖의 傾向성의 程度는 1~3學年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3) 試驗不安

試驗이나 運動試合前에 무턱대고 便所에 가고 싶을 때가 있는가?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64-가,나〉와 같다.

〈表 64 -가〉 試驗不安에 對한 反應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언제든지 그렇다	6.51	1.75	8.56	7.55	9.30	7.32	9.23	7.93	
가끔 그런 편	37.28	36.52	35.27	34.59	32.56	32.22	40.54	35.24	
보통이다	14.20	12.75	9.93	13.84	13.57	14	10.14	12.59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23.08	27.83	28.77	22.64	22.48	25.55	25.68	25.59	
전혀 없다	14.79	13.91	14.73	19.50	20.16	18.23	12.84	16.27	
무응답	4.12	1.74	2.74	1.89	1.94	2.7	1.58	2.37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4 -나〉 試驗不安에 對한 反應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언제든지 그렇다	8.87	8.85	7.81	4.27	8.01	
가끔 그런 편	37.19	37.76	31.97	29.88	35.24	
보통이다	10.1	11.2	13.01	20.12	12.43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27.83	22.92	26.77	24.39	25.59	
전혀 없다	12.56	16.67	19.33	19.51	16.27	
무응답	3.45	2.6	1.12	1.83	2.45	
N	406	384	269	164	1223	

平常時, 當面問題에 逢着했을 때의 不安에 對한 全體的인 反應率을 보면, 肯定이 43.17%, 否定이 41.86%로 나타내고 있어 全學生의 約 43%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試驗不安의 傾向을 內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試驗不安의 傾向을 性別로 分析해 보면, 女學生들(49.77%)이 男學生들(39.54%)보다 높은 傾向임을 알 수 있으며, 「언제든지 그렇다」에 對한 反應率을 보면 男子가 7.32%, 女子가 9.23%로 反應하고 있어 그 深刻性도 女學生들이 높다.

그리고 이를 單大別로 보면, 師大, 人文大, 農大, 海大, 社會大의 順으로 試驗不安의 傾向을 보여주고 있으며, 學年別로 比較해 보면, 2學年, 1學年, 3學年, 4學年の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4) 未來에 對한 不安

將次 自信의 希望대로 안될 것이라고 느낄 때가 있는가? 라는 質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65 가, 나〉와 같다.

〈表 65 -가〉 未來에 對한 不安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대	남	여	전체	
언제든지 그렇다	5.33	6.96	7.19	8.18	6.98	7.19	6.53	6.95	
가끔 그런 편	67.46	58.55	53.42	65.41	55.81	57.12	61.94	58.87	
보통이다	5.92	8.12	7.53	6.92	10.08	8.09	7.66	7.93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12.43	18.84	19.52	11.95	14.73	16.69	15.77	16.35	
전혀 없다	3.55	4.93	10.27	6.29	10.85	8.09	6.31	7.44	
무응답	5.33	2.61	2.05	1.26	1.55	2.82	1.8	2.45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5 -나〉 未來에 對한 不安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언제든지 그렇다	8.37	7.29	5.2	5.49	6.95	
가끔 그런 편	60.1	57.29	59.11	61.59	59.20	
보통이다	7.14	8.33	8.55	7.93	7.93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14.53	17.71	16.73	16.46	16.27	
전혀 없다	5.42	9.38	8.18	6.71	7.44	
무응답	4.43	-	2.23	1.83	2.21	
N	406	384	269	164	1223	

未來의 不安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肯定이 65.82%, 否定이 23.79%의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어 全學生의 65.82%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未來에 對한 不安속에서 生活하고 있는 實情임을 알 수 있다.

將次の 不安에 對한 傾向性을 性別로 分析해 보면, 女學生이 68.47%, 男學生이 64.31%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全體女學生의 68.47%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將次の 問題에 對하여 不安속에서 헤메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이를 單大別로 檢討해 보면, 農大, 人文大, 社會大, 海大, 師大의 順으로 不安傾向을 보여주고 있으며, 學年別로 比較해 보면, 1學年, 4學年, 3學年, 2學年の 順으로 將次 逢着할 問題에 對하여 不安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5) 異性에 對한 不安

異性과의 만남이나 對話時, 부끄러워 한다든지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가 있는가?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66-가,나>와 같다.

<表 66-가> 異性에 對한 不安

선택지	구 분								전체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언제든지 그렇다	4.14	6.96	5.48	5.66	6.98	7.06	4.28	6.05	
가끔 그런 편	38.46	36.52	41.10	33.33	29.84	32.86	41.67	36.05	
보통이다	13.02	13.91	9.93	22.64	13.57	15.53	11.04	13.90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26.04	25.22	27.40	18.24	26.74	23.75	27.93	25.27	
전혀 그렇지 않음	10.65	15.65	13.36	18.24	19.38	16.94	13.06	15.54	
무응답	7.69	1.74	2.74	1.89	3.49	3.85	2.03	3.19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6-나> 異性에 對한 不安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언제든지 그렇다	8.37	5.99	4.09	3.66	6.05
가끔 그런 편	37.93	36.46	33.09	35.37	36.06
보통이다	12.56	11.2	18.22	16.46	13.90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22.66	28.13	24.54	28.05	25.51
전혀 그렇지 않음	13.55	16.67	17.84	14.02	15.54
무응답	4.93	1.56	2.23	2.44	2.94
N	406	384	269	164	1223

異性에 對한 不安恐怖의 傾向을 全般的으로 考察해 보면, 肯定 42.10%, 否定 40.81%로 거 이 비슷한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으며, 全學生의 42%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異性恐怖性向을 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性別로 分析해 보면, 男學生이 39.92%, 女學生이 45.95%로 나타내고 있어 女學生들이 男學生들 보다 그 傾向성이 높다하겠다.

그리고 異性不安恐怖性向을 單大別로 分析 檢討해 보면, 師大, 社會大, 人文大, 農大, 海大의 順으로 師大가 가장 높은 反面, 海大는 오히려 낮은 反應率을 보여주고 있다.

6) 孤獨感

親한 親舊나, 아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언제나 외로워할 때가 있는가?의 質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67-가,나>와 같다.

〈表 67-가〉 孤獨感에 對한 反應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언제나 그렇다	11.24	9.28	12.67	13.84	14.73	10.65	14.64	12.10	
가끔 그런 편	54.44	50.72	47.60	44.03	41.09	45.96	50.45	47.59	
보통이다	10.06	10.72	9.25	18.87	13.95	14.76	7.21	12.02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12.43	17.10	19.86	13.84	16.28	15.53	18.24	16.52	
전혀 그렇지 않다	7.10	11.30	7.88	8.18	11.63	10.53	7.88	9.57	
무응답	4.73	0.87	2.74	1.26	2.33	2.57	1.58	2.21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7-나〉 孤獨感에 對한 反應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언제나 그렇다	17	13.02	7.06	6.71	12.18	
가끔 그런 편	45.81	46.35	51.67	45.12	47.18	
보통이다	9.85	11.46	14.5	14.63	12.02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13.05	18.75	15.61	20.73	16.43	
전혀 그렇지 않다	8.87	9.38	10.04	10.37	9.48	
무응답	5.42	1.04	1.12	2.44	2.70	
N	406	384	269	164	1223	

孤獨意識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肯定이 59.69%, 否定이 26.09%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全體의 約 2/3에 가까운 學生들이 平常時 孤獨意識에 사로잡혀 生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孤獨傾向性を 性別로 分析해 보면, 女學生들(65.09%)이 男學生들(56.6%)보다 높은 傾向性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單大別로 分析 檢討해 보면, 人文大, 師大, 社會大, 農大, 海大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人文大에서 傾向性이 가장 높다.

그리고 學年別로 比較해 보면, 1, 2, 3, 4學年の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低學年일수록 孤獨傾向性이 높게 나타났다.

7) 不眠症

밤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잔다해도 잠이 설치거나 아침이면 氣分나쁠 때가 있는가?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68-가, 나〉와 같다.

〈表 68-가〉 不眠症에 對한 反應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언제든지 그렇다	4.14	6.38	8.90	7.55	7.75	7.83	5.86	7.11	
가끔 그런 편	50.89	44.06	36.30	47.17	43.02	41.72	46.17	43.34	
보통이다	8.28	8.99	9.93	8.81	11.63	9.37	10.14	9.65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20.12	24.64	25.0	15.72	17.83	22.34	20.05	21.50	
전혀 그렇지 않다	11.24	14.49	16.78	18.87	17.83	16.05	15.54	15.86	
무응답	5.33	1.45	3.08	1.89	1.94	2.7	2.25	2.53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8-나〉 不眠症에 對한 反應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언제든지 그렇다	4.93	8.85	7.43	7.32	7.03	
가끔 그런 편	41.13	43.49	44.24	50	43.74	
보통이다	7.14	9.38	10.04	15.85	9.65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23.15	22.4	21.93	14.63	21.50	
전혀 그렇지 않다	19.21	14.32	16.36	10.37	15.86	
무응답	4.43	1.56	-	1.83	2.21	
N	406	384	269	164	1223	

平常時 不眠症에 對한 全般的인 傾向性을 考察해 보면 肯定이 50.45%, 否定이 37.36%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約 半數에 해당하는 學生들이 不眠性向을 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性別로 分析해 보면, 女學生들(52.03%)이 男學生들(48.55%)보다 平常時에 不眠性向이 높은 傾向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不眠性向을 單大別로 檢討해 보면, 人文大, 農大, 海大, 社會大, 師大의 順으로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人文大가 가장 높다 하겠다.

그리고 이를 學年別로 比較해 보면, 4學年, 2學年, 3學年, 1學年의 順으로 4學年에서 不眠傾向性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8) 現實逃避

大衆앞에서 말을 할 적에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두려울 때가 있는가?의 設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69-가,나〉와 같다.

〈表 69-가〉 現實逃避에 對한 反應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언제든지 그렇다	10.06	10.14	13.01	10.06	11.63	10.65	11.94	11.12
가끔 그런 편	49.11	43.19	42.12	40.88	44.96	41.46	47.97	43.83
보통이다	10.65	15.07	13.36	20.13	14.73	14.76	13.96	14.64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18.34	22.90	23.63	15.72	18.60	21.57	18.92	20.61
전혀 그렇지 않다	6.51	7.25	5.48	10.06	7.75	8.47	4.95	7.20
무응답	5.33	1.45	2.40	3.14	2.33	3.08	2.25	2.62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69-나〉 現實逃避에 對한 反應

선택지	학 년				
	1	2	3	4	전 체
언제든지 그렇다	14.53	13.02	8.18	3.05	11.12
가끔 그런 편	41.87	47.4	42.01	43.29	43.83
보통이다	15.52	11.72	16.36	16.46	14.64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17.98	20.31	20.45	28.05	20.61
전혀 그렇지 않다	6.65	5.73	10.04	7.32	7.20
무응답	3.45	1.82	2.97	1.83	2.62
N	406	384	269	164	1223

現實逃避에 對한 全體的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肯定이 54.95%, 否定이 27.81%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全體의 約 55%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現實 逃避性向을 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性別로 分析해 보면 女子(59.9%)가 男子(52.11%)보다 그 傾向이 높게 나타났으며, 特히 女學生의 約 2/3에 가까운 學生들이 現實逃避性向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單大別로 比較 檢討해 보면, 人文大, 海大, 師大, 社會大, 農大의 順으로 人文大가 그 傾向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現實逃避性向을 學年別로 比較해 보면, 2學年, 1學年, 3學年, 4學年の 順으로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그 傾向이 2學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 現實不安(劣等感)

現在의 生活이 마음먹은대로 되지않아서 休學, 退學등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가?의 質問에 對한 反應率은 〈表 70-가,나〉와 같다.

〈表 70-가〉 現實不安에 對한 反應

선택지	구 분								
	인대	사회	사범	농대	해양	남	여	전체	
언제든지 그렇다	11.24	13.62	8.90	10.69	13.18	13.09	9.23	11.69	
가끔 그런 편	51.48	48.12	42.81	45.91	43.80	45.19	47.75	46.12	
보통이다	8.28	6.67	8.56	10.06	10.85	9.24	7.66	8.67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13.61	17.39	26.03	15.09	13.95	15.28	22.52	17.91	
전혀 그렇지 않다	10.65	12.17	11.30	15.09	16.28	13.86	11.26	13.00	
무응답	4.73	2.03	2.40	3.14	1.94	3.34	1.58	2.62	
N	169	345	292	159	258	779	444	1223	

〈表 70-나〉 現實不安에 對한 反應

선택지	학 년					전 체
	1	2	3	4		
언제든지 그렇다	10.1	15.36	13.38	4.27	11.69	
가끔 그렇다	48.77	49.74	42.75	36.59	46.12	
보통이다	7.14	6.25	8.92	17.68	8.67	
비교적 그렇지 않은 편	16.75	16.41	19.7	21.34	17.91	
전혀 그렇지 않다	13.05	10.42	13.75	18.29	13.08	
무응답	4.19	1.82	1.49	1.83	2.53	
N	406	384	269	164	1223	

現實不安(劣等感)에 對한 全體의인 傾向을 考察해 보면, 肯定이 57.81%, 否定이 31.91%의 反應率을 나타내고 있어 全學生中, 約 58%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現實不安性向을 內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性別로 檢討해 보면 男學生(58.28%)이 女學生(56.98%)보다 不安性向이 높은 傾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現實不安性向을 單大別로 分析 比較해 보면 人文大, 社會大, 海大, 農大, 師大의 順으로 그 傾向이 人文大가 가장 높다.

그리고 學年別로 그 傾向性을 보면 2學年, 1學年, 3學年, 4學年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어 低學年에서 높은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V. 要約 및 結論

(一) 要 約

이 研究은 特殊하게 地域과 環境을 달리하는 濟州大學生들의 當面하는 諸般問題를 科學的으로 分析 究明하여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教育計劃 및 効率的인 學生生活指導 計劃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마련하고, 또한 効果的인 生活指導의 資料를 提供하므로써 學生을 理解하고 校內外의 生活上의 諸般問題를 學生 스스로 賢明하게 選擇, 解決해서, 잘 適應할 수 있도록 助力하려는 데 그 意義와 目的이 있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本校在學生 1,223名(男 779名, 女 444名)을 對象으로 質問紙法을 通하여, 그 反應을 性別, 單大別, 學年別로 分類하고, 項目에 따라 그 反應率을 量的인 側面에서 分析 考察해 본 結果, 밝혀진 主要事實은 다음과 같다.

1) 個人的인 適應問題

(1) 現實的인 當面問題는 全般的으로 將來問題, 經濟問題의 順으로 나타났다.

(2) 現實的인 當面問題에 對한 相談者로는 親舊나 先輩, 家族의 順으로 나타났다.

2) 身體的인 問題

(1) 身體的인 問題로 切實히 苦悶하고 있는 것은 「몸이 늘 피곤하다」 「머리가 무거운 때가 많다」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2) 身體的 外貌上의 苦悶에 對해서,

① 全體的인 傾向으로는 「근심 걱정이 없다」 「키가 너무 작아서」 「몸이 너무 말라서」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② 性別로 보면, 男子는 「근심 걱정이 없다, 短身, 얼굴이 잘못 생겨서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3) 餘暇 善用

① 餘暇時間의 活用을 全體的인 傾向으로는 教養讀書, 對人交際, 趣味生活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으며,

② 性別로 보면, 男子는 趣味生活, 對人交際, 女子는 對人交際, 家事助力에 餘暇를 善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交友問題

(1) 現實的인 交友觀

오늘날 大學에서의 交友關係는 뚜렷한 特徵이 없이, 利己的이고 他算的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으로 나타났다.

(2) 理想的인 交友像

自身이 바라는 理想的인 交友像에 對하여,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親舊」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고, 다음으로 價値觀 및 人生觀을 같이 할 수 있는 親舊로 反應하고 있다.

(3) 現實的인 交友關係

우리 大學에서, 學生들의 交友關係를 肯定的(圓滿)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4) 交友關係上的 問題點

交友關係上的 隘路點으로는 消極的인 性格, 社交性的 缺如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5) 交友關係上的 重要點

交友關係에서 매우 重要視해야 할 點에 對해서는, 相對方을 信賴하고, 理解해야 한다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6) 眞正한 親舊의 有無

眞正한 親舊를 사귀고 있는 편보다, 眞實한 親舊를 願하지만 아직 找지 못한 편이 支配的이다.

5) 經濟問題

(1) 學費調達

現在 家庭에서 調達되는 學費程度에 對하여, 不滿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으로 나타났다.

(2) 學費調達의 方法

父母로부터 學費를 調達받는 學生이 絶對로 支配的이고 다음이 獎學金으로 나타났다.

(3) 副職希望

大部分의 學生이 副職을 希望하는 實情이다.

(4) 副職希望 理由

① 全體的인 傾向으로 社會經驗, 學費補助의 順으로 나타났다.

② 女學生들은 社會的 經驗, 雜費補助의 順으로 나타났다.

6) 教授와의 人間關係

(1) 教授와의 人間關係는 比較的 圓滿한 편으로 나타났다.

(2) 教授와의 相談은 거이 하지않은 傾向으로 나타났다.

(3) 教授와 非相談의 理由는 생각은 있으나 自身이 機會가 없어서, 생각은 있으나 性格問

題로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서의 順으로 나타났다.

(4) 相談에 對한 教授의 反應

比較的 誠意있게 對해 주었다. 形式的이고 의례적이었다의 順으로 나타났다.

(5) 相談內容

學業 및 學問的인 問題, 將來 進路問題로 나타났다.

(6) 教授에게 바라는 點

學生과의 人間的인 接觸, 人格的인 素養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인 것 같다.

(7) 理想的인 教授像

學生들과의 人間的인 接觸이 圓滿한 教授, 人格者로서의 教授로 보는 見解가 絶對 支配的으로 나타났다.

7) 教職員과의 人間關係

(1) 職員들과의 人間關係는 約 2/3에 가까운 學生들이 不滿反應을 하고 있다.

(2) 教職員들이 學生들에 對하는 態度는 大體로 親切한 편인 것 같다.

8) 性格問題

(1) 自身の 性格上의 問題로 切實히 苦悶하고 있는 것은 自信感의 缺如, 當面問題의 過多, 問題의 深刻性의 順으로 나타났다.

9) 異性 및 性問題

(1) 全體의 約 2/3에 가까운 學生들이 現在 異性交際를 안하고 있는 實情으로 나타났다.

(2) 異性交際에 對한 見解는 開放的인 것 같다.

(3) 大部分의 學生들이 異性交際를 贊成하고 있다.

(4) 오늘날 大學에서 性教育을 實施해야 한다고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5) 性教育은 課外活動 時間을 通하여 實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家庭問題

(1) 家庭에 對한 苦悶은 父母의 犧牲, 지나친 期待, 責任過重의 順으로 나타났다.

(2) 家庭의 雰圍氣를 좋게 보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3) 學生에 對한 父母의 지나친 期待가 絶對 支配的으로 나타났다.

(4) 家庭에서의 當面問題는 經濟問題, 家族의 健康問題의 順으로 나타났다.

11) 價値觀의 問題

(1) 行動基準은 경우에 따라 適當히 行動한다, 確固한 價値基準에 따라 行動한다의 順으로 나타났다.

(2) 人生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誠實과 正直, 健康, 和睦한 家庭의 順으로 나타났다.

(3) 幸福의 重要한 要素는 平凡한 生活에의 充實, 自己理想을 達成하려는 努力의 順으로 나타났다.

(4) 삶의 보람은 幸福한 家庭生活, 그날 그날의 生活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5) 人生의 價値는 自由 및 趣味를 즐길 수 있는 生活, 奉仕하는 生活로 보고 있다.

(6) 親子間의 價値觀의 差異는 深刻한 否定反應率을 보여주고 있다.

12) 將來問題

(1) 進路計劃은 就職, 大學院 進學의 順으로 나타났다.

(2) 願하는 職業은 趣味와 素質을 살릴 수 있는 職業, 安全性있는 職業, 奉仕職의 順으로 나타났다.

13) 專攻科에 對한 適應

(1) 現在의 專攻科를 選擇하게 된 動機는 趣味와 適性이 맞다, 職業展望이 좋기 때문의 順으로 나타났다.

(2) 現在의 學科에 適應하는 것 같다.

(3) 專攻科에 對한 不滿의 理由는 展望이 좋지 않아서, 學科雰圍氣가 나빠서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4) 轉科의 機會가 있다면 轉科하지 않겠다가 支配的이고, 轉科를 願하는 反應은 많지 않다.

14) 씨클活動

(1) 大部分의 學生들이 學內 씨클에 加入치 않는 實情이다.

(2) 씨클에 加入치 않는 理由는 關心이 없다, 適性에 맞는 씨클이 없다는 順으로 나타났다.

(3) 씨클活動의 目的은 人間關係改善, 圓滿한 人格形成의 順으로 나타났다.

(4) 씨클活動의 利點은 人間關係를 圓滿히 造成 維持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씨클活動에서 不滿理由는 興味가 없다, 人和團結의 缺如의 順으로 나타났다.

(6) 씨클活動 및 運營上의 隘路點은 財政貧弱, 活動內容의 未洽의 順으로 나타났다.

(7) 씨클活動에서 個人的인 隘路點은 時間不足, Program未洽의 順으로 나타났다.

15) 學內生活의 適應問題

- (1) 大學生活에 對한 느낌은 그런대로 지낸다. 無意味한 時間만 消費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 (2) 大學圖書館 施設에 對하여는 大部分의 學生들이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 (3) 圖書館運營에 對해서도 大部分의 學生들이 不滿으로 나타났다.
- (4) 圖書館運營上 不滿의 理由는 藏書 및 資料不足, 雰圍氣 紊亂, 施設貧弱의 順으로 나타났다.
- (5) 圖書館利用 程度는 가끔 利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學生生活研究所의 活動에 對해서는 約 半數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 (7) 學生生活研究所 利用 結果에 對해서는 別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 (8) 學生生活研究所를 利用치 않는 理由는 機能을 몰라서, 自己일은 스스로 處理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16) 心理的인 不適應 問題

- (1) 大部分의 學生들이 注意集中이 안된다고 呼訴하고 있으며, 그 傾向성은 女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深刻하다.
- (2) 約 50%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高所恐怖性向을 內包하고 있으며, 그 性向은 女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深刻하다.
- (3) 約 半數에 가까운 學生들이 試驗恐怖性向을 內包하고 있으며, 女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그 傾向성이 높다.
- (4) 約 2/3에 가까운 學生들이 未來에 對하여 不安을 느끼고 있으며, 女學生들이 그 傾向성이 높다.
- (5) 約 半數에 가까운 學生들이 異性恐怖性向을 內包하고 있으며, 그 傾向성은 女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높다.
- (6) 約 2/3에 가까운 學生들이 孤獨傾向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女學生들이 男學生들보다 그 傾向성이 높다.
- (7) 約 半數에 해당하는 學生들이 不眠性向을 內包하고 있으며,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그 程度가 높다.
- (8) 全體의 約 半數에 해당하는 學生들이 現實逃避性向을 內包하고 있으며,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약간 높다.
- (9) 約 過半數에 해당하는 學生들이 現實不安性向을 內包하고 있으며,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약간 높다.

(二) 結論 및 提言

1) 個人的인 適應問題

- (1) 現實的인 當面問題는 將來問題로 나타났다.
- (2) 當面問題에 對한 相談者는 親舊나 先輩로 나타났다.

2) 身體的인 問題

- (1) 身體的으로 切實히 苦悶하고 있는 問題는 몸이 늘 피곤한 것인 것 같다.
- (2) 身體的 外貌로 크게 苦悶하고 있는 問題는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3) 餘暇善用

平常時 教養讀書로 餘暇를 善用하는 傾向인 것 같다.

4) 交友問題

- (1) 大學에서의 交友關係는 뚜렷한 特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 理想的인 交友像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親舊로 보는 見解가 絕對 支配的이다.
- (3) 大學에서의 交友關係를 圓滿하다고 보는 見解가 絕對로 支配的이다.
- (4) 交友關係上的 隘路點으로는 消極的인 性格때문으로 보고 있다.
- (5) 交友關係에서 매우 重要視해야할 點은 相對方을 信賴하고 理解해야 한다는 게 絕對로 支配的이다.
- (6) 眞實한 親舊를 願하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편이 支配的으로 나타났다.

5) 經濟問題

- (1) 學費調達の 程度에 對하여는 不滿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으로 나타났다.
- (2) 父母로부터 學費를 調達받는 學生들이 絕對로 支配的이다.
- (3) 大部分의 學生들이 副職을 願하는 實情이다.
- (4) 副職을 願하는 理由는 社會的 經驗을 얻기 爲해서이다.

6) 教授와의 人間關係

- (1) 教授들과의 人間關係는 比較的 圓滿한 편으로 나타났다.
- (2) 教授들과의 相談은 거이 하지 않는 傾向이다.
- (3) 教授들과 相談을 하지 않는 理由는 생각은 있으나 自信이 機會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 (4) 相談에 對한 教授들의 反應은 比較的 誠意있게 對하여 주었다로 反應하고 있다.
- (5) 教授들과의 相談의 內容은 學業 및 學問的인 問題로 밝혀졌다.
- (6) 教授들에게 바라는 것은 學生들을 人間的으로 對하여 주기를 期待하고 있다.
- (7) 理想的인 教授像은 學生들과 人間的인 接觸이 圓滿한 教授로 나타났다.

7) 教職員들과의 人間關係

- (1) 教職員들과의 人間關係에 對하여는, 約 2/3에 가까운 學生들이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 (2) 教職員들이 學生들에게 對하는 態度는 大體로 親切한 편인 것 같다.

8) 性格問題

性格上的 問題로 切實히 苦悶하고 있는 것은 自信感의 缺如로 나타났다.

9) 異性 및 性問題

- (1) 約 2/3에 가까운 學生들이 現在 異性交際를 안하고 있는 實情으로 나타났다.
- (2) 學生들이 異性交際를 開放的으로 보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 (3) 大部分의 學生들이 異性交際를 贊成하고 있다.
- (4) 大學에서 性教育을 實施해야 한다고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 (5) 性教育은 課外時間을 通하여 實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家庭問題

- (1) 自身때문에 父母님이 犧牲當하고 있는 게 家庭에 對한 苦悶이다.
- (2) 自己家庭의 雰圍氣를 좋게 보고 있다.
- (3) 學生에 對한 父母의 期待는 지나친 期待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 (4) 家庭에서의 當面問題는 經濟問題로 나타났다.

11) 價値觀의 問題

- (1) 경우에 따라 適當히 行動하는 것을 行動基準으로 삼고 있다.
- (2) 人生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인 것은 誠實과 正直이다.
- (3) 平凡한 生活에 充實할 것을 幸福의 重要的인 要素로 삼고 있다.
- (4) 幸福한 家庭을 꾸미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
- (5) 人生의 價値는 自由와 趣味를 즐길 수 있는 生活이라고 보고 있다.
- (6) 親子間的 價値觀의 差異는 深刻한 傾向으로 나타났다.

12) 將來問題

- (1) 進路計劃을 就職으로 보는 學生이 支配的이다.
- (2) 願하는 職業은 趣味와 素質을 살릴 수 있는 職業으로 나타났다.

13) 專攻科에 對한 適應問題

- (1) 現在의 專攻學科를 選擇하게 된 動機는 趣味와 適性이 맞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다.
- (2) 現在의 學科에 對하여 大體로 滿足을 느끼고 있다.
- (3) 專攻學科에 對한 不滿의 理由는 展望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 (4) 轉科의 機會가 있어도 轉科하지 않겠다고 支配的이다.

14) 씨클活動

- (1) 大部分의 學生들이 學內的 씨클에 加入치 않는 實情이다.
- (2) 씨클에 加入치 않는 理由는 關心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 (3) 人間關係改善을 씨클活動의 目的으로 보는 것 같다.
- (4) 씨클活動의 利點은 人間關係를 圓滿히 造成 維持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5) 씨클活動을 하는 데, 不滿의 理由는 活動內容에 새로운 맛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 (6) 씨클活動 및 運營上의 隘路點은 財政貧弱으로 나타났다.
- (7) 씨클活動에서 個人的인 隘路點은 時間不足으로 보는 것 같다.

15) 學內生活의 適應問題

- (1) 現在 大學生活에 對한 所感은 그저 그런대로 지낸다고 나타났다.
- (2) 大學圖書館 施設에 對하여는 大部分의 學生들이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 (3) 圖書館運營에 對해서는 大部分의 學生들이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 (4) 圖書館運營上 不滿의 理由는 藏書 및 資料不足으로 나타났다.
- (5) 圖書館 利用의 程度는 가끔 利用하는 편이다가 支配的이다.
- (6) 約 半數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學生生活研究所의 活動에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 (7) 學生生活研究所를 利用해본 結果, 別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 (8) 學生生活研究所를 利用치 않는 理由는 무슨 일을 하는 機關인지 몰라서로 나타났다.

16) 心理的인 不適應 問題

- (1) 大部分의 學生들이 平常時 注意集中이 잘 안된다고 呼訴하고 있다.
- (2) 約 50%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高所恐怖性向을 內包하고 있다.
- (3) 約 半數에 가까운 學生들이 試驗恐怖性向을 內包하고 있다.

- (4) 約 2/3 에 가까운 學生들이 未來에 한하여 不安을 느끼고 있다.
- (5) 約 半數에 가까운 學生들이 異性恐怖性向을 內包하고 있다.
- (6) 約 2/3 에 가까운 學生들이 孤獨傾向性을 內包하고 있다.
- (7) 約 半數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不眠性向을 內包하고 있다.
- (8) 約 半數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現實逃避性向을 內包하고 있다.
- (9) 約 過半數에 해당되는 學生들이 現實不安性向을 內包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 韓國教育開發院，「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答申報告書，1978。
- 文光錫，青少年問題와 將來，大韓出版公社，1983。
- 李相魯，青年期の 特性과 學生指導의 問題，慶北大學校 補職教授 세미나 資料，1973。
- 李星珍外，國家發展과 青少年，培英社，1978。
- 鄭寅錫外，生活指導，載東文化社，1972。
- 鄭寅錫，青年心理學，載東文化社，1971。
- 洪承稷，韓國人의 價置觀研究，高麗大學校 亞細亞研究所，1971。
- 徐鳳延，自我正體感 形成에 關한 心理學的 研究，慶北大學校大學院，1975。
- 姜周泰外，青年心理學，螢雪出版社，1972。
- 內務部治安局，插查白書，內務部治安局，1972。
- 金正輝，現代青年心理學，學文社，1977。
- 李炯得外，人間關係의 改善과 治療，中央適性研究所，1978。
- 鄭元植，青少年指導，培英社，1977。
- 鄭喜鄉，變化하는 世界의 카운셀라，教育出版社，1973。
- 黃應淵，大學生의 價置觀 및 關聯된 變因에 關한 研究，益文社，1975。
- 吳天錫，發展韓國의 教育理念探究，光明出版社，1975。
- 鄭世九，價值理論과 價值教育，教育出版社，1977。
- 李圭浩，教育和 思想，培英社，1975。
- 高明奎，濟州大學生의 價置觀에 關한 研究，東國大學校大學院，1976。
- 濟州大學校學生生活研究所，學生指導研究，Vol 1 ~ 5。
- 서울大學校學生生活研究所，學生生活研究，Vol 16 ~ 17。
- 釜山大學校學生生活研究所，研究報，1981，Vol 17。
- 慶北大學校學生生活研究所，學生指導研究，1974 ~ 1982，Vol 7 ~ 16。
- 啓明大學校學生生活研究所，指導 相談，1973，Vol 1。
- 忠北大學校學生生活研究所，學生指導研究，1980，Vol 5。
- 西江大學校學生生活研究所，人間理解，1980 ~ 1981，Vol 2 ~ 3。
- 忠南大學校學生生活研究所，學生指導研究，1980，Vol 8。
- 嶺南大學校學生生活研究所，學生研究，1981，Vol 13。

平林初之補, Emile (世界大思想全集), 春秋社, 1928.

桂 廣介, 青年心理學, 金子書房, 1964.

神保信一, 學校相談心理學の展開, 金子書房, 昭和 53.

坂田一外, 青年期の理解, 福村出版, 1973.

澤田慶輔, 青年心理學, 東京大學出版會, 1970.

Clements, H. M. & Oclke, M. C. Factors related to reported problem of adoles cents. J. Person & Guid. 1967.

Erikson, E. 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I, 1959.

Gibson, R. L. & Mitchell, M. H. Introduction to Guidan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1.

Mooney, R. L. & Gordon, L. V. Manual for the Mooney Problem Check-Lists(Rev), New York, Psychological Cor-Poration, 1960.

Wharton, W, Mckean, J. & Knights, R. Student assistants for faculty advisers, J. Coll. Stud. Person L966. I.